



8

198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9. 8호

(루계 502)



◇◇◇◇◇◇◇◇◇◇

## 차 례

◇◇◇◇◇◇◇◇◇◇

수령님의 추억속에 .....	4
<b>김일성</b> , 그이는 세기의 위인 .....	5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	5
내 언제나 생각하고있어도 .....	6
주체의 인간학과 수령의 형상 .....	7
직포공의 순회길우에 .....	13
불멸의 꽃앞에서 .....	13
기쁨 .....	14
밤은 깊어가도 .....	15
빛나라 백두성 구호나무여 .....	15
나도 건설자의 한사람이다 .....	16
백두산의 정적이며 .....	18
시를 쓰고싶었노라 .....	19
어제도 오늘도 또 래일도 (외 1 편) .....	20
사랑에 대한 답시 .....	20
백두산은 나에게 .....	21
리별 .....	22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한 참된 당일군형상 .....	23
자동화의 불빛이며 .....	25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	26
자주성이 짓밟힌 인간의 운명문제를 밝힌 심오한 시형상 .....	26

소조원의 마음 .....	28
어머니 .....	29
힘에 대한 이야기 .....	47
백두산에 올라 .....	56
즐거운 저녁에 .....	57
참된 행복 .....	58
봄비를 마중하며 .....	66
현대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환상소설 .....	67
고향 시초 .....	70
이웃들 .....	72
혈맥 .....	73
서운한 종점 .....	74
승리자의 모습 .....	76
나는 이 길을 간다 .....	78
바이루트의 처녀애에 대한 답시 .....	79

# 수령님의 추억속에

-기양 2 단양수장의 《락원 1》호 양수기앞에서-

한원희

여기에 있었구나 《락원 1》호 양수기

기나긴 30년이 흘러간 오늘에도

우리 수령님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마음속에 못잊어하시는 양수기

너의 둥근 몸체를 안아보고 쓸어보며

뜨거운 얼굴을 비비고싶구나

숨결도 고르로운 너의 동음소리

추억의 노래처럼 잊지 못할 나날을 불러오누나

이야기하라, 너 양수기야

아직은 나라가 어려웠던 그때

우리 수령님

곧바로 락원땅을 찾지 않으셨거나

양수기를 만들자고

땅에 물을 주자고

그때 락원에 그 무엇이 있어

머나먼 그곳을 찾으시였던가

가진것이란 빈주먹밖에 없었던만

수령님은 보시였다

락원의 아들들을, 불굴한 그 모습들을

수령님 안겨주신 그 믿음에

심장과 쇠물이 함께 끓었다

그 뜨거운 숨결이 주형틀에 흘러들고

그것이 키를 넘는 양수기가 되었다

기체에서 밥이 나오느냐고

종파놈들이 악을 품고 날뛸 때에도

수령님만을 믿고 따른 락원의 정신이

너의 동체가 되었다! 날개가 되었다!

양수기, 양수기!

첫물을 퍼올리던 그날

첫통수식의 환호소리 높던 그날

락원이 큰일을 했다고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그 사랑 안고

오늘도 폭포처럼 생명수 퍼올리는 양수기

아, 수령님의 추억속에 길이 남아

별처럼 빛나는 네 이름 《락원 1》호여

30년 네가 들을 적신 물은

그 한방울 한방울이 천금같이 귀중한

락원의 량심, 락원의 정신이었다!

그것으로 풍년나락을 가꾸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영글리며

오늘도 래일도

너의 동음소리 온 나라에 울려가리라

영원한 진군의 노래처럼!

노래의 아름다운 메아리처럼!

# 김일성, 그이는 세기의 위인

파루크 발루취

은빛 찬란한 조선의 별  
동서방을 휘황히 밝혀주는 별  
인류의 마음속에 불멸하리라  
혁명가들의 마음은 달려간다네  
머나먼 만경대에도

해방의 력사우에 빛나는 그 존함

**김일성** 주석은 인류의 영광  
그처럼 위대한분을 낳은  
조선은 정녕 복받은 땅이여라

그이는 자주성의 대화원에  
주체의 씨앗을 뿌리시여  
영광의 주체시대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  
정녕 그이는 예지의 상징

근로대중의 친근한 벗 이시여라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포를 주시고  
만민에게 자애론 스승이 되시여  
자주성의 화불을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쓸어버리시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빛나는 그 존함 영원히 간직하리  
뜨거운 감사의 눈물 머금고  
영원히 그이를 기억하리라

**김일성** 그이는 세기의 위인이시여라

(필자는 파키스탄 기자임)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야 니키포로바 뻬체바

이 땅 그 어데서나  
환희의 인사 드린다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고  
행복의 노래 울려퍼지는  
맑은 아침의 나라의 아들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통일된 래일의 조선을 위해  
번영하는 래일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위해  
정력을 다하시며  
한생을 바쳐가시는  
영명하신 그이께

그이 보내시는 낮과 밤속에  
조선의 희망 현실로 꽃피나고  
인민의 행복 마련되며  
공산주의 본보기가 창조되고있어라

그때문에 인민은  
심장으로 그이를 노래한다  
그때문에 해마다 2월이 오면  
아름다운 꽃들을 고르고골라  
머리숙여 삼가 그이께 감사의 인사 드린다

(필자는 벨라리아 공민임)

# 내 언제나 생각하고있어도

-모란봉 기슭의 대형기념벽화 《민족의 환호성》앞에서-

변명열

내 언제나  
생각하고있어도  
다시금  
그 생각을 깊이해주는  
모란봉 기슭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여

내 이렇듯  
쉬이 찾아오는 모란봉 기슭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저 개선의 단상우에 오르시기까지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 길 헤쳐오셨던가

찢기고 터진 민족의 존엄  
어리신 가슴에 안으시고  
만경대의 눈우에 찍으신 자욱  
걸음걸음 피땀하던 그 사연...

그 길우에  
사랑하는 부모님  
이향의 풀성긴 언덕우에 영결하시며  
사랑하는 전사들  
가슴아피 추도하시며

긴긴 세월  
아픔이면 가장 쓰린 아픔  
슬픔이면 가장 깊은 슬픔의 언덕을  
넘어 다 넘으시며  
우리 수령님  
이날을 안겨주시었으니

내 늘 생각은 해왔어도  
다시금 가슴치는 송구함이어  
수령님 모진 시련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안아오신 오늘의 행복  
내 누리는 생활의 환희  
심장처럼 귀중해짐이어  
  
그래서  
저 개선공원의 꽃그네우에  
밝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도  
행복의 미소 짓는 어머니들의 얼굴도  
저렇듯 밝고 환희로운것 아닌가

아, 세월은 흘러  
그날의 모란봉의 솔씨가  
오늘의 싱그러운 청송이 되고  
그날의 꽃씨가 예 묻혀  
찬란한 화원을 이루었어도  
저 화강석 대돌우엔  
그날의 수령님 영상을 모시는  
인민의 마음

다시금 생각하노라  
늘 하던 생각이어도  
내 누리는 행복의 근본  
내 받아안은 생활의 환희  
그 귀중함이 백배로 천배로 불타오르는  
이 화폭앞에서

아, 내 언제나  
생각하고있어도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날의 수령님 영상 높이 모신  
모란봉 이 기슭에 찾아와  
뜨거이 안으리라  
내 안겨사는 조국  
내 누리는 행복의 근본을...

## 주체의 인간학과 수령의 형상

한중모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지도밑에 오늘 우리 문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맞게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여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이것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우리 문학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의하여서도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문학은 혁명발전의 여러 시기, 여러 단계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다양한 주체의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탁월한 공산주의적 품모,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함으로써 감동적인 예술적 화폭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문학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회주의문학은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그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을 긴절한 요구로,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게 된다.

수령의 위대성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 사회주의문학으로 하여금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인간문제,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는 그 본성적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며 사람들을 힘있게 존엄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불려일으키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와 공산주의적 품모,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사회주의문학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형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되게 한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새 시대 사회주의문학의 본질적 특성이다.

력사의 새 시대인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문학은 혁명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의 힘찬 모습과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품모,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사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성격과 창조적인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인민들에게 생활의 진리,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참된 삶의 길, 보람찬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문학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와 거대한 창조적 힘을 보여주는 문제는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려면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어야 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고 통일단결되어야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고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지도자,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고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의 중심을 이루며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로부터 문학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다그쳐나가는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여 찬란히 개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에서 수령형상 작품들이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창작활동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을 첫째가는 원칙적 요구로 내세우고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린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제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를 실재한 력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작품으로 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현승걸, 최학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과 공산주의적 품모를 전사, 인민들과의 혈연적인 련계속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민족적 독립과 계급적

해방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감명깊게 재현하고있다.

소설은 국제적으로는 파시즘의 도발과 침략책동이 날을 따라 우심해지고 일제가 대륙침략을 다그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경제적 약탈과 정치적 탄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었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는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끼쳐놓은 반《민생단》투쟁의 해독적인 후과가 완전히 가셔지지 못하고있던 엄혹한 력사적 시기에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혁명의 핵심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시고 전민족을 반일민족통일전선으로 묶어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써 하여 조선혁명이 일대 양양의 새 시기를 맞이할수 있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남호두로부터 백두산 서남부에 이르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진군을 조직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면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참된 삶을 찾고 보람찬 투쟁의 길로 나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수령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진리를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오가자마을에서 머슴군으로 천대속에 살아오던 강세호가 조선인민혁명군의련대장으로 자라나 조선혁명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수 있는것도, 《민생단》의 억울한 루명을 쓴 리경준부부와 장기령, 윤칠녀 등이 참된 삶의 보람을 다시 찾고 혁명의 길에서 그것을 빛내어나가게 된것도, 지난날 파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어 탁류속에서 오염되고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대통령감》 권학식이 비로소 값있는 삶의 길을 걷게 된것도, 유산계급출신인 박문필이 보람찬 투쟁의 길에 들어설수 있는것도 다 조선혁명의 진두에서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마안산밀영에 오시여 《〈진술서〉 요, 〈조사서〉 요, 〈증거문건〉 이요 하는 문서보따리보다도 동무들자신이 혁명의 길에서 싸우겠다는 그 결의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시며 이른바 《민생단》 증거문건들을 손수 볼래워버리시며 험벗고 굶주린 아동단원들을 보시고 이 아이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추위에 떨고있는데 백벌의 외투를 입는다고 한들 내 마음이 더워질수 있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자신의 숨외투를 알아누워있는 어린이에게 몸소 덮어주시며 강반석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귀중한 돈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입히시는 소설의 장면들은 모든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체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시어 우리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들 모두를 크나큰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참다운 삶의 길, 보람찬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한 감동적인 화폭이다.

참으로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은 동강회의에 참가한 권학식의 심장의 뒤흔침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사랑을 지니신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하면서 그이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어둡던 삼천리 강산에 려명이 밝아오고 그이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보람과 투쟁의 행복을 받아안았다고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심으로 하여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사상예술적 특성으로 하여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창조를 기본과제로 내세운 작품들에서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혁명투쟁과 사회주의현실을 취급한 작품들에서도 다양한 형상계기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형상하고 수령님과 인민들의 혈연적인 령계와 통일단결을 깊이있게 묘사함으로써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이룩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근본요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새봄》(김규엽)은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과 운명, 그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농민들

을 봉건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 력사적인 토지혁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는것은 해방직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령도하시면서 토지개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있다.

소설은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토지혁명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토지문제해결을 민주개혁의 첫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성과적 실현으로 농민들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진실하게 형상하면서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농촌혁명가로, 새 조선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는 농민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소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은 양지말에 대한 현지도와 양지말 농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그려져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양지말농민들을 찾으시어 밤을 지새우시며 그들의 소박한 의견을 들어주시고 손수 쓰신 토지개혁법령의 매 조항을 완성해나가는 장면, 이른새벽 농민들과 함께 칼바람이 부는 험한 산밭을 타고 오르시며 저수지자리를 잡아주시는 장면, 최명진, 동석준, 변귀남 등 양지말의 첫 공산당원들을 만나주시고 고무해주시며 친히 마련하여오신 메밀가루로 국수를 눌러 농민들과 허물없이 식사를 같이하시는 장면 등은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바치시며 그 어떤 로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가 있었기에 봉건적 착취와 압박속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주집 머슴을 살고 소작을 붙이다가 《동원령 위반죄》로 감옥살이까지 한 최명진, 머슴군으로 잔뼈가 굵은 변귀남, 한평생 야장일로 늙어온 동석준 등이 리세포위원장, 리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농민조합 위원장으로 자라나며 농촌위원회 위원들로서 토지개혁 수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성격성장과정과 보람찬 생활에 대한 형상은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수령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위대한 공산주의적 풍모,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또한 작품에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밝히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문학을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한다.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주체형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문학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를 밝힌다는것이며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것은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인간인 자주적 인간의 전형적 형상을 창조한다 는것이다.

작품의 중심에 본보기로 되는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질적 특성이며 기본사명이다. 문학에서는 어떤 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그 성격을 얼마나 깊이있게 그리는가 하는데 따라 인간문제의 가치와 의의가 좌우된다. 문학은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되는 전형적인 인간전형을 통해서만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밝힐수 있다.

주체의 인간학인 새로운 사회주의문학이 형상하는 주체형의 인간, 자주적 인간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는 인간전형이며 자주성에 대한 문제,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 문학에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공산주의적 풍모,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 주체형의 참다운 인간, 자주적 인간의 전형적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고 자주성에 대한 문제,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수령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의 중심,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정치적 생명의 어버이이며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불려일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탁월한 령도자이기때문이다.

새시대의 자주적 인간, 주체형의 인간은 수령으로부터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는 공산주의혁명가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에서는 자주적 인간의 생활과 투쟁을 수령의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성과 밀접히 련결시켜 형상하고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이루어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를 깊이있게 그려낼 때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그의 성장과정과 혁명의 길에서 체험하는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더욱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으며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자주성을 시키며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는 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다.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은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그이의 숭고한 풍모와 생활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는것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보람찬 투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수령과 전사, 인민들을 끊임없이 꿰을수 없는 혈연적인 련계속에서 형상하면서 수령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혁명전사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혁명의 길에 서 그것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이끌어주며 전사들과 인민들은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흠모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여기에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김병훈)에서의 오중훈련대장과 리성립의 형상은 혁명하는 사람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을 받음으로써 참된 삶과 보람찬 투쟁의 길을 걸을수 있고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잡땀을 입고 유격대에 입대한 오중훈이 병사

로부터 분대장, 소대장, 정치지도원, 중대장을 거쳐 편대장으로 자라나며 조선혁명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오중훈을 입대시킨 첫날부터 그를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으며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그를 굳게 믿으시여 대오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오중훈 편대장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였는가 하는것은 그의 손바닥의 자그마한 상처를 넘려하시여 적들의 《도벌공세》가 시작되는 긴박한 정세속에서도 그를 한주일동안이나 밀영의 후방병원에 보내시여 휴식하도록 배려하여주시는 장면, 오중훈이 장렬하게 전사하였을 때 숨을 거둔 그의 몸에 자신의따뜻한 체온이 스며있는 외투를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전사를 차마 머나먼 북만의 얼음땅 밑에 묻으실수 없으시여 그의 머리맡에 언제까지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계시는 장면들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그려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세심한 지도와 배려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중훈은 조선혁명의 주추돌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 참다운 충신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한때 반혁명분자에게 통락당한 일까지 있는 리성림이 불굴의 투사로 자라날수 있는것도 그가 수령님의 위대성과 숭고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모두가 리성림의 정치적 과오를 용서할수 없다고 들고일어났을 때에도 눈곱에 댄힌 그의 눈물에서 참다운 회오의 빛을 읽으시고 그를 혁명동지로 믿어주시였다. 그리고 성림이 적들에게 체포되어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는 그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의사를 데려다 수술을 하여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시고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까지 몸소 구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으며 그가 사령부로 돌아오지 못하였을 때에는 긴장한 행군길도 멈추시고 소부대를 파견하 시여 눈속에 쓰러져있는 그를 구원해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크나큰 신임과 극진한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리성림은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혁명적 의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상을 입는데다가 모진 주림과 혹한으

로 자기 한몸도 가누기 어려운 형편에서 중상당한 춘옥이를 쪽발구에 앉히고 끌고가다가는 쓰러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눈덮인 높은 령을 넘어 사령부로 찾아가는 끝없는 충성심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것이다.

우리의 문학은 수령형상작품에서뿐만아니라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새 조국 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와 그리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오늘에 이르는 각이한 시기의 다양한 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들을 형상하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종자의 요구와 주체사상적 과제에 맞게 형상함으로써 자주적 인간의 성격의 전형화와 인간문제에 대한 예술적 해명의 심도를 더욱 튼튼히 담보하고 있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김보행)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은 전후의 어려운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업이 발전한 나라에서만 만들수 있다는 대형양수기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주인공 주용녀를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지키는데 당원, 충신의 참된 삶의 보람이 있고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는 길이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밝히고있다.

주용녀는 가렬처절한 전화의 그날 복구건설을 넘려하시는 아버지수령님께 복구건설은 우리가 할테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올린 맹세대로 반당종파분자인 부상의 방해책동과 그에 아부굴종하고 맹종맹동하는 지배인의 패배주의, 그리고 악랄하게 감행되는 반동들의 파괴암해행위에도 굽히지 않고 전쟁때 입은 상처의 고통도 이겨내면서 변변한 설비와 자재 하나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끝내 대형 양수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용녀가 강재 한톤, 세멘트 한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배정하시는 형편에서 용선로를 세울 철관과 필요한 설비를 요구하여 수령님께 손을 내미는것은 량심이 없고 의리가 없는 행동이며 맹세를 저버린 죄악이라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계급적 원썬들의 책동으로 강물에 빠뜨린 용선로를 얼음을 까고 꺼내여 물길을 내면

서 때를 무어 실어오는 장면, 반당종과분자인 부상과 그에 추종하는 지배인, 그리고 암해분자인 생산부장 등에 의하여 양수기를 만들수 없다는 제의서가 제출되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수령님께서 제의서를 보시면 맹세를 하고 큰소리를 쳐놓고 이제와서는 못하겠다고 물러섰다고 얼마나 크게 심려하시며 신념도 의리도 없이 주저앉고말았다고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하는 죄스러운 생각과 피로운 마음으로 모대기던 주인공이 우리는 양수기를 할수 있으며 또 해야 하며 죽어도 양수기를 안고 죽자는 결의를 다지는 세포회의를 열고 자기들은 그 제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당중앙위원회에 올리자고 하는 장면 등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받들어 모시며 변함없는 신념과 의리를 지니고 당과 수령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는데 당원의 참다운 랑심이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소설에서 주인공 용녀를 비롯한 당원들의 변함없는 신념과 의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용녀를 비롯한 당원의 당원들이 대형양수기를 만들겠다고 결의하고 펼쳐나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전쟁때 그 공장에 가서 세포회의를 하면서 용녀동무랑 당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큰힘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큰 힘을 얻었다고, 오늘은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뒤떨어지고 채더미를 헤치고

빈터우에서 새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지만 남들보다 먼저 공산주의문어구에 들어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힘있게 고무해주시는 장면, 용녀를 비롯한 10 명 당원들이 만들어낸 양수기를 가지고 진행하게 된 관개통수식에 나오시여 오늘 또다시 전쟁을 이긴것 만큼이나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용녀가 중병으로 생명이 위험하게 된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치료대책을 세워주시고 자신께서 친히 수술장의 립회인, 보증인으로 되어주시는 장면 등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사는 인민보다 더 행복한 인민은

없으며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살며 투쟁하는데 참된 삶의 보람이 있고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는 길이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밝히고있다.

우리 문학은 혁명투쟁을 취급하든지 사회주의 현실을 취급하든지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종자의 특성과 주체의 요구에 맞게 형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 당의 정책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그것을 빛내어나가는 전사들과 인민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와 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적 형상을 통하여 자주성을 지키고 빛내이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과 불멸의 혁명업적,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은 우리 문학을 참다운 인간학으로서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한 원천이며 바탕이다.

우리 작가들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과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를 당과 수령의 고마운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빛내어나가는 자주적 인간의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모습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주체의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서 힘있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할것이다.

## 직포공의 순회길우에

염득복

직포공의 하루일이 시작되고  
평범한 직포공이 걷는  
직포기사이로  
우리 수령님 걸으시여라

머나먼  
현지도의 길 떠나시던 길이신듯  
현지도의 길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신듯...

자옥자옥 뜨거운 사랑 남기시고  
비단실 오리오리마다  
해빛같은 미소를 엮으시며  
순회길을 걷고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

인민을 위해 걸으시는 길도  
여기 직포공이 걷는 길에서 시작되는듯  
인민이 누리는 행복도  
여기에 다 있는듯  
뜻깊은 자옥 새겨지는 직포공의 순회길이어

이 길에 이어져있어라  
서해의 바람세찬 간척지  
작은 배 타시고 비바람 헤치시며  
비단섬의 새 력사 펼치시던 사랑의 길도

창성의 돌밭길에  
뒤엎긴 노박덩굴을 보시고도  
세월에 버림받던 돌에도 넋을 부어  
비단실로 되게 해주신  
인민 위해 바치신 사랑의 길도,

아, 목화꽃 피는 밭머리를 지나  
직포공의 순회길로 오시였는가  
누에고치 주렁진  
녕변의 산길을 걸어오신듯

우리 수령님 뜻깊게 걸으셔라  
위대한 사랑의 력사로 아로새겨진  
한평생 걸으신 사랑의 자옥을  
평범한 직포공의 순회길우에  
꽃처럼 아름답게 비단필에 새기시며...

## 불멸의 꽃앞에서

김석주

우려러 지극한 정성이  
신선한 노을을 풀어  
꽃잎을 엮었는가  
송이송이 타는듯 불타는듯

그리워 간절한 마음이  
꽃송이에 어렸는가  
송이마다 숨을 쉬며  
속삭이는듯

마치 한송이 꽃이 아니라  
그 어떤 신성한 녀과 마주한듯  
정신조차 씻은듯 맑아지는

진귀한 이 꽃과  
가슴헤쳐 심장의 말을 나누고싶거니

어디에 근원을 두었기에 그리도 황홀한것이나  
어디에 뿌리를 두었기에 그리도 싱싱한것이나  
하늘의 별빛이나  
땅속의 샘물이나

찬연한 아침노을에서 그 빛을 보았느냐  
산정의 만년백설에서 그 빛을 보았느냐  
세상의 맑고 순결한것을 거두어  
이 한송이 꽃을 피운것이나

그런 빛 그런 깨끗함은  
만물이 다 있다는 저 자연엔 없고  
넋을 바쳐 숭배하고  
진정을 다해 따르는  
인간의 가슴속에만 있을수 있거니

시대를 밝혀주는  
향도의 그 빛발을 우러러따르는  
이 세상 만민의 마음이  
꽃잎이 되고  
꽃빛으로 어리였는가

아, **김정일** 화!  
해빛도 못피운꽃

꽃을 가꾸며 한생  
꽃을 피우며 한생  
꽃과 함께 흘러간 내 한생

그것이 기쁨이고  
삶의 전부인줄 알았더니  
내 오늘 인생의 크나큰 기쁨을 안았구나

한송이  
또 한송이  
가꾸면 마음도 붉어지는가  
아, 아침노을처럼 불타는 **김정일** 화

들꽃이 아름다움을 주고  
향기를 주었다면  
인간에게 가장 숭고한 뜻을 안겨주는  
충성의 꽃 **김정일** 화여

늘어서고 또 늘어서며  
찾아오는 사람마다  
꽃을 보고 환히 웃을 때면  
내 가슴에도 환희가 곱이치고  
가는이 오는이  
감격에 젖을 때면  
내 마음 달려가는  
친애하는 그이의 자애론 품이어

사람이 피웠으니  
인간의 진정이 이렇듯 뜨거우며  
인간의 지성이 이렇듯 아름다우냐

정녕 빛발이나 노래이나 불타는 노을이나  
세상에 자랑높은 기념비들을 쌓았대도  
이 한송이 꽃처럼  
만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으랴

아, 꽃이어 꽃이어  
위인에게 매혹된 인간의 넋이어  
따름의 고결함이어  
흙모의 열렬함이어

## 기쁨

전병구

대륙만리 대양만리  
이 꽃을 찾아오는이  
이 꽃을 안고 가는이  
축원의 그 마음 안고가는  
그 진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 소원 그 진정  
송이마다 담고  
잎새마다 새겨  
천송이 만송이 피워가는  
내 한생의 더없는 기쁨이어

사람마다 하는 일 따로있고  
하고싶은 자랑 많다 해도  
세상에 한분  
빛나는 그이의 이름 지닌 꽃  
만민의 소원을 담아 이 꽃을 내가 가꾸네

아, 꽃도 이름도 세상에 처음인  
**김정일** 화  
**김정일** 화  
천송이 만송이 피는 꽃과 더불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원예사 내가 다 안았구나

# 밤은 깊어가고

조석영

밤은 깊어가고  
열차는 쉼없이 달리건만  
그이 계시는 차창가에  
불빛이 꺼질줄 몰라라

현지지도의 먼길에  
겹쌓인 피로도 푸실새없이  
그이께서는 이밤도  
새로 일떠설 제철소의 전망계획도 보아주시고  
바람세찬 북방의 농사일도 알아보시고

밤은 끝없이 깊어가건만  
수령님 심리를 덜어드리려  
막혔던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한밤을 지새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위대한 영상이 비낀 차창가에  
불빛이 흐른다  
굽이굽이 산길을 감돌아  
파도소리 높은 동해연선을 따라

아, 이밤  
별들은 하나 둘 사라져가도  
꺼질줄 모르누나  
당중앙 창문가에 빛나던 그 불빛  
그대로 옮겨놓은듯  
온밤 잠들줄 모르는 불빛

그 불빛  
천길지하막장에도

해빛되어 흘러들고  
바람세찬 고원에도  
사과꽃을 피우더라

그 불빛  
어둠을 불태우며  
새날을 불러오고  
한겨울에도  
봄빛되어 흘러들거니

잠시라도 휴식하시면  
수령님께 드리는 기쁨이 늦어지는듯  
순간순간의 모든 사색  
수령님 생각으로 깊어지고  
휩기시는 걸음마다  
수령님 구상을 꽃피우시는 마음  
그 마음 불빛되어 누리를 밝히려라

밝히려라  
우리 가는 앞길에  
시련이 막아서면  
그 불빛  
두려움 모르는 담력을 키워주고  
기적을 낳는 묘술을 안겨주나니

아 수만밤을 지새우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한없이 뜨거운 그이의 마음속엔  
언제나 밤이 없어라

가사

## 빛나라 백두성 구호나무여

리광선

고향처럼 그림던 백두산 찾아오니  
설레이며 맞아주는 불멸의 구호나무  
조선의 영광을 여기에 새겼다고  
아아 소리높이 온 세상에 자랑하네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이슬젖은 눈길로 글발을 더듬으니  
투사들의 그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네  
조선의 미래를 그려본 그 미소

아아 다가서는 우리 가슴 흔들여라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세월은 흘러서 세대는 바뀌어도  
그 언제나 빛나는 영원한 저 글발  
우리 당 따르는 인민의 마음속에  
아아 빛발치며 뜨겁게 안겨오네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 나도 건설자의 한사람이다

1961 년은 조선로동당 제 4 차대회가 열리는 력사적인 해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해 9 월에 소집되는 당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전국도처에서 증산투쟁을 즐기치게 벌리고있었다.

수도의 근로자들도 대회앞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선물하려고 앞을 다투어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보람찬 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갔다.

불야성을 이룬 수도의 건설장들에서는 기계의 동음이 그칠사이 없었다.

이처럼 벅찬 나날이 흐르던 어느날 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부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평양의 건설형편을 말씀하시다가 수도의 중요한 관문인 련못동-룡성도로확장공사를 어느 단위 에 맡겼으면 좋을것같은가고 의견을 물어보시였다.

한동안 심중히 생각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예로운 그 임무를 **김일성**종합대학에 맡겨주실것을 제기하시면서 자신께서도 직접 그 공사에 참가하실 결의를 표명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이의 의견을 긍정해주시면서 그 어려운 과업을 친히 종합대학에 맡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한몸바쳐 일해보라고 뜨겁게 고무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말씀을 심장에 새기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을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전사의 한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생산실습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련못동-룡성도로건설장으로 용약 달려나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보람찬 사업에 전대학학생들을 결기시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시기 위하여 공사 첫날부터 어려운 작업에 한몸을 잠그시였다.

그이께서는 옷옷을 벗어제끼시고 하루종일 메질도 하시고 목고채가 휘도록 흙을 가득히 퍼담아 메시고는 쉽없이 달리기도 하시였다.

그러시기도 성차지 않으시여 작업에 착수한지 사흘째되는 날부터는 3 인 2 조목고를 맡기하시였다. 세사람이 네사람 몫을 감당하는 이 방법은 여간만 힘겹지 않았으나 그이께서는 단 한번도 목고채를 어깨에서 내려놓으신적이 없으시였다.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는것 같아 학생건설자들이 한두삽이라도 흙을 적게 담으려고 하면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건설자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더 담으라

고 이르군하시였다.

그이의 부어오른 어깨를 보며 학생들이 근심스러운 낯색을 지으면 《청년들이 목고를 할 때는 그래도 목고채를 몇개씩 꺾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깨가 아프다고 갑작하게 메고 달랑달랑 다닐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목고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룡담을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처럼 그이께서는 학생건설자들과 함께 기쁨과 보람을 한껏 느끼시며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학생들을 이끄시였고 온 건설장에 희열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로동에 한몸을 잠그시는 지도자동지를 기꺼우신 마음으로 대하시였다.

어느날 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풀어 오른 어깨의 아픔으로 잠못이루시다가 새벽녘에야 눈을 붙이시였다.

그런데 이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용히 그이의 방으로 들어오시여 해별에 타서 살갗이 벗겨지신 자제분의 잔등을 한동안 들여다보시였다.

인기척에 눈을 뜨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머리맡에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옵자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이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래 일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바꾸는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번 단단히 꺾어보는것이 좋아.》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은 간단하였으나 지도자동지의 심정은 뜨거웠다. 수령님의 말씀속에는 벅찬 로동생활을 통하여 만사람의 수고와 열의를 체험하며 근로인민대중의 헌신적인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열망이 어려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기대를 명심하시고 굵은일, 마른일, 큰일, 작은일을 가리지 않으시였다.

간혹 먼 화물역에 가서 급히 물동을 운반해야 할 일이 제기되면 점심밥곽을 열으셨다가도 수저를 들지 못하신채 남먼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서슴없이 오르시였고 굴착기가 고장나 돌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 육중한 부속품들을 기계공장에 손수 가지고 가시여 수리해오기도 하시였다.

때로는신호기를 흔드시며 볼도젤날을 깊이 박으라고도 하시였고 때로는 로라차를 손수 몰아가시며 길우에 퍼놓은 자갈을 다지기도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헌



신성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성스러운 사업에서 언제나 학생건설자들을 위훈으로 이끄는 투쟁의 거울로, 기발로 되었다.

어느날 오후에 있는 일이었다.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져 눈깜박할 사이에 새로 파놓은 오수간선에 물이 절반이상 차올랐다.

당장 물길을 내지 않으면 한길이상 파놓은 오수간선이 다 허물어지고 작업장에 있던 굴착기도 물속에 잠기게 될 형편이었다.

그런데 옆에서 일하던 소대와 중대들은 비가 쏟아진다고 이미 철수하였고 작업장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지를 모신 소대의 몇몇 인원만이 남아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까지 들어가면 지금까지 파놓은 오수간선은 수포로 돌아가고말거요. 여기에 물길을 내야 하오. 자, 내 뒤를 따르시오!》

그이께서는 곡괭이를 쳐드시고 물속에 뛰어드시였다.

그러자 소대원들도 런달아 물속에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으로 훔치시며 세차게 곡괭이질을 하시였다.

소대원들은 벌써 여러번이나 그이의 손에서 곡괭이를 앗으려고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넘겨주지 않으시고 한덩이 두덩이 흙을 찍어내시였다.

어느덧 고인물은 허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물이 불어나니 일은 몇갑절 더 힘겨워졌다.

그이께서는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소대원들을 둘러보시였다.

《기운들을 내오. 이럴 땐 노래를 불러야 힘이 나오. 자, 혁명가요를 부르자구. 누가 선창을 떤것소?》

그이께서 말씀하시자 누군가가 적기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일시에 피끓는 심장들이 하나로 합쳐져 《적기가》의 노래소리는 돌격의 함성처럼 공사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다른 소대와 중대동무들은 공사장에서 난데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에 큰 충격을 받고 일시에 작업장으로 달려와 일판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학생건설자들은 몇시간동안의 긴장한 작업끝에 물길을 열고 마침내 오수간선을 비물의 피해로부터 구원해내고야 말았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이신작작의 모범으로 중첩되는 난관을 몸소 헤쳐나가는 한편 학생건설자들을 집단적인 혁신으로 끊임없이 이끄시였다.

공사를 지원하러 온 여러대의 건설기계들이 중대에 배속되어왔을 때였다.

일부 중대원들속에서는 기계에만 의존하면서 긴장성을 늦추려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그이께서는 기계의 그늘밑에서 편안히 지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어제는 300프로에 만족했다면 기계를 받아들인 오늘에 와서는 1,000 프로, 2,000 프로를 해야 한다, 계속 전진하는것이 혁명하는 사람들의 일본새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깨우쳐주시면서 그들을 새 기준 창조에로 고무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지를 모신 중대가 작업능력에서 놀라운 기록을 창조하자 그이께서는 지체없이 《경쟁대상을 뚫자!》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중대에 배속된 기계들을 다른 중대에 돌리도록 하시였다.

경쟁열이 오른 학생건설자들이 기계를 다른 중대에 넘겨주는것을 아쉽게 여기자 그이께서는 이렇게 타이르시였다.

《우리의 목적은 학부간의 경쟁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고 수령님께 자랑찬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학부에 기계를 보내주면 지원을 받는 그들인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이 더욱 분발하여 일을 잘하게 되고 우리처럼 또 다른 학급, 다른 학부를 도와주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공산주의적미풍이며 사회주의경쟁입니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자신의 소대, 자신의 중대만이 아니라 공사전반을 생각하시였고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실 일념으로 가슴불태우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처럼 이신작작의 모범과 정력적인 지도로 끊임없이 이끌이주셨기에 공사장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모든 중대들에서 앞을 다투며 작업실적을 획기적으로 올렸으며 수도건설력사에 전례없던 새 기록을 돌파하기까지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실천적 모범에 무한히 고무된 학생건설자들속에서는 수많은 긍정적 사실들과 미담들이 꼬리를 물고 창조되었다. 어느 한 소대가 작업하는 굴착작업현장에서 갑자기 오수가 터지자 그 소대전원이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 몸으로 오수구멍을 막아나섬으로써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보강한 위훈이며, 자기들의 비옷과 옷옷까지 벗어 덮으며 쏟아지는 비의 피해로부터 콘크리트타입물을 지켜낸 학생건설자들의 미가 등 실로 헤아릴수 없는 긍정적 모범들이 연이어 속출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건설자들은 마침내 런못동-룡성도로공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고

아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렸다.

학생건설자들은 공사를 다 끝나치고 대학에 돌아온후에 한 일군으로부터 자기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공사기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초여름의 무더위속에서 어찌나 힘겹게 일하셨는지 그이의 잔등이 해벌에 타서 세번이나 벗겨졌다.

그에 대하여 그 일군이 근심하자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제일 힘든 일을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때에 한번 본때있게 단련해

야지 언제 또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건설자들은 수도건설의 나날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여주신 고귀한 모범, 아버지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여주신 그이의 이신작착의 그 빛나는 모범이 다름아닌 수령님의 말씀 한마디한 마디를 절대성의 정신으로 받들어나가는 그이의 불굴의 의지로부터 우러나온것임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으며 그 불같은 충성심을 따라배우리라 결심을 다졌던것이다.

## 백두산의 정적이어

박재주

어디 갔느냐  
숲푸른 밀림속 지나  
내 백두다리 어구에 닿을 때  
번개 번쩍 뒤흔치며 들쭉던  
차거운 소낙비 소낙비는

너 어디 갔느냐  
만년 이끼 덧돋은  
아슬한 츤령바위 에돌아  
내 가파로운 부석길 오를 때  
휘뿌리던 눈보라 눈보라는

보나니 신비롭구나  
내 백두산정에 올라서니  
끝없는 정적속에 잠겼구나  
장군봉도  
푸른 전지도  
천리 수림의 바다도

너 불러 안겨준것이나  
저어기 이깔숲 푸른 밀림속  
진대 영킨 오솔길 헤치던  
그날의 투사들의 발자취도  
진달래 망울터친 조국의 봄밤  
청봉의 숲속에 잠못들던  
투사들의 그 숨결도  
사색깊이 더듬어 안으라고

너 안겨준것이나  
혈전만리 달려온 투사들  
못가의 맑은물  
고향집 박우물처럼 떠안고

눈물짓던 그 모습도  
못잊을 가슴에서 한줄의 흠  
조국의 모습으로 싸안고 가던 투사들의 그  
마음도  
고요속에 더듬어 안고 가라고

허나 아니 터칠수 없구나  
내 마음의 격정  
터치지 않고서는  
한자육도 내려설수 없구나  
네 성스러운 산정길

너는 순간의 정적속에도  
답사대원 내 마음속에  
혁명의 준엄함과 투쟁의 거창함  
사랑과 증오 그 모든것  
삶의 활력으로 안겨주나니

안고가노라  
안고가노라  
고요속에도 메아리쳐오는  
30년대 투사들의 높뛰는 숨결을!  
빛나는 래일에도 내닫는  
80년대 대건설 행군의 거세찬  
발구름소리!

오, 백두산아!  
너는 순간의 정적속에도  
백두의 아들로 살 맹세  
한껏 가다듬어 터치게 하는  
새 탄생의 위대한 순간을 주누나

# 시를 쓰고싶었노라

조령출

## 1

시를 쓰고싶었노라  
내 나이 20 고개를 넘는 시절에

망국의 폐허, 무너진 성벽아래  
달빛만 처량히 흐르고  
풀벌레 구슬피 구슬피 우는 밤

가슴에 설음이 타올라  
심장이 터지도록 울고싶어  
잃어버린 그님을 불러 부르며  
내 가슴 타다가 재가 되도록  
내 시를 쓰고싶었노라

하나 아쉽게도 그것은 마음뿐  
원고지우에 피를 쏟아붓듯 시를 썼으나  
그 시절에 남길만한 시 한수 남기지 못한채  
세월이 흘렀노라

## 2

시를 쓰고싶었노라  
내 나이 30 고개를 바라보던 그 시절에

분계선 장벽을 넘어  
북으로 내 찾은 조국의 품에  
내 나라 창건의 기념 광장에  
그립고그립던 우리 수령님  
내 처음으로 뵈고 안기던 그날에

막혔던 심장의 보폭이 무너지는듯  
감격의 대하가 쏟아지는듯  
나의 두눈엔 뜨거운것이 흐르고 흘렀나니  
그날은 나의 행복의 첫 명절

그 행복 어찌 나에게만 차려진것이였으랴  
이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태양 우리의 수령님 모신 그 행복

소리쳐 노래하고싶었노라  
시에서도 가장 소중한 그 행복의 시  
쓰고 또 쓰고싶었노라

하나 아쉽게도 그것은 마음뿐

원고지우 에 무수한 옥들을 쪼아박듯  
무수한 시어들을 다듬어박았으나  
남길만한 행복의 시 한수 남기지 못한채  
세월이 흘렀노라

## 3

시를 쓰고싶었노라  
내 나이 50 고개를 넘는 그 시절에

어버이수령님 슬하에서 20 여년세월  
받아안은 사랑만도 그지없는데  
친애하는 그이의 향도의 해빛  
수령님의 그 사랑 더욱 뜨겁게 안겨주실 때

인류의 리상을 주체의 락원에 꽃피워주시는  
그리도 위대하시고 그리도 자애로우신 손길로  
이름없는 나를 부르시어  
영광의 일터를 주시고  
그이 가까이에 친히 세워도 주시고  
만대에 전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값있는 삶의 길로 향도해주실 때

가슴에 끓어솟는 걱정!  
그이의 전사된 행복이 끝없어  
온 세상에 소리쳐 그 행복 노래부르고싶었노라

그이를 받들어  
충성의 시를 쓰고 또 쓰고싶었노라

하나 아쉽게도 그것은 마음뿐  
원고지우에 빛나는 별빛을 쪼아 아로새기듯  
빛나는 시구들을 다듬어 새기고새겼으나  
남길만한 충성의 시 한수 남기지 못한채  
어느덧 70 고령의 먼 고개를 넘었노라

## 4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노라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기 얼굴 뜨겁노라

어버이품, 당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하늘같은데  
남길만한 충성의 시 한수 쓰지 못하였구나

아아 어이하라  
충성의 시라하여 글로나 쓰면 무엇하랴  
혁명실천이 없는 미사려구의 시  
백편을 쓰면 무엇하며  
천편을 쓰면 무엇하랴

한편의 시이라도  
충신의 뉘이 담겨져있어야 하리니  
당과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할

충신의 실천이 빛나야 하리니

아아 인생말년에 이르러  
내 이제야 알았노라

시인이 되기전에  
충신이 되어야함을  
효자가 되어야함을

## 어제도 오늘도 또 래일도 외 1 편

백의선

정다운 사람아 그대는 보는가  
릉라도 버들우에 올라앉은 저 둥근달을  
우리는 수도의 첫 건설자  
감회깊구나, 땀배인 목고채 나란히 깔고앉아  
첫사랑 나누던 아름다운 달밤이  
꿈결같이 흘렀구나, 어느덧 서른해 세월  
하늘에서야 수없이 뜨고 진 둥근달이  
머리 흰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도  
우리 가슴속에선 어이 질줄을 몰랐는가

그대 아침에 합숙에서 다려준 작업복이  
저녁이면 흠과 땀에 다 절군하였지  
내 밤새워 날세워준 그대의 곡괭이가  
저녁이면 돌과 언땅에 닳고 달았지

그래서 아침저녁 만남이 그리도 좋았던가?!  
손잡고 헤쳐온 어렵고 벅찬 생활만이  
알게 하였네아, 알게 하였네  
우리 사랑 얼마나 진실하고 억센것인가를

들려오누나, 시계탑의 종소리 세월이 가는 소리  
허나 믿지 말자 청춘이 갔다고는  
더더욱 믿지 말자 사랑의 시절 끝났다고는  
보아라, 젊은이들 속삭이는 유보도의 의자맡에  
우리 땀을 고이고 사랑을 고였거니  
저 속삭임은 우리 가슴속 둥근달에 어렸던 꿈  
우리의 젊음이 조국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소리  
참된 사랑은 세월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생활과 함께 앞으로 아, 앞으로만 간다네

## 사랑에 대한 답시

### 1

령 넘어 약혼녀가 찾아왔네  
청년로장의 새 합숙호실에  
사감아주머니의 정성이 깃든  
알뜰한 방이건만  
처녀는 제 숨씨 보여주고싶었네

마치도 처녀는  
신혼살림 꾸리듯  
깔끔히 거두고 다시 정돈하고  
손수 수를 놓은 탁상보를 펴고...

꽃무늬 아롱진  
엷은 창가림도 치니

더더욱 좋구나  
밝은 해살 그대로 은

방은 처녀의 순정으로 짝 찼다네  
그래서 그날부터 용해장에는  
아름다운 그 처녀 이야기  
청년로장의 사랑이야기...

### 2

한달후  
고향의 어머니가 찾아왔네  
언제나 잔걱정 많던 어머니  
얼굴에는 환한 웃음 가질줄 모르네

색실까지 꼼꼼히 감아놓은  
처녀의 사랑이 뱀 작은 실패를 보며  
포근하고 부드러운 비단이불  
두손으로 쓸어보고 만져보며  
이제야 정녕 한시름 놓이는듯

그러다 문득 무릎을 쳤네  
우리 애야 어릴적부터  
뒤산의 차거운 샘물 좋아했다고  
얼음물 가득 채워온 보온물병 생각나서  
-그래도 이 어미없이야...-

용해공들 그 빙수를 마시니  
가슴속엔 어머니의 사랑이 출렁...  
다심한 그 어머니이야기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사랑이야기...

### 3

창밖에는 해빛이 눈부시건만  
어인 일인가, 여기 호실에는  
아름다운 별무리 흐르는  
고요한 밤이 깃든듯  
후야근 마치고 온 청년로장

네 활개 쭉 펴고 단잠들었네  
어머니가 늘 귀여워하던  
보조개 웃음을 피우며  
약혼녀의 첫 눈을 끌었던  
하얀 덧이 웃음속에 드러내고...

잠결에도 잠결에도  
청년로장은 다시 들었네  
-밤일한 용해공들을 꼭 재우려면  
창가림을 두텁게 쳐야 하오-

꿈결에도 꿈결에도  
로장의 가슴 뜨겁게 하얏네  
-땀을 많이 흘리는 용해공들에게는  
언제나 끓인 물을 주어야 하오-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합숙에 다녀가신 그날부터  
용해장에 이어진 사랑의 새 전설  
령 넘어 약혼녀도 고향의 어머니도  
뜨거운 눈물속에 외우고 외우는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이야기...

## 백두산은 나에게

안성수

내 지금 예순나이가 아니라  
스무살 꽃나이에  
여기에 오른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행복에 취한 스물나이에  
이 길에 올랐다면  
이처럼 생각이 깊어지진 못하리

이깰도 전나무도 가분비도  
마주 달려나와 나를 반기고  
맑은 팔계수도 소리를 높여  
먼길을 찾아온 나의 수고를 헤아려주는듯

하건만 송구하구나  
온 누리가 바라보는 이 산마루에  
빛을 더해줄 삶의 총화  
내 들고 오르는 짐이 너무도 가벼웁에-

숭엄히 옮기는 걸음 삼가 디디며  
지국이 눈을 감으니

귀전에 들려오는 백두의 부름소리  
《어서 오르라!》  
손잡아끄는 그 소리에  
이끌리어 올라라  
만년장설 덮인 골짜기  
푸른 주단을 깔 등판에 꽃발을 펼쳐  
불러주는 그 마음에 이끌리어 오르니

눈앞에 열리는 장엄광대한 산야  
소리없는 천지는  
고요한 산발에 잠겨있고  
하늘 한끝을 가리키는 장군봉이  
내 마음의 손에 검을 들려주며 말하여라

-아들아!  
보아라!  
네가 걸어갈 길을-

오, 수령님 위업이 불바다속에 개척된 산야  
친애하는 그이 혁명의 걸음을 떼신

성스러운 부석길 번쩍이고  
민족의 영웅의 빛을 받아  
별무리로 빛나는 이 나라 영웅들이  
피흘리며 헤쳐간 밀림의 바다!

감히 나를 여기에 서도록  
길을 열어준 손길에  
깊은 절을 하노라  
이룩한것 적은 전사조차  
인간세상의 상상봉에 세워주는  
뜨거운 사랑에 심장을 터쳐 맹세하노니

순간에 내 마음의 키 움씩 자라  
저무는 인생 예순나이 아니라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불타는 청춘  
구만리로 뻗은 생의 앞길  
당을 따라 갈길 새로이 안겨주는 산정이어

아, 백두산은  
마음에 내린 흰서리 걷어가고  
목숨을 말기고 다시 떠나갈  
영용한 인생의 새 출발선에 세워주는  
엄하고도 사랑깊은 녀의 고향!

쓰다듬노라 이끼덮인 바위를  
쓸어안노라 눈속에 피여난 백두의 꽃들을  
지나온 헛된 인생보다  
걸어갈 미래의 영생을 주고  
심장에 열정의 붉은 피 뛰게 하는

오, 백두산!  
생을 키우는 사랑  
말없이도 안겨주는  
위대한 희망의 창공  
빛나는 생의 시작만 있는  
어머니 백두산이어!

## 리별

### 장해명

그 언제면 다시 만날는지...  
기약 못할 리별을 앞에 두고  
김철주동지께서는  
장군님과 석별의 정 나누셨어라

찬바람 스며드는 이름모를 주막집  
마주하신 탁자우엔  
얼음서걱이는 두부 한모에  
마실줄 모르시는 술 한병

혈전의 먼먼길에  
몸성히 싸우시라  
동생의 기원담아  
잔가득 부어드리시고

장군님 따라가고싶으신  
간절한 소원은  
애써애써 가슴속에 누르시며  
자신의 잔에도 따르시고...

아, 이제는 어머님마저  
아니 계시는 이 세상에  
단 한분 의지해 사셔야 할  
삶의 하늘이신 장군님

얼마나 장군님 슬하에 계시고싶었으랴  
낮설은 이국광야에  
저녁해는 산너머 기울어져가는데...  
소사하의 빈집엔  
성에 불린 굴뚝만이 외로이 떨고 섰는데...

허나 그이께서는  
혁명을 위하여  
흔연히 그 잔을 비우시고  
기꺼우신 맘으로  
떠나는 대오를 전송하셨어라

오매에 그리운 장군님 품엔  
이 나라 청년들을 따라세우시고  
누리셔야 할 혈육의 사랑마저  
혁명 위해 사양하시고-

아, 그날에 바래우신 대오는  
조국과 함께 행복의 기슭에 와 닿았건만  
오늘도 그날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빛나계시는 김철주동지

이른아침 출근길에 나설 때에도  
어느 먼 개간지에 떠날 때에도  
자신보다 먼저  
혁명을 위할줄 알라  
엄숙한 당부의 손길들어  
충성의 한길로 바래주시거니

오, 혁명의 참된 아들 김철주동지  
그이는 우리와 리별하지 않았노라  
투쟁과 위훈의 지점에서  
언제나 만날수 있는  
그이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여라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한 참된 당일군형상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 대하여-

윤기덕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변희근)은 우리 나라에서 당일군을 장편소설의 주인공으로 형상화한 첫 작품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그들에 대한 당적 지도문제를 형상적으로 밝히며 작품의 정치조직선을 살리기 위하여 당일군을 등장시킨것이 태반이었다.

리기영의 장편소설 《땅》에 나오는 면당위원장 강균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소설에서 다 그러하였다.

그러나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서는 이러한 전례를 깨뜨리고 당일군을 중심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주체형의 당일군의 성격을 깊이있고 풍만하게 창조하여 그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전면적으로 보여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늘 아래에 내려가 실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옳은 해결방도를 세우며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당일군이 장편소설의 주인공으로 형상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의 도처에서 새로 자라난 주체형의 당일군들의 활동을 일반화한것이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고 그의 본질적 특성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한데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한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당일군형상을 창조하였지만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한 참된 당일군, 주체형의 당일군형상을 이처럼 생동하고 진실하게 창조하기는 처음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하였다는것은 충실성을 생의 일차적 요구로 자신의 제일생명으로 여기며 그것을 삶의 요구와 목적으로

내세우고 모든 활동을 충성의 한길에 바치는 인간, 다시 말하여 충성심을 체질화하고있는 사람을 두고 말 한다.

이러한 사람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자기 인생관의 진수로 삼고있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 신철민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체질화, 인생관화한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이다.

신철민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고와 행동의 자는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한없는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신철민에게 있어서는 제일생명이고 체질화되었기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충실성이 높으면 스승이 되고 존경의 대상으로 되는것이다.

이것은 충실성을 체질화한 인간에게 고유한 속성이며 성격적 특성이다.

박정호기사에 대한 문제에서도 같은것을 말할 수 있다.

차병진부장과 림영택기사장은 박정호기사를 매우 위험시하며 늘 색안경을 쓰고 대한다. 그것은 그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적에게 리용되었던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있으며 지금은 큰사고를 내어 당책벌까지 받고있는 사람이기때문인것이다.

그들은 박정호를 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문제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그가 실패하는 경우 자기책임 즉 자기자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것부터 생각하며 그의 진심을 보는것이 아니라 문건만 보며 그의 현재를 보는것이 아니라 흠집이 있는 과거만 보는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호를 마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처럼 여긴다.

하지만 신철민은 그들과는 반대로 박정호를 더 하지도 않고 덜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리해한다. 그리하여 생활에서 드러난 그의 량심과 진심을 보고 보통날에 표현된 그의 충성심을 믿는것이다.

신철민은 손때가 올라 까맣게 어지러워지고 보풀이 일고 어떤데는 수십번도 더 지우고 다시 그려 잘 알아볼수조차 없게 된 박정호의 설계도면

을 보며 공사기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겨보자고 고심한 그의 성실한 탐구와 진실한 노력, 나아가서는 그속에 깃들어있는 그의 충실성과 애국심을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차병진부장과 림영택기사는 같은 설계를 보고도 그것을 그의 공명심의 표현으로, 그가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한 허물로만 생각하는것이다.

같은 대상을 보고도 하늘과 땅처럼 서로 다른 리해를 하게 되는것은 다름아닌 말로만 충성심을 의우는 사람과 충성심이 체질화되고 인생관화된 사람의 차이인것이다.

신철민은 충성심이 체질화되었기때문에 박정호의 도면에 깃든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장으로 느낄뿐아니라 그를 마음놓고 지지하고 고무한다. 뿐만아니라 지금껏 당조직에 속을 주지 않고 살았으며 앞으로는 또 자기가 책벌받은 당원이라고 하여 위축될가보아 그리고 난관과 시련앞에서 그 어떤 동요라도 생길가보아 주저없이 비판의 말도 해주는것이다.

한장의 설계도를 놓고도 한 인간의 심장깊은곳에 간직된 뜨거운 숨결을 느끼고 그와 충성의 숨결을 같이하는것이며 보풀이 일도록 닳아버린 설계도를 보고 그가 충성의 길에서 주저와 동요가 없도록 충실성을 신념화, 체질화하도록 간곡히 타이르며 이끌어주는 신철민이다.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체질화한 인간, 충실성을 삶의 제일차적 요구로 삼고 거기에서 행복과 영예를 찾는 인간, 충실성을 인생관화한 인간의 고유한 숨결이고 사고방식이며 성격의 표현이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당일군 형상에서 이룩한 새경지가 있다.

작가는 당일군 신철민을 내세우고 그를 전형화하기 위하여 그의 가정생활, 공장생활들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이렇게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는 과정에 그의 인간됨이 전면적으로 밝혀지면서 결국은 당일군의 형상이 진실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여 소설에서는 참된 주체형의 당일군 이야말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인간이며 우리 시대의 참인간으로 된다는것을 웅심있게 밝혀주었다.

주인공 신철민과 안해 송경심과의 관계하나만을 놓고보자.

소설은 당일군형상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사업 특히 당사업으로부터 시작한것이 아니라 안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였다.

안해는 10 년가까이 병원생활을 하고있는 전우

이다. 그러나 병원생활로 하여 그들의 사랑에 금이 간 일은 없으며 시간과 함께 서로의 사랑은 더 뜨거워만 갔다.

마음같아서는 대수술을 받고있는 안해의 곁으로 자주 가보고싶지만 자기가 안고있는 일감이 너무도 크고 중하기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신철민의 심정과 그가 안해와 주고받는 편지의 글줄들은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병마와 싸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용광로보수공사에 써달라고 병어리장갑을 스무켄테나 만들어 보내며 남편을 고무하는 안해의 가룩한 심정과 사랑도 뜨겁지만 그것을 받아안고 고마움을 느끼는 신철민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후더운지 모른다.

소설은 이들을 이처럼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합시켜주는 원동력이 다름아닌 당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밝혀줌으로써 소설로 하여금 참된 당일군에 대해 말해주면서 동시에 진정한 사랑을 간직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에 예술적 해답을 주고있다. 즉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사람들은 참되게 사랑할줄도 아는 사람들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책임비서 신철민과 체대군인 노동자 김석철이와의 관계도 그러하다. 신철민은 정치일군으로서 무엇인가 요구를 제기하기전에 그를 위해 성실히 복무해준다.

그가 바란다면 몇백리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오며 사랑에 고민할 때는 그의 사랑이야기도 끝까지 다 들어주고 고민을 풀어도 주는 참다운 일군이다.

박정호기사가 고민에 잠겨있을 때도 그를 모르고 도와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부터 뉘우치며 리형삼지배인과 림영택기사가 과오를 범했을 때도 그들을 탓하기전에 먼저 자신에게 있는 부족점부터 찾는 참다운 동지이다.

작품에서는 책임비서 신철민을 보통 노동자와 같이 소박하고 평범하게 그리면서도 품위있고 차원이 높게 형상하고있다.

그는 한번도 아는데, 완성된 인간인체 할줄 모르고 걸음마다 자신의 부족점을 느끼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을 혁명화하고 수양을 쌓아나가는 당원이다.

그는 노동자의 합숙도 방문하며 공장노동자들의 일터에서 같이 일하기도 하고 연구소에도 가보며 노동자들 가정에 탄도 제때에 대주고 노동



자합속에 도서실, 열람실도 꾸려주며 새로 지은  
로동자의 주택에도 가보는 성실하고 친근한 일군  
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충복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사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관철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이 완강하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임무를 해제끼는 존경이 가고 믿음이 가는  
당일군이다.

작품은 또한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을 립체  
적으로 잘 짜고있다. 소설은 제1호용광로 보수공  
사를 몇달 앞당기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비교적 간단한것을 이야기하고있는것 같지만 소  
설에서는 각이한 계층과 인물들을 깊이 파헤치고  
있다.

오랜 로동자들인 장범도, 설태훈과의 관계에서  
는 기본군중과의 문제를 밝히며 제대군인 로동자  
김석철, 민동석과의 사업을 통하여서는 새것을  
지향하는 로동계급의 정신세계를 밝혔으며 지배  
인 리형삼과의 관계를 통하여 행정일군과의 관계  
를 밝혀주고 차병진, 림영택과의 관계를 통하여  
서는 관료주의자, 보신주의자들과의 문제, 박정  
호, 윤명희와의 사업을 통하여서는 복잡한 계층  
과의 관계를 밝혀 주인공으로 하여금 우리 시대  
의 전형적 환경속에서, 생활의 한복판에서 숨쉬  
고 활동하도록 해주었다.

그리하여 전형적인 생활이 탐구될수 있는 전제  
를 주었으며 인물관계마다가 자기교유의 형상과  
제를 뚜렷이 안으면서도 종자의 요구에 맞고 주  
인공선에 철저히 복종되는것으로 인간관계가 빈

틈없이 맞물리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이 생  
동하게 창조되었을뿐아니라 오랜 로동계급의 성  
격도, 새 세대 로동계급의 대담성과 진취성도,  
당성이 강한 행정일군의 형상도, 복잡한 계층과  
보수주의자, 보신주의자의 형상도 진실하게 창조  
되었다.

이 장편소설은 사건선과 인정선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키고 감정조직을 치밀하게 함으로써 형  
상을 진실하게 창조하였다.

작품은 근 절반에 가까운 지면을 배당하여 인  
정선을 취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품은 생활묘  
사의 폭을 넓히고 생활에 대하여 인간의 정신생  
활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고들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말할수 있는 구성적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특히 인정선의 대방을 맡은 인물들인 송경심,  
윤명희, 박운옥, 오현숙, 한씨, 문씨들의 생활을  
잘 탐구하여줌으로써 생활을 폭넓게 보여줄뿐아  
니라 인간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 생활  
과 인간을 립체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한 주체형의 참된 일군의 전형  
을 창조함으로써 당사업의 위대한 전변을 생동하  
게 보여주었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고무하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 가사

# 자동차의 불빛이여

신운호

쇠물꽃 노을비긴 우리의 용해장에  
자동차 불빛 보니 생각은 깊어지네  
풀무소리 울던 땅에 저 불빛 꽃피우려  
우리 당 배푼 은정 가슴에 뜨거워라

한밤도 잠못들던 당중앙 그 불빛이  
일터에 비껴흘러 타오른 불꽃이여

그 빛발은 우리들의 구슬땀 가져주고  
노래로 쇠물뽑는 새 력사 펼쳤어라

세상에 인민들을 제일로 아껴주는  
우리 당 사랑넘친 자동차 불빛이여  
그 빛발로 기술문명 새날을 당겨오며  
이 땅에 공산주의 봄노을 피워가네

##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산기슭에 고요히 안개 흐르고  
어머니와 동생은 아직 잠자네  
말못할 사연을 가슴에 안고  
긴긴밤을 눈물로 지새우누나  
  
내 눈물에 가리워 보이지 않나

저 하늘의 새별도 사라졌구나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끌려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랴  
  
숲속에 우는 새야 재촉을 말아  
날뵈으면 이내 몸은 끌리어간다

### 명가사평(제 8 회)

## 자주성이 짓밟힌 인간의 운명문제를 밝힌 심오한 시형상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가사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에 대하여-

오춘식

초가막 굴뚝에서 실연기 피여오르는 이른새벽,  
리별의 시각을 앞두고 방울방울 고여나는 피눈  
물을 삼키며 집뜨락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어머니  
의 약을 달이는 꽃분이의 말못할 사연을 말해주  
는가 은은히 노래가 울린다.

산기슭에 고요히 안개 흐르고  
어머니와 동생은 아직 잠자네  
말못할 사연을 가슴에 안고  
긴긴밤을 눈물로 지새우누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3장 3경에서 올려  
나오는 이 노래, 꽃분이의 가슴속에 안고있는 말  
못할 사연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꽃분이가 지닌 지극한 효성의 세계에  
끌려들어가 끝없이 공감하며 인간의 아름다운 마  
음과 새 생활에 대한 참다운 지향을 여지없이 짓  
밟는 착취사회를 저주한다.

그것은 이제 날이 새면 빛값에 팔려 끌려가야  
하는 꽃분이의 기구한 운명을 두고 가슴저미는  
아픔을 어찌할길 없기때문이다.

거지라는 수도도 받고 도적이라는 억울한 루명  
을 쓰면서도 애오라지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려  
꽃파 같은 정성을 다 바쳐온 꽃분이의 지극한 효  
성, 꽃보다도 더욱 고운 그의 아름다운 마음과  
효성에 감동된 인정깊은 약방주인이 안겨주는 약  
봉지도

소중히 받아왔건만 이제는 그 효도의 길마저

막혀버렸으니 병든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될것이  
며 눈먼 동생은 또한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꽃분이의 감정과 내면심리를 대변해주는 방창  
에 이어 꽃분이의 처량한 노래가 사람들의 가슴  
을 더욱더 아프게 저민다.

내 눈물에 가리워 보이지 않나  
저 하늘의 새별도 사라졌구나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끌려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랴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불쌍한 어머니와 동  
생의 비참한 운명을 두고 안타까와하고 서러워하  
는 꽃분이의 체험세계는 얼마나 절절하고 심각한  
것인가.

어머니의 병도 나아지고 감옥에 간 오빠도 돌  
아와 한가정이 모여 단란하게 살아가려는 소박한  
념원도 풀길 없게 되었으니 억울하게 팔려가도  
어데 가서 하소연할길 없는 저주로운 사회, 어머  
니를 위하는 진심으로 깨끗한 지성과 효성도 용  
납하지 않는 암흑의 그 세상은 과연 언제야 끝장  
날것이며 행복과 기쁨이 넘칠 희망의 새날은 언  
제야 밝아올것인가.

안타깝고 절절한 꽃분이의 그 심정을 담아 다  
시 노래가 울린다.

숲속에 우는 새야 재촉을 말아  
날뵈으면 이내 몸은 끌리어간다

날뵈면 팔려가야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겪을 고역이나 불행보다도 어머니와 동생의 운명을 더 녀려하며 걱정하는 꽃분이의 효성스러운 마음은 참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사람들의 심정을 파고든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극의 가사에는 시대와 성격의 본질을 생동하게 드러내며 사람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심오한 철학성이 있어야 합니다. 작품의 철학성은 말하려는 사상이 형상적으로 심화되어 사람들에게 시대와 삶에 대하여 두고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 가사는 무엇보다도 주인공 꽃분이의 내면심리세계를 인정심리극의 특성에 맞게 깊이있게 파고들어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새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지향, 인간의 자주성을 짓밟는 착취계급과 착취사회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을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함으로써 명가사로서의 풍격을 훌륭히 갖추고있다.

명가사는 사상적 내용이 깊어야 한다. 사상적 내용이 깊어야 가극의 이야기를 감명깊게 펼칠수 있으며 인물들의 정신세계를 심오하게 밝힐수 있다.

이 가사는 주인공의 감정세계를 깊이있게 펼쳐보임으로써 시대적 감정을 체현한 꽃분이의 성격을 뚜렷이 살리고있으며 뜻깊은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리별의 시각을 앞둔 고요한 프락에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귀중한 약을 달이느라고 밤을 지새우면서 병든 어머니와 눈먼 동생의 앞날의 운명을 두고 한없는 슬픔과 피로움에 모대기는 꽃분이, 진정 어머니를 위하는 꽃분이의 효성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하며 진실하다.

우리는 가사의 구절구절에 넘쳐흐르는 이러한 시적 감정을 통하여 모진 세상에서도 티없이 깨끗하게 간직된 꽃분이의 지극한 효성과 아름다운 량심, 고결한 의리를 눈물겹게 감수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어지러운 착취사회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숭고한 녀임을 여겨보게 되는것이다.

가사에는 이처럼 주인공 꽃분이의 지극히 아름다운 효성의 세계가 시화된 사상감정으로 감명깊게 펼쳐져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는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인 효성과 도리도 무참히 짓밟는 착취계급과 착취사회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감정이 세차게 굽이쳐 흐르고있다.

자식을 가진 부모가 부모구실을 할수 없고 부모를 모신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효성을 다할수 없는것이 바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이 당하는 설움이였고 운명이였다.

착취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하여 이제 비로소 눈뜨기 시작한 꽃분이의 심각한 체험세계를 통하여 가사의 사상은 더욱 승화되고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가사에서 노래되는 꽃분이의 운명을 통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여지없이 유린하는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며 착취사회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 인간의 자주성이 활짝 꽃피는 오늘의 사회주의 내 나라를 더욱 귀중히 여기고 혁명의 기치, 사회주의 기치를 견결히 고수해야 한다는 생활의 진리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는것이다.

가사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는 또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다른 가사들과 함께 시적 정서가 매우 풍부한것으로 하여 심금을 울린다.

가사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해 표현된다. 한것은 정서가 가사를 시화하는 기본요소로, 생명으로 되기때문이다.

가사의 높은 시적 형상은 심오한 사상을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그려낼 때라야 창조될수 있다.

가사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는 안개흐르는 새벽풍경을 시적으로 펼쳐보이면서 리별의 시각이 다가오는 극적인 정황속에서 주인공 꽃분이의 가슴에 안겨있는 한없는 설움과 뜨거운 효성의 마음을 짙은 서정으로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생경한 설명이나 직선적인 감정표현이 없이 정서로 충만된 시형상으로 꽃분이의 내면적인 감정의 흐름을 섬세하고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가사의 사상적 내용이 강한 여운을 안겨주며 사람들의 심장에 파도쳐오는것은 바로 가사에 넘쳐흐르는 이러한 정서적 감정과 관련된다.

밝아오는 새벽빛으로 하여 사라져버린 새별을 바라보며 눈물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가라고 한 노래의 시적 표현은 한없는 서러움에 모대기는 주인공의 속깊은 안타까운 마음을 높은 시형상으로 드러낸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자주성을 짓밟힌 인간의 설움과 고통에 대한 진실하고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된다.

첫 방창에서는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안고 긴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꽃분이의 피로운 마음을 서정적으로 깊이있게 깔아주면서 감정을 축적하였다면 후렴에서 울리는 방창에서는 꽃분이가 다하지 못한 감정표현을 대변하면서 그의 내면적인 감정심리를 더욱 절절하게 드러내 보이고있다.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를 불러 날뵈기를 재촉할 아달라고 하는 표현은 순간이나마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를 위해 효성을 다하려는 꽃분이의 가룩한 마음과 지성, 고결한 의리에 대한 정수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정서적인 감정과 표현으로 하여 이 가사는 깊은 감동을 준다.

이 가사는 또한 꽃분이의 사상감과 심리를 꾸밈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시어들은 생활적이고 평이하다.

《고요히》, 《사연》, 《긴긴 밤》, 《지새우 누나》, 《가리워》, 《사라졌구나》, 《재촉을 말아》, 《이내 몸》 등 시어들은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서 굳어지고 널리 씌여지고있는 어휘들이다.

그리고 형상적 표현수단을 리용하여 주인공의 내부적인 감정의 흐름을 더욱더 뜨겁게 절감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시가의 전통적인 운률조성수법에 토대하여 7.5조의 음수물로 운률을 조성

함으로써 읊기도 좋고 노래로 부르기 쉽게 되어있다.

가사 《리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는 참으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다른 가사들과 함께 주인공 꽃분이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효성의 세계를 진실하게 펼쳐보이면서 그를 통하여 인간의 아름다움을 짓밟고 자주성을 유린하는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감정을 높은 시형상으로 노래한 명가사이다.

이 가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 소조원의 마음

김종백

저녁노을 스러지고  
밭머리에 어스름이 내려도  
상기 들판에 있는 그 사람  
농장원들이 돌아간 마을에선  
유정한 불빛이 어서오라 반기는데

비료치기로 똥던 한낫  
경쟁의 기발이 날리던 밭이랑에  
농장원들이 피운 웃음을 되새기는가  
자주 걸음멈추는 소조원 처녀

강냉이 포기 포기 사이를  
빠짐없이 살펴보며  
밭머리 그 어디에 빈자리는 없는가고  
빼기밭구석까지 살펴도 보며

가벼운 저녁바람에  
알릴듯 말듯 강냉이숲이 설레는 소리  
거기서 듣는것인가  
올해도 분배장이 들썩하게 높이 울릴  
만풍년의 북소리를

그 누가 추어낸것인가  
밭머리에 쌓인 막돌무지  
한낮에는 미처 몰랐더니  
이 저녁엔 보석덩이처럼 빛을 뿌리는데

실하게 여무는 강냉이를 보고도

밭머리의 막돌을 보고도  
농장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뜨겁게 불러보는  
우리 소조원  
포기포기 세여가는 밭이랑에서  
만풍년으로 곧추가는 농장원들의 걸음새를  
헤아리는 그 마음

오 이 저녁엔  
문화회관의 꽃무대 학습실의 책상앞에서  
즐거운 밤을 맞을 농장원들  
소조원은 여기서 다 함께 만나보는구나

이렇게 천만톤의 알곡산을 쌓아가자고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누며  
정녕 이런 저녁엔 밭머리를 뜨고싶지 않아  
이밤엔 여기에 잠자리를 펴고싶어

오 농장원들과 함께 살며 일하고  
타이르며 이끌어준 그 보람  
지금은 인적없이 비여있는 농장벌에  
잘여문 이삭이 되어  
빈틈없이 짝 들어찼으니

땅거미 질어가는 이 저녁  
소조원의 마음은  
해쫂는 아침처럼 밝고밝아라

## 어머니

(한 과학자의 수기)

장수근

## 1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자주 피짜라는 소리를 듣곤 한다. 허물없는 친구들은 《도깨비》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그닥 탓하지 않는다. 왜냐면 확실히 나에게 그런 타고난 피벽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야 랑부모가운데 누구를 닮았는가를 하는것을 깨닫고 어지간히 놀란것도 그 류다른 성격의 발현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사실 얼마전 까지만 하여도 나는 내가 아버지를 닮았거니만 생각해왔다. 어릴적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버릇돼왔고 생존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아도 그것이 틀림없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세아이 아버지가 된 지금에 와서 아버지를 닮은것은 겉모습뿐이고 속은 고스란히 어머니 성미를 물려받았음을 깨달았다. 실로 피이한것이다 자란 어른치고 누구를 닮았건 그것을 두고 골몰해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것인가.

어머니는 성미가 피벽하고 외통고집이다. 옳다고 믿는것은 한대중 내우기는가 하면 직심스럽고 끈진데가 있다.

나로 말하면 메라면 지는 식의 고집으로 남달리 빼여지기가 일쑤다. 그 류다른 성격탓인지 나의 반생에는 엉뚱하고 중뿔난 일들이 많았던것 같다.

어려서부터 나는 어른이나 선생들이 말하는 《착한 아이》, 《방정한 학생》축에 들지 못했다. 번번이 재구를 쳐 부모들이 학교에 불려다니고 그때문에 아버지의 매도 수태 맞았다. 하지만 나는 기가 꺾이기는커녕 은근히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하라는대로 고분고분 군다면야 그게 무슨 사내란 말인가.

《그 아이는 이답 잘되면 크게 잘되고 아니면 나쁜 길에 떨어져 몹쓸 사람이 되리라는걸 명심하시우다.》

인민학교때 교장이 한 말을 후날 어머니는 종종 외우곤하였다.

전쟁이 일어나 중학교가 먼 산촌에 소개하였을 때 나는 차라리 잘되었다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흥미없는 과목에 시간을 빼앗기느니 맘두고있는 수물과목에 모를 박고 자습하리라 결심했던것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인생행로에서의 나의 첫 《탈선》이었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역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

동창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따놓고 최우등을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이상하다고들 하였다. 그들의 의혹이 당연한것이 나 자신 실력에서 누구에게 짝진다고 생각해본적이 없거니와 남들도 그 점에서 딴 의견이 없었기때문이다. 사실 나는 성적증에 오를 점수같은데 그닥 관심이 없다는 배심이였다. 그리하여 일부 과목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를테면 외국어에 대한 열중이 그러하였다. 대학기간 제3외국어까지 습득하려는 나의 노력은 일부 동창들속에 정력의 분산, 탕진이라는 수군거림이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외국어가 나의 사업에 큰 밑천이 되어 최신과학기술의 추세에 민감하도록 도움을 받게 된 지금에 와서 나는 내나름의 피벽한 학습때문에 크게 후회한적은 없다.

졸업할 때 최우등상은 받지 못하였지만 나에게 대하여 뭐니뭐니해도 아무개가 이제 사회에 나가 한몫 단단히 할것이라는 은사들과 동창들의 꾸밈없는 평가가 나에게서는 더없이 귀중한 표창이였다.

외고집과도 같은 나의 피벽은 대학을 나온후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를 받자 기다렸다는듯이 동창들의 결혼식이 꼬리를 물고 벌어졌다. 거의 매달 생활비에서 결혼부조를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나만은 여전히 과학열에 떠서 결혼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내 생각에 의하면 결혼이란 때가 되면 아무나 치르는 한갓 다반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은 거기에 뜻을 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값싼 전당이 아닌것이다. 요컨대 생의 보람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나 할수 없는것, 즉 남이 대신할수 없는것을 이룩하는데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추운 겨울밤 천장밑 조명등까지 사무책상을 올리쌍고 그우에 대학생때의 무거운 비날론외투를 쓰고앉아 밤새워 책을 파다가 순회를 돌던 경비원을 깜짝 놀래워 소문이 난것도 그때 있던 일이다. 나는 동창가운데서 나이 많은 총각으로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러자 주위에서 가만두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대상이 나타나 선보려 다녔다. 그중에 더러는 내편에서 물려선데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여 퇴짜를 맞은 경우가 더 많았다는것을

고백해야 할것이다. 어쨌든 그러루한 일에 들어서 내가 속매이었던것만은 틀림없다. 한번은 만나기로 약속된 처녀네 집으로 가다가 어느 건설장의 낡은 시공방법을 띠여보고 로동자들을 깨우쳐주느라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처녀측 부모들의 노여움을 사서 일이 튼적도 있다. 마침내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착실하고 올라리가 프르르한 처녀를 봐두었는데 좋은 혼처를 놓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사연의 대필로 된 편지가 날아왔다.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 그때 나는 이미 한대상(지금의 안해)에게 말을 댄 뒤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정한 대상이 같은 고장내기가 아니라는 한가지 리유로 반대였다. 잘 참작해서 조처하라는 회답이 왔는데 그속에는 외아들을 키운 홀어머니의 권리로 내대는 강경한 요구가 풍기였다. 모름지기 어머니는 저쪽에다 반 승낙을 해둔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나는 일단 마음이 있어 대답을 댄 처녀를 물리치는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도저히 어머니를 따를수가 없었다.

두 고집이 맞선것이다. 잔치때 고향에 데려간 안해를 본 어머니의 실망은 자못 컸다. 말씨가 다른데다 작달막한 머느리가 문지방 높은 문턱을 넘어서리라 꿈에나 생각했으랴.

어머니는 평양에 올라가 함께 살자는 나의 권고를 딱 잘라 거절하였다. 네멋대로 살라는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목은 세간들을 갈라 집을 꾸려주었다. 비록 쓰던 물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것으로 신접살림에 요긴한것들이 구색이 맞게 갖추어져있었다. 그후 두번째아이(첫아들이었다)가 난 다음 어머니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 다니러 왔다. 안해와 나는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대극장, 교예극장이며 옥류관에 모셔도 가고 밥상에 빛다른 음식이 오르도록 마음을 썼다. 우리의 공대를 맛보게 하여 어떻게 하나 평양에 놀러갔도록 마음을 돌리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일조에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어느날 아침 문득 어머니가 오늘이 무슨 날인가고 물었다. 안해와 나는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렸다. 대번에 기색이 달라진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진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제야 아버지의 제사날이랍는데 생각이 미친 우리는 부랴부랴 벽장에서 사진액틀을 찾아냈다. 그것은 초상을 치를 때 확대하여 만든 룰판이 희미하고 누렇게 색이 바랜 사진이였다. 어머니는 결혼식때 세간과 함께 그것을 꾸려주면서 아버지 제사를 평양에서 지내라고 하였었다. 어머니가 제사날을 앞두고 평양에 올라온것이 우연하지 않았다.

안해는 나에게 원망에 찬 눈을 흘겼다. 안해는 안해대로 집일엔 아랑곳없이 내내 책만 볼테고 있는 나에 대한 원망이 하늘같은터였다.

그날밤 어머니는 우리를 시켜 아이들이 보는데서 법도를 지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간소하

게 차린 제상앞에서 다섯살난 큰제집애는 무슨 일인가 하여 잠에 취한 눈을 깜벅거렸다.

그후 어머니가 내려간 다음 사진액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어머니가 가지고 간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나더러 아들자적이 없다는 선고나 같았다.

그후 어머니를 모셔오려는 우리의 시도는 그때마다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근래에 와서 어머니를 못모시는 자책은 시름거리가 되어 야심을 품고있는 과학탐구에 지장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왜 홀어머니를 모시지 않는가 하는 이웃들의 의혹이 은근한 압력으로 우리를 웅색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머니의 일흔흔 생일을 계기로 온 식구가 고향마을로 떠나기로 하였다. 이번 길에 어떻게 하나 어머니를 평양에 올려다 모시기로 작정한것이다.

## 2

렬차는 해안연선으로 뻗은 철길을 따라 근감하게 달렸다.

온 식구가 함께, 그것도 친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려행하게 된 아이들의 기쁨은 그지없었다. 환희에 찬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노상 우리의 려행길에 즐거운 분위기를 돋구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와질수록 나는 무엇인가 서글픔에 가까운 기분에 젖어 창밖을 보며 떠드는 식구들의 기쁨에 휩쓸릴수가 없었다. 마치나 큰일을 할것처럼 과학 하나만을 위해 전심해왔건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상시적인 자격지심이 지금따라 지긋게 나를 괴롭히는것이였다.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여도 나의 포부와 리상은 컸다. 내 생각에 의하면 자기를 낳아 길러준 당과 조국에 대한 보답은 적어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놀래울 그러한 기여나 공적이여야 하였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크게 알려질 공로 이것이 스승들의 촉망과 벗들의 기대에 대한 나의 큰 인사로 될것이였다.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것을 희생하고 복종시킨다는 각오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포부는 실현되지 못한채 어언 2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변명같지만 여기에 리유와 구실이 없는것은 아니다. 대학졸업후 나는 생각밖에도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설계심의실에 배치되였다. 그것은 중앙심의기관으로서 부러워할만 한 자리였다. 나는 곧 발언권을 가진 심의원으로 자기 권위를 확고히 세웠다. 그것은 설계에 있는 결함이나 약점을 잡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나의 지혜를 깡그리 바쳐 적중한 대안과 방도를 찾아주는 창조자로서 설계가들에게 참다운 방조를 준데서 얻어진것이였다. 토막토막 흩어진 그 노력을 한데 합친다면 나 역시 남만못지 않은 두드러진 창조물을 이룩하였을것이다. 연구기

관에로의 조동을 희망한 수차에 걸친 나의 제기는 그때마다 기각되고 그대신 처장이라는 《관직》이 차례졌을따름이다.

그러나 나의 숨은 노력에 대한 자부가 아무리 높고 지금 지고있는 분명한 직책이 아무리 변명의 여지를 준다고 하여도 결코 어려서부터 품어온 과학도로서의 포부를 이루지 못한데서 오는 자책을 가볍게 해줄수는 없었다. 세상에 나서 과학에 뜻을 두었다면 과학으로써 무엇인가 남겨야 하는것이다.

문득 나는 얼마전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던 전국과학발명전시장에 찾아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전시장은 관람자들로 성황을 이루고있었다. 그중의 태반이 앞날의 포부가 팽배한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속에 섞여 학계의 쟁쟁한 중견이나 전도유망한 신진들의 이름을 더듬으며 걸음을 옮기던 나는 마침내 어떤 패배감에 몰려 끝내 마저 보지 못한채 붐비는 사람들속을 헤치고 쫓기듯 나오고말았다. 전시품들에 압도되어서가 아니었다. 나도 그만 못지 않은것을 내놓을 자신이 있었다. 능력도 있다. 아니 내가 바라는것은 그런 것과는 달리 큰것이였다. 막말로 하여 딱 소리가 날 그런것이다.

인민문화궁전의 용자가 던지는 그들이 비낀 뒤길로 물러가는 나의 심정은 참담하였다. 아직은 앞에 시간이 있노라고 자위를 삼아오던 가슴 한구석에 우수처럼 비껴드는 락망이라고 할가, 초조라고 할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서글픔을 맛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 충격에서 오는 기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장년이며 패기를 잃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높다.)

그때 나는 자기 몸을 가누며 이 말을 거듭거듭 읊었다.

과학을 함네 하고 이렇다 하게 해놓은 일도 없이 아들의 도리도 변변히 못하여 고생으로 늙어온 어머니를 노엽혀온 일들이 어쩐지 가슴아픈 회오를 자아냈다. 속심으로는 나라의 큰아들이 되기 위해 한 어머니의 아들구실을 희생하노라고 한노릇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못되고 이제와서 70 뉘 생일이나 차려 어머니의 노여움을 풀려고 드는것만 같이 자신의 행위가 빙충맞게 느껴졌다.

마침내 달리는 렬차의 창밖에 어머니가 사는 나의 어릴적 고향집이 나타났다.

안해가 아이들에게 《친할머니집》이라고 가리켜 주었다.

《할머니!!-》

아이들은 지금 그 집에 있을 할머니가 들으라는듯이 소리를 합쳐 고향을 쳤다. 철쭉아래 외파로 있는 그 집은 눈결에 지나버렸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하얀 회가루줄을 띄운 기와지붕이며 굴뚝머리에 변함없이 서있는 고깔모양의 줄당풍

대무지가 떠나지 않고 눈앞에 밝혔다.

그러자 저 외딴집을 지켜 홀로 살아온 어머니의 강직한 모습과 함께 잊을수 없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것이였다.

《철쭉집》, 이것은 고향마을에서 우리 집을 두고 부르는 고유한 호칭이다.

언제 있는 일인지 딱히 알수 없으나 일제침략의 마수로 뻗쳐들어온 철길이 우리 집 웃쪽으로 지나게 된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이였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철길은 우리 집과 떨어질수 없는 존재로 운명적으로 련결되게 되었던것이다. 내가 나서 본격도 없는 할아버지는 우리 집 발머리에 측량말뚝이 박히는것을 보자 분김에 그것을 뽑아 들고 맞섰다가 못매를 맞고 끝내 골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철길이 놓이면서 철쭉을 넘어다니는 물매진 건늬길이 생겼다. 그러나 성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가 꺼진 둔덕길을 오를 때면 짐을 실은 달구지들이 여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에게 채찍질하며 줄옥을 퍼붓는 달구지군들의 악다구니소리가 늘 우리 집에까지 들려오곤하였다. 그러다가 건늬길에 오른 소가 기차에 치여 소와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는 참사가 드문히 빚어졌다.

왜정말기의 일이다. 한번은 강둑에서 놀다가 철길에 사람들이 하얗게 모였길래 종주먹을 쥐고 뛰어갔다. 아닐세라 건늬길이 피뭇이 되고 사방에 뿔뿔한 고기덩이가 흩어졌는데 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니 아버지가?》

그런데 벽력같이 지르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들, 방정맞게는 논다. 그제...》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찹소리 못하고 꾸념을 그쳤다. 그러나 저녁에 아버지는 어디 가서 화술을 마시고와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장밤 주정을 부렸다.

그랬건만 해방전에는 누구하나 재해를 막을 방책을 세울념을 안했다. 해방이 되어 새 소달구지를 마련하자 아버지는 여윈 둔덕길에 부지런히 흙을 실어다 부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없는 선도에 마을사람들이 뒤따라나서 화단이던 건늬길은붕긋이 등이 살아나 달구지들이 험하고 안전하게 넘어다닐수 있게 되였다. 평범한 당원으로서는 일찌기 사망한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것이 있다면 아마 탐탁하게 성토를 한 철쭉건늬길일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는 대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철길이 가까운데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철다리가 적의 항공과 함포사격목표로 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고 떠나지 않았다. 생활의 중하를 걸머진 과수맥이 된 뒤로 어머니는 더 영악스러워진것 같았다. 해방된 이듬해, 초가마가리던 우리 집은 이영을 벗기고 아담한 기와집으로 개명했는데 어머니는 선대로부

터 물려온 보금자리에서 뜨려고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철다리가 더는 복구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그 아래쪽에 내려와 강바닥에 침묵으로 방틀을 쌓아서 만든 가철교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지선의 한쪽 끝이 우리 집 굴뚝머리를 바짝 붙어 지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아다모기는 그때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기름진 발을 파헤치고 모래뚝을 쌓자 어머니는 리인민위원회에 찾아가 대토를 달라고 요구했다.

철길에 들어간것만큼 다른데 땅땸기가 차례졌다. 그것이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좋은 땅인데 어찌 닭알 노란 자위나 같은 터밭에다 댈 것인가. 가철교와 지선이 가까와 지면서 우리 집은 더욱 위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터밭머리를 내놓은 것이 무슨 트집거리라도 되는 듯이 대피하라는 요구에 완강히 버티고 집에 눌러있었다. 그러다가 끝내 어느날 눈먼 함포탄 한발이 개수물구멍이 난 정지뒤편에 날아와 터졌다. 그바람에 삼밭이처럼 반침다리가 달린, 옆으로 배가 부른 쇠물드무가 깨어지고 하늘소기침소리를 내는 물뿔프의 손잡이대가 부러져나갔다. 그리고 가운데기둥에 걸렸던 썩본지가 오랜 나의 학생모에 파편이 들이박혔다. 모자를 잡아떼자 파편가녁에 물려있던 천조박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그때 방공호에서 봉변을 당한 우리는 흙먼지를 물고 휩쓸어든 폭풍에 어지간히 혼이 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덜씩은 재난을 입밖에 내지 말라고 나에게 곱씹어 다짐을 두었다. 마침 터밭의 무성한 강냉이에 개꼬리가 팬때여서 그 일은 아무도 모른채 지났다.

그후 어머니의 피박한 성미로 하여 내가 극도의 수치를 느끼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전쟁의 두번째해도 저물어가는 그해 겨울 어느날 우리 마을에서는 인민군초소사업이 있었다. 무슨 모임이 있다는 리민청의 연락을 받고 내가 아래마을에 있는 농맹위원장 배원국씨네 집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술한 사람들이 모여 정지간과 아래웃방에 가득차있었다. 방마다 어유등을 켜기는 하였으나 어둡시곤하여 다른 방 사람의 얼굴은 가려볼 수가 없었다. 군사동원부에서 내려온 키가 큰 대위가 모임을 사회했다. 정지간과 새방사이문에 선 그는 마치 준비해가지고 온 듯이 긴 손가락에 받쳐든 수첩을 구부정하니 들여다보며 떠듬떠듬 연설을 시작했다. 요점인즉 싸우는 조국은 피끓는 청년들을 전선으로 부른다는 것이었다. 지극히 실무적이고 호소성도 없는 범박한 연설이었다. 그랬으나 나의 가슴은 느닷없이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열망하던 시각이 닥쳐온 것이다. 나는 비로소 다가온 준엄한 운명의 급전을 예감하며 들먹이는 가슴을 견잡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어둡한 촛

집에서 열린 격식없는 모임이지만 나로서는 일생에서 처음으로 맞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각에 접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손을 들고 일어서지 못한채 눈치를 보며 좀자리고있었다.

마침 한번 탄원했다가 도에 가서 퇴짜를 맞고 되돌아온적이 있는 나보다 이상인 최익수가 손을 들고 일어나 제 이름을 부르고 입대를 탄원하였다. 그때야 나는 뒤따라 벌떡 일어나서 숨가쁜 소리로 겨우 탄원한다는 한마디를 하고 주저앉았다.

대위가 이름을 묻자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앞질러 여러 사람들이 내 이름을 대주었다. 아마도 그것은 출생증을 가진 나이에 서슴없이 탄원을 제기한 나에 대한 대견함과 환영의 표시였던 것 같다. 지원자등록은 간단히 끝났다. 누군가 투닥투닥 손뼉을 치자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박수가 가라앉고 잠시 집안이 잠잠해졌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지쪽에서 애원에 찬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군관아주바이, 우리 아이는 아직...》

《누구말입니까?》

《저 강창건인데...》

방에 앉았던 나는 생벼락을 맞은 듯이 고개를 구겨박았다. 여기에 와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는가. 뒤통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집안에 웅성웅성하는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군사동원부의 대위도 뜻밖의 정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기웃거리고있었다. 이때 옷방쪽에서 《과연 답답하오. 그게 무슨 좋은 소리라구 아이앞에서 쫓쫓》 하고 질책하는 소리가 울렸다.

당원인 셋째 할아버지가 나서 집안끼리 하는 말처럼 어머니를 놀려버림으로써 어색한 국면을 수습한 것이었다.

탄원자들만 남아 지시를 받고 뒤통을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늘에는 보름이 거의 찬 밝은 달이 행창하여 온 천지에 푸른 빛이 가득찼다. 그것은 겨울의 쌀쌀한 대기와 어쩐지 어울려보였다. 오늘따라 적들의 함포사격도 잠잠했다. 하지만 나는 래일이면 떠나갈 고향의 류다른 밤정서에 잠길 경황이 못되었다. 민망하게 군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에 발길을 하기가 싫었다. 집에 들어서기바쁘게 나를 붙들고 눈물을 짜며 지청구를 늘어놓을 것이다. 술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망동을 부렸은즉 무슨 생뎡들 안들이대랴. 하면서도 한편 나 하나를 믿고 애지중지 길러온 어머니가 홀로 빈집을 지키게 되리라 생각하니 애잡잡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나는 뜨직한 걸음으로 낮자리가 뻥죽한 강냉이그루를 지리밟으며 터밭을 꿰질렀다. 그렇게 집아래 모퉁이에 온 나는 거름구덩이에 무엇인가 희끄무레한 것이 눈에 띄어 무심히 굽어보았다. 언 소풍무지예에 하얀 닭털이 한벌 널려있었다.



집에 없는 닭이 어디서 왔을가.

정지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그제야 무슨 영문인가 깨달았다. 등불을 켜지 않은 집안에 자욱히 김이 서렸는데 시끄무레한 뜰 여물냄새만 풍기던 집에서 닭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던 것이다.

순간 무엇인가 가슴에 몽클한것이 치밀어오르며 코언저리가 쨍해났다. 집안이 어두운것이 다행스러웠다. 만일 밝은데서였다면 내가 도리어 눈물을 보여 어머니를 민망하게 하였을것이다. 바당에 들어선 나는 정지문고리를 짝 틀어낸채 어두운 구들 에 앉아 나를 지켜보고있는 어머니의 품에 뛰어들고싶은 격한 충동을 가까스로 억제하였다.

끓는 가마에서 내뿜는 단김에 가마뚜껑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뿐 정적이 깃든 방안에는 아무 기척도 없다. 아마도 어머니는 문턱까지 다가온 피치 못할 운명을 감수하며 공연히 미움을 부린 자신의 행위로 하여 스스로 회오의 비싼 값을 치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튿날 군에 올라가 신체검사에 합격되어 기차로 도집결처에까지 간 우리는 거기서 군복을 갈아 입고 도로 기차를 타고 남으로 향하였다.

집을 떠난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건만 군복입은 몸을 싣고 고향집옆을 지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나의 가슴은 마냥 이상한 감회에 사로잡혀 뒤숭숭해났다. 항풍때문에 열차는 밤에만 달렸다.

열차란것은 유계화차를 개조한 방통들이었다. 쇠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온통 하얀 별판에 갈기를 일으키며 눈보라가 치고있다. 마치나 그것은 폭풍이 이는 난바다와도 같았다. 그속을 뚫고 우리 집 마을에 다가온 열차는 속도를 늦추었다. 기관차가 경사진 지선에 내려서기 시작한것이 분명했다. 거기서는 모든 열차가 조심스레 기여내리는것이다. 우리 집 굴뚝머리에 있는 고깔을 지는 줄당공대무지가 소리없이 눈앞에 다가왔다. 나는 《어머니!》 하고 부르고싶은 격한 심정을 가까스로 눌렀다. 차바퀴밑에서 일어난 눈갈기가 회오리를 일으키며 뿌연 장막을 이루어 눈앞을 가리며 얼굴에 덮혀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장막속을 뚫고 가냘픈소리가 들려왔다. 앞쪽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차츰 가까와지면서 뚜렷이 들려왔다.

《창건아! 여기 우리 강창건이 타지 않았소-? 창건아!》

애원에 가까운 그 목소리는 구원을 청하는듯 다급하게 울렸다.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것만 같았다.

《어머니!》 하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달려간 나는 무작정 두꺼운 방통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무슨 일인가 놀란 인솔군관이 벌떡 일어나 달려 왔다. 사연을 들은 그는 재빨리 걸개를 벗기고 무거운 문을 드르륵 열었다. 눈가루와 함께

찬바람 이 방통안으로 쓸어들었다.

《어머니, 여기 내가 있어요!》

《어디냐, 창건이 어디 있냐?》

자기 귀를 의심하듯 곱씹는 소리와 함께 뿌연 장막속에 눈사람처럼 하얀 모습이 허둥허둥 눈앞에 다가왔다. 몰아쉬는 가쁜 숨때문에 흘날리는 하얀 입김, 성에투성이가 되어 무슨 탈이라도 쓴 것처럼 보이는 수건을 두른 얼굴모습, 나는 어머니를 불안아울릴수도, 내가 뛰어내릴수도 없는 안타까운 순간을 체험했다. 뒤에서는 안전을 위해 인솔군관의 우악진 손아귀가 나의 숨외투자락을 틀어쥐고있었다.

《엠티, 받아라.》

움직이는 열차를 따라오면서 어머니가 무슨 꾸레미를 내밀었다. 나는 덩적 받아안았다.

《그리고 이걸, 이걸 네가 기르던 송아지 판돈이다.》

《송아지를 팔다니요?》

그러거나 말거나 형겅에 쏜 돈이 내 손안에 들어오고 그 손을 다시 얼음처럼 찬 굳어진 두손이 감싸쥐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젖떨어진것을 사다가 코뚜레를 꿰기까지 2년가까이 고생하면서 내가 길러온 정이 든 송아지였다. 보는 사람마다 탐이나하던 뿔성부른 수송아지다. 그것이 벌써 남의 손에 넘어가고 한줌의 돈이 되어 내 손에 쥐여지다니!

《어머니, 이 돈은 소용없어요. 안받겠어요.》

《받아둬라. 그러면 못쓴다.》

사정하듯 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한손으로 초조히 내 손등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었다. 나는 그 손이 떨어지는것을 감촉했다.

천천히 굴러가는 차바퀴밑에서 빼그덕거리는 침묵소리만이 가슴을 짓누르는듯 푹푹히 들리었다. 그러다가 미라미라하게 따라오던 어머니가 무엇엔가 걸려 어꾸러졌다.

《어머니!》

열차에서 뛰어내리려던 나는 뒤에서 나꾸채는 억센 힘에 붙들려 두팔을 허우적거렸을뿐이다.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허겁지겁 발을 옮기건만 마침내 속도를 가하기 시작한 기차를 따를수 없었다.

《어머니, 아들걱정일랑 마시라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걸걸한 목소리의 인솔군관이 손나팔을 하고 배포유하게 소리쳤다.

《장관아주바이, 우리 아이를 잘 봐줍소.》

눈보라속에 아스란히 들려온 어머니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다. 문이 닫기고 빼그덕빼그덕 신음소리를 내는 가철교도 지났다. 나는 동무들의 성화에 못이겨 꾸레미를 풀어헤쳤다. 두꺼운 천으로 둘러감은 속에서 금방 김을 올려 찢듯한 따뜻하고 만만한 이차떡이 나졌다.

나는 갓 낮을 익힌 동무들에게 떡을 노나주었다. 그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처럼 지극한

어머니를 세상에서 처음본다고 하면서 한입모아 감탄해마지 않았다. 나는 그 떡을 한입도 넘길 수가 없었다.

만든지 오랜 떡이 굳어질세라 그 시절에 구하기 힘든 꿀까지 얻어다 바르고 며칠밤을 꼬박기 새우며 가마에 덥혀두고는 기차가 지날 때마다 들고나와 나를 찾았을 어머니의 지성에 목이 매였던 것이다.

(어머니!)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은 나는 때마침 발밑에서 쇠썰리는 제동소리가 나는바람에 현실로 돌아왔다. 열차가 어느덧 종착역에 다달은 것이다.

### 3

우리 집은 기차길과 가깝고 것처럼 인연이 깊으면서도 그 신세를 지는데는 매우 박복하였다. 우리 마을에서 15리나마 떨어져있는 읍역에서 급행열차는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군한다. 그래서 집에 올 때면 부득이 우리 집을 지나 30리 떨어진 ㅅ시의 본역에 내려 다시 뺄스를 타고 되돌아오는 번거로운 려정을 거쳐야만 한다. 평양에 올라갈 때 역시 거꾸로 그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길엔 경우가 달랐다. 려행의 인상에 걸람스러운 아이들이 거치장스러운 그 려정마저 저들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더없이 유익한 관광으로 받아들였기때문이다. 나는 뺄스의 차창밖에 흘러가는 공업도시의 이모저모를 설명해주느라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교외를 벗어나 우리 마을이 가까와짐에 따라 나는 차츰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정경앞에 나 자신 얼떨름해졌던 것이다. 우리 마을과 길게 뻗은 산등성이를 사이에 둔 봉사벌에 대야금기지건설이 벌어졌는데 생각던바와는 달리 요란하고 거창하였다. 눈이 미치지 않는 습지판이 펼쳐져 사람의 발길이라 고 닿아본적 없는 허허벌판에 지금은 키높은 콩크리트기둥들이 줄을 맞춰 일어서고 그에 못지 않게 꺾두룩한 건설기계들이 숲을 이루고 긴 팔을 내젓고있었다. 전에는 한가하던 큰길로는 두줄로 늘어선 화물자동차들이 마력높은 발동소리를 울려대며 우리가 탄 뺄스의 앞뒤로 엇갈려 먼지를 말아올렸다. 나의 놀라움은 우리 마을이 바라보이는 룡천벌에 들어서자 더욱 커졌다.

열기설기 논두렁이 누워있을줄로만 안 룡천벌에 키톤음을 하고 일떠선 아파트들이 한가득 줄을 지어 들어앉은 것이었다. 큰길을 따라 성벽처럼 늘어선 아파트의 창문마다 창가림이 엇보이고 아래층에 주련이 간판을 건 상점들과 편의봉사 시설들이 흥성거리는 것으로 보아 새 주택거리의 살림이 어지간히 자리잡혀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것은 순전히 봉사벌에 건설되는 야금기지의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들이었다. 알쭉한 농촌인

우리 마을에, 정확히 말하면 철길을 경계로 한 웃마을에 현대도시의 일각이 우뚝 솟아난 것이다.

아이들에게 토지개혁때 분여받은 우리 논밭을 가리켜보이려던 나의 생각은 텅없이 잡쳐지고말았다. 그 거창한 전변속에서 지난날의 자취를 찾으려는 것이 무슨 꿈자리를 더듬는 것처럼 허망한 일로 생각되었다.

뺄스정류소에서 내려 아래마을로 내려가는 초입에서였다. 거기에 이전에 보지 못한 지붕만 띄운 경충한 집이 서있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자동차저울이였다. 전에는 이자리에 남새분조의 키넛은 포전휴게실이 있어 작은 저울을 놓고 읍으로 나가는 남새를 달아보내군했다. 나는 몰라보게 자란 고향농장의 비약을 한눈에 보는 것만 같았다.

나서 처음보는 어마어마한 저울앞에서 아이들은 좋아라 날뛰었다. 친할머니 고향엔 별 희한한 것이 다 있는 것이다. 세아가 몽땅 저울판에 올라서 발을 굴렀다. 나도 동심이 되어 안해와 함께 거기에 올랐다. 짐까지 든 다섯식구가 올라섰으나 긴 저울대는 끄떡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저울판우에 난 트랙포르자극을 따라 눈석이몰이 얼어 꾸덕꾸덕해진 길로 고향을 치며 내달렸다. 저만치 아래 철쭉이 바라보였다. 밭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지만 촌마을의 소문처럼 빠른 것은 없다.

어떻게 기별이 갔는지 짐을 가진 우리가 철쭉건 늑길에 거의 오르는데 벌써 저편 등성이길로 올라온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 마주오고있었다. 등에는 무슨 아이인가 업혀있다.

아이들은 일시에 《할머니-》 하고 부르며 달려갔다.

지곳은 아이들에게 에워싸인 어머니는 주먹을 쥔 손으로 번갈아 세아의 머리를 꾸지르며 혼자 말처럼 되뇌었다.

《에그, 내 이것들을, 내 그저 이것들을...》

이렇게 곱씹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갈리고 떨리었다.

사무치게 그림던 살붙이를 맞이한 기쁨을 그럴 계박에 표현할 줄 모르는 어머니였다. 할머니의 투박한 애무에 아이들은 쥐여박힌 머리를 짜낸 채 카드득거리며 할머니의 치마폭에 연방 머리를 들이 박았다.

그 광경을 나는 무심히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피땀이 스며있는 건늑길, 방학이나 출장을 온 내가 떠날 때면 어머니가 손저어 바래워주군하는 사연깊은 그 건늑길인 것이다.

세월의 흐름은 어길수 없어 남들이 10년은 아래로 보는 정정한 어머니건만 이제는 주름살도 퍼그나 깊어지고 흰머리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모셔가리라.)

《그러니까 열두시급행에 지났겠구만.》

나와 안해에게 눈길을 돌린 어머니가 물었다.

평양에서 내려온 내가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하는 첫말은 언제나와 같이 변함없는 이 말이었다.

《어느날 급행에 온다고 전보라도 칠노릇이지.》

역시 여느때와 똑같은 푸념이었다. 그랬으면 여기 나와 마중을 했을게 아니냐는것이다. 하지만 늘 그런것처럼 그 말은 기꺼운나머지 외워보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은 가지를 쳐 붙어난 손자들이 이 땅을 딛고서 어머니앞에 서있는것이 아닌가.

《어머니, 업은 애는 뉘집 아이나요?》

안해가 물었다. 그것은 나도 알고싶은것이였다.

《옷방집 아지미네 첫아이라우. 추운데 날래 들어가시오.》

심상한 어머니의 대답에 안해와 나는 말없이 의아한 눈을 마주쳤다.

(옷방집 아지미라니?)

평양에서 자란 아이들은 물매가 진 길을 만난 기쁨에 서둘러 지치며 좋아라 철쭉길을 달려내려갔다. 아래까지 내려간 아이들은 길을 버리고 생논판을 꿰질러 집을 향해 대각선으로 달려갔다. 타고난 본능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체득하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아이구, 야들야 쟁겨라!》

갑자기 어머니가 다급히 소리쳤다. 세아이는 무슨 일인가 멈춰서 이쪽을 돌아보았다.

《거기로 가면 못쓴다. 얼씨렁 돌아서 나오너라!》

어머니는 큰일난것처럼 두팔을 흔들었다.

안해와 나는 다시한번 눈길을 마주쳤다.

실망한 아이들은 느릿느릿 되돌아 나왔다.

《거기는 발인데 발에다 길을 내면 못쓴단다. 알겠니? 이담부러는 꼭 길로 다니거라.》

어머니의 딱딱한 충고에 아이들은 어지간히 풀이 죽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머니성미는 정말 어쩔수 없구나 생각하며 어머니를 따라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텅 비어 조용하리라고 생각한 집안에서 한무리의 사람들이 쓸어나와 우리를 둘러쌌다.

적위대복차림의 웬 청년이 나서서 인사를 했다.

《안됐습니다. 대사가 있는줄 모르고 미처 집을 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것보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 집을 내문 어디 간다구. 되지도 않을 소리를, 그리구두 무슨 청년돌격대장이라고? 쫓쫓.》

짐짓 눈을 흘기면서 하는 어머니의 면박에 그가 뒤더수기를 굵자 돌격대원들은 왈자그르 웃음보를 터쳤다.

나는 끝끝한 청년돌격대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뒤이어 새각시때를 벗지 못한 녀인들이 수줍게 인사를 했다. 어머니는 그중 젓가슴이 부풀어보이는 한 녀인에게 업은 아이를 풀어주며 그들이 야금기지건설에 지원하여 온 남편을 따라와 마을 여러 집들에 비둘기살림을 펴고있는데 아이어머니는 우리 집 옷방에 들어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우리 아이들을 얼싸안고 아이들이 재밌게 생겼다느니, 어머니 신세가 크다느니 하며 떠들어올렸다. 그리하여 마당안은 어머니의 복관사투리를 비롯하여 향토색이 짙은 고유한 억양들이 한데 어울려 숭벽내기라도 하듯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는 그 한복판에 서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외롭게 사는 어머니때문에 마음속에 원심을 써온 일이 부질없는 일이 아니였던가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어째선지 이전의 제 집에 온것 같지 않은 서먹서먹함을 느끼었다.

## 4

행장을 푼 나는 려행의 피로를 풀사이 없이 호기심많은 아이들의 손에 끌리어 집을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를 보우. 이밑으루 이런 쇠통이 지나갔다우.》

집아래쪽 무한궤도자국이 찍히고 생흙이 몽곳이 살아난 채마전에 따라나온 어머니가 팔아름을 지어보이며 설명했다. 방금까지 집안에서 우리 고장에 새 전변을 가져온 야금기지건설의 엄청난 규모에 대하여 침이 마르게 자랑하며 하천독열에 선 뿔프장을 구경하라고 부추긴 어머니였다.

나는 관이 묻힌 자리에 올라서 앞뒤를 바라보았다. 하천독열에 키높이 선 뿔프장이 바라보이는데 거기서 시작된 봉긋한 자리는 일직선으로 뻗어와 우리 집 채마전을 지나 눈이 덮인 농장벌을 꿰질러 룡포쪽으로 내뻗고있었다. 그 끝에서 굴착기와 기중기가 부지런히 주억거리는것으로 보아 판매물작업을 냅다 밀고나가는 모양이었다.

고작 나홀전에 우리 집 아근에서 공사를 하였다니 번개같은 작업속도에 어머니가 혀를 차는것도 우리가 아니였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든 청년돌격대원들이 그 일을 맡아한다고 자랑스레 말하면서 그들이 건설한 뿔프장을 구경하라고 권고한터였다. 관이 묻힌 채마전을 바라보며 나는 저도 모르게 깊은 감회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 집이 묘한 자리에 앉았다고 하겠는지 전변의 력사는 언제 한번 우리 집을 가만두고 지나지 않는다.

해방전과 전쟁때에는 철길이나 터발을 먹어들어왔는가 하면 전후에는 새로 지은 학교가 생겨나 빙 둘러심은 백양나무 생울이 우리 집과 경계를 이루었다. (지금은 벽돌울타리가 경계를 대신하여

줄지어선 백양나무들이 정원수로 되었지만) 그런데 사회주의대건설이 벌어진 오늘에는 학교울타리와 우리 집사이에 차려진 좁은 채마전을 꿰지르고 야금기지의 용수관이 뻗어간것이다.

나는 부슬부슬한 흙 한줌을 쥐어 들고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았다. 부드럽고 까만 흙은 그이상 걸구지 못하리만큼 기름지였다.

《글쎄 땅파는 기계가 곧추 파들어오자 나는 하필이면 왜 혼자 사는 노친의 소영덩작만한 채마발을 파헤치느냐고 성화를 부렸지비. 그랬더니 할머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우의 흙을 따로 벗겨내고 이렇게 고스란히 다시 덮어놓았다우.》

그 말을 듣는 나는 전쟁때 철길지신을 뿔노라고 들어간 터발때문에 어머니가 대토를 받아낸 일을 회상하며 미소를 머금지 않을수 없었다.

《날래 저 뿔프장에 가보우. 멀지두 않은데.》

어머니의 재촉에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매달렸다.

《아버지, 빨리 가자!》

그들의 손에 끌려 걸음을 떼었다. 뿔프장은 창고처럼 높고 너렁청한 공간인데 우에는 활차를 드리운 천정기중기가 가로건너 설치되어있었다.

그대신 아래바닥은 천장높이 못지 않게 우물처럼 깊이 내려앉아있고 거기에 4대의 육중한 뿔프들이 웅크리고있었다.

본공장에서 15리나 뻗어나와 있는 양수직장 한 작업반의 뿔프장이 이렇게 굉장한것을 보면 봉사벌에 들어왔는 야금기지건설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지만 건설대상들을 취급하여온 나에게는 구태여 여기를 구경하라고 떠밀어보낸 어머니의 극성스러움이 새삼스러울뿐이었다. 나는 직업적인 눈으로 이구석 저구석 살피다가 아이들이 없는것을 알고 급히 밖에 나와 두리번거려졌다.

아이들은 어느새 강가에 내려갔는지 얼음톱이진 기슭에서 얼음을 지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의 손을 끌고 줄라델 때부터 그들의 생각은 기차에 오면서 본 얼음판에 가있은것이 틀림없었다. 놀음에 팔린 아이들은 하얗게 기포가 진 얇은 얼음을 밟아서 까는 재미를 보느라 연방 신발뒤축을 구르기 시작했다. 공기가 찬 얼음이 꺼지는 소리는 코맹맹이소리처럼 미묘한 음향을 발산하였다. 그 소리는 희희낙락하는 아이들의 친진한 웃음소리와 어울려 강가에 퍼지며 기묘한 정서를 자아냈다. 류다른 그 정경에 눈이 팔려 아이들을 바라보던 나는 부지중 동심에 이끌려 이 강반과 더불어 흘러간 애뜻한 어린 시절의 추억에 젖어들었다. 우리 나라 동해안의 하천들 거개가 그러하듯이 룡북천 역시 두제방쪽사이가 퍼그나 넓은데 비해 강줄기는 어방없이 여위여 장마철 아닌 나머지계절은 철다리의 세교각사이도 채우지 못한채 가늘게 흐른다. 그리하여 수천년 제힘으로 날라다 쌓은 퇴적으로 한가운대를 다시 파먹으

면서 구불구불 흐르는것이다.

그래도 철없는 벌거숭이시절 룡북천은 우리에게 있어 더없이 즐거운 유일한 놀이터였다. 모래불에 땡벌이 눈부신 여름날 벌거숭이가 된 우리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꼼꼼히 귀를 막는다. 침이 과연 물을 막아주는지 딱히 리치도 모르면서 그저 고추자지를 단 사내아이면 따라야 하는 걸멋으로 그렇게 하는것이다. 그리고는 침병 물에 뛰어들어 개발해염으로 텅텅텅텅 물장구를 치며 돌아간다. 이따금 자맥질하여 물속에서 눈을 뜨면 오리발처럼 놀리는 손이며 모래바닥에 비친 몸뚱이그림자가 확대경을 대고 보듯이 가까이 보이는것이 그야말로 조화다. 그러다 문득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것만 같은 적막감에 사로잡혀 금시 겁이나 머리를 솟구치고 일어선다. 그러자 세상의 온갖 음향이 귀에 쏴려들며 현실을 되찾은 환희가 작은 가슴가득이 차오른다. 가슴노리까지 오는 물속에 얼굴을 훑치며 서있느라면 이번에는 발언저리의 모래가 파내려가며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미묘한 감촉과 차츰 차지는 모래밑에 발이 묻히는 야릇한 공포가 갈마든다. 그러면 다시 물에 떠서 물장구를 치며 자리를 옮긴다.

아! 친진한 녀만이 감수하는 그 아기자기한 환희와 신비로운 공포감을 언제 다시 맞볼것인가.

해벌에 단 모래불에 나와 덩굴라치면 온몸에 모래가 말려 옅은 모래옷을 두르게 된다. 우리는 흡사 흑인이라도 된듯이 피상한 춤을 추며 경충 경충 뛰논다. 모래가 뒤발린 우리의 얼굴은 기괴하게 치장을 한 토인들의 얼굴처럼 보인다. 그렇게 여름내 모래불에 덩굴며 우리의 몸뚱이는 짜장 검둥이가 되고마는것이다. 이따금 편씨름을 하고나서 맥이 진한 우리는 턱을 고이고 말뚝을 박은 장바에 늘어맨 소들이 풀을 뜯는 무연한 풀밭을 덤덤히 바라본다. 풀빛 들판가운데 떠떠떠여 널려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은 강반에 류달리 평화로운 정경을 펼쳐보인다.

랑껏 먹고 기가 뻥친 황소들은 무딘 발쪽을 그러당겨 뿌연 흙먼지를 피워올려 등이나 갈파리를 쫓는가 하던 잔뜩 헤기워진 바줄때문에 반원을 그리면서 이웃에 있는 황소더러 울러메느라 뿔을 뻗쳐들고 호용을 부린다. 마치나 그것은 맞설자가 있으면 나서보라고 검을 빼들고 도전하는 무사의 위용에 비길만하다. 그러다 말뚝이 뿔힌 황소가 뛰쳐나 소싸움이라도 붙는 날에는 실로 불만한 구경거리가 생긴다. 그러나 강건너 불보듯 구경만 할수 없는것이 우리가운데 누구든 소임자가 있어 그 아이를 따라 소싸움 말리러 달려가게 마련이었다.

기름진 땅의 풀을 뜯어 살이 썩 투우와도 같은 황소를 우리고장에서는 《둥굴소》라는 의젓한 이름으로 부른다. 실컷 풀을 뜯은 배에 강물까지 흠뻑 마시고 동쪽을 넘어오는 황소들은 그야말로 팽팽하게 배가 부른것이 진짜 콤파스로 그린

것처럼 둥그렇다.

불타는 황혼의 분홍빛 조명을 받은 등글소들은 적도빛으로 질게 물드는데 집에 돌아오며 태평스레 길바닥에 풀똥을 싸는가 하면 갈지자로 오줌을 갈기기도 한다.

나는 고향마을 달구지길의 유표한 그 자국우에 흘리며 간 유정한 소방울소리며 웅글은 영각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장난에 팔린 아이들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소리쳐서야 아이들은 마지 못해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돌아온 나는 어머니에게 과장된 말로 뽕프장이 굉장하더라는 말을 하였다.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그것 보랑이. 가서 제눈으로 봐야 안다는 데.》

어머니의 흠족한 대답이었다.

이튿날 어머니는 또다시 나를 엉뚱한 일에 내몰았다.

관리위원회에 찾아가 리간부들과 그리고 아무 반장하며 래일의 70 뉘 생일에 올 손님들을 청하라는것이였다. 그속에는 어머니가 더러 신세지는 진료소 의사, 간호원까지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요구속에 평양에 있는 아들을 내세우고싶어하는 로망스러운 마음을 보는것 같아 떠오르는 웃음을 금치 못했다. 게다가 이때까지 어머니를 모셔가지 못한 나로서는 간부들앞에 나타나기 딱하고 면구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나의 주관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진작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여 시름을 끼쳤다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무슨 말씀을, 시름이 다 뭉니까. 진작 공산주의어머니인걸요.》하고 칭찬의 말을 했다. 나는 그말이 나에게 듣기 좋게 하는 소리거니만 생각하였다.

## 5

어머니의 70 뉘 생일은 평양을 떠날 때의 우리 생각과는 달리 판이 커졌다. 원래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들을 청해다 소문없이 할 작정이였으나 어머니의 잡도리가 그렇지 않았고 작업반과 이웃들, 청년돌격대원들까지 합세하는바람에 거기에 휘말려들지 않을수 없었다. 아마도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면 마지막이라는 공통된 심리가 작용한것 같다.

그래서 70 뉘 생일은 내가 차리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축하행사처럼 되고말았다. 나는 아들이라는 명색뿐 옆에서 하자는대로 맡겨두고 관망하는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다. 상을 차릴 때는 저마끔 갖춰가지고 온 빛다른 음식을 놓겠다고 승벽을 내어 론의가 분분했는가 하면 사진찍을 때에는 조명이 약해서 문화회관에 사람을 띄워 영사실에 있는 고축전등을 가져오느라 법석을

피우기도 하였다.

나는 기쁘면서도 부산한 속에 내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것 같은 어정쩡한 기분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래도 나의 립장을 알아준것은 어머니의 늙은 동무들이였다. 약속한듯이 마지막에 무리지어 찾아온 그들은 어머니와 나를 에워싸고 각근히 축하해주었다.

비록 호물턱이 저 파파늙은이들이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태반이 당원이였다. 그들은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놀러앉아 옛이야기를 펼치였다.

그중에도 해방후 농맹위원장이며 아버지의 동갑친구인 배원국의 존재는 특별히 좌석을 뜻깊고 이채롭게 해주었다.

몸집이 우람한 그는 타고난 씨름꾼이며 농악대의 뺄수 없는 잡이꾼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허끝을 내밀어 웃임술가운데 도드라진데를 축이군하였는데 새납을 불던 때 불은 버릇같기도 하였다.

거나하게 취한 그는 내가 군대에 탄원했을 때 잊은 일을 잊지 않고 들춰내며 사람들을 웃겼다.

《앙이 글썸 그제 어떤 자리라구. <군관아주바이 우리 아이는 집안의 장손이우꾸마. 아직 나이 두 어리구... 하구> 아다모끼를 부렸지비.》

거쿨진 몸에서 나오는 석싹한 목소리로 어찌나 신통히 흥내내였던지 좌중이 왁자그르 웃음판이 되였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했던지 배원국이 꾸며서 하는 말인지 알수 없었다.

《강동무, 이진 내 옷느라 한 소리구,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소만 강동무가 평양에 올라가 큰사람질을 하지만 자네를 키운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 모를지네.》

배원국아바이가 갑자기 정색하여 말머리를 돌렸다.

《예, 제 죄가 많습니다.》

모름지기 어머니를 모셔가지 않은데 대한 추궁이려니 지레짐작한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빌었다.

《아따, 무슨 객적은 소리를, 그제 자네 어머니 같은이가 없는줄 알게. 내 취한김에 하는 말 이거니 생각말라니. 그때 아다모끼를 부리기는 했어두 자네가 군대에 나간다음 아 저 성반월동무가 어쨌는줄 아우. 영 판사람이 뻘지비.》

이야기가 다른데로 뻘는바람에 나는 의아해났다. 나는 내가 군대에 나간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호기심이 동하였다.

《강동무가 전선으로 나간뒤 철도복구대가 우리 마을에 왔다는건 강동무도 알고있겠지.》

나는 우리 집에 철도복구대가 들었다는 말을 들은 생각이 났다.

배원국은 어머니가 집에 든 복구대원들을 친자식처럼 극진히 돌봐준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에게는 그들이 남의 자식이라 생각되지 않았던것이다. 자기 아들도 어느 타지에 나가 싸

우면서 고생할것이니 자기가 군대들을 돌봐주는 것 만큼 다른 어느 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돌봐줄것이었다.

《지금도 내 한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네.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웃을지 모르겠네.》  
담배연기를 내뿜 배원국이 웃입술의 도드라진 데를 축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어느날 밤인가 리에서 회의를 마친 나는 자네 모친이 어떻게 지내는가 들려보리라 생각했네. 그런데 철쭉을 넘어오다 그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겠나. 저만치 앞 철길가운데 누군가 앉아 중얼거리고있는거네. 분명 자네 모친의 목소리더군. 가만히 듣느라니 미국놈더러 자네의 살점 하나 못다친다고 꾸짖는가 하면 함포로 철길을 마셨다가는 천벌을 받을줄 알라고 엄포를 놓는데 마치 땅과 말을 하는것 같더라니까.》

배원국은 익살스레 말을 마쳤다.

《에그 아주바이두, 도접스러운 소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구 쫓쫓.》

면구해난 어머니가 민망한 말을 했다.

웃음이 터진 속에 무산집 로친이 한마디 끼었다.

《철길신령에게 빌었겠지비.》

《아니, 내 웃느라구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다 알라구 하는 말이우. 내 언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소.》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을수가 없었다. 철길에 나와 진정을 토로한 어머니의 저주와 분노가 그대로 가슴에 마쳐왔기때문이다.

나는 전쟁에 나간 나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입대한 나를 바래워준 철길과 그대로 이어져있음을 알수 있었다.

철길이 살아야 내가 있는 전선으로 쌀이 가고 탄알이 가당아 내가 먹고 싸울수 있다고 소박한 어머니는 믿고있은것이였다.

어머니는 복구대원들과 함께 함포가 울부짖는 다리복구사업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곁에서 말리려들면 《전쟁관에 아들을 내놓은 내가 죽음을 무서워할것 같수.》 하면서 팔을 뿌리쳤다.

《이번에는 내 정말 한가지 우스운 말을 하지.》

배원국은 내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아들이키고 나서 말머리를 돌리었다.

《철도복구대가 온 이듬해 봄인데 철길지선의 반반한 량쪽 모래쪽에 난데없이 콩씨가 잔뜩 돋아나지 않았겠나. 군대들은 누가 거기에 콩을 심었겠는가 의아해했네. 자네 어머니에게 물었으나

아닌 보살 모르쇠를 뱉네. 무슨 거름을 냈는지 그 모래땅에서 콩은 억식억실하게 자라 허영게 드러난 철쭉을 퍼렇게 덮었지. 누가 심었건 콩뿌리가 흙을 잡아두고 위장까지 되니 나뭇게 없었네. 그런데 가을에 가서 다 영근 콩대가 하루밤 사이에 다 뽑혀 자취를 감추었네. 모두가 조화다

하는데 하루는 자네 모친이 군대들 밥상에 두부모를 내놓았네. 그러면서 철쭉의 콩이 바로 이 두부가 됐노라고 실토를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하는 말이 국가에 내놓고 대토까지 받은 땅에다 콩심은것이 점직하여 그렇게 도적농사를 지었노라고 고백을 했네.》

배원국이 폭소를 터뜨리는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듣던 사람들이 모두 따라 웃었다. 어머니도 점직한지 배원국을 흘려보며 면박을 주었다.

《아주바이두 늙은거 앓혀놓구 공기돌 놀리듯 울리쳤다 내리쳤다 하면서 쫓쫓.》

《가만 내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수.》

어머니쪽을 향해 이렇게 말한 배원국은 나를 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부상당한 철도복구대원을 치료하고 간호를 해준 이야기, 전후에 무의무탁한 복구대원들에게 배필을 무어 가정을 이루어준 이야기, 자네 모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네. 이보게 강동무, 내 오늘 자네에게 하자는 말은 어쨌든 자네 모친이 당원은 아니지만 그 값에 가는 너장부라는것이네. 자네가 어린 나이에 군대에 나가 잘 싸운데다 이제 큰사람이 되기는 하였지만 말일세.》

배원국은 결론처럼 자기 말을 맺었다.

마침내 집안에 노래소리가 울리고 춤판이 벌어졌다. 늙은이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갔다. 어머니도 어울려 춤을 추었다. 한 청년돌격대원이 사진기를 들고 번쩍번쩍 셔타를 누르며 돌아갔다.

얼근히 취하고 가슴이 부풀어오른 나는 술그머니 빠져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서 푸실푸실 내리는 함박눈이 얼굴을 시원히 식혀주었다. 나는 굴뚝머리에 갔다. 고깔을 지는 줄당콩대무지가 눈이 내리는 밤하늘에 솟아있었다. 가을이 지나면 언제나 변함없이 이자리에 한모양으로 서있는 나무무지였다. 거의 벗겨져 얼마 남지 않은 겹질에 마른 당콩줄기가 그냥 감겨있는 웅이마디가 구불구불한 참나무장대였다. 그것은 먼산에 가서 아버지가 해온 나무달구지에서 어머니가 한대 두대 골라서 모은것들이였다. 청명이 지나 관모봉에서 불어오는 바람새를 가늠한 어머니는 어느날 낡은 식칼을 들고 오래뜰에 나선다. 집아래를 돌아가며 무딘 칼끝으로 좁은 구멍을 판다음 줄당콩대를 세우고는 당콩대 랑쪽에 씨앗을 박는다. 여름이면 당콩손에 감겨오르는 당콩넝쿨에 닭의 볏모양의 빨강고 하얀 꽃이 아지게 롭. 거기에 열린 꼬투리에서 간 여러가지 빛갈의 알록콩은 감자밥에 놓아도 좋고 감자떡에 박으면 더구나 별맛이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줄당콩대는 다시 거두어 이자리에 지금처럼 고깔모양으로 세워지는것이다.

어머니의 줄당콩농사는 이처럼 년중 행사로 되풀이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져오

고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도 오래 묵은 이 집과 그리고 손때묻은 줄당콩대와도 헤어질 때가 되었다.

이제는 철쭉 옷쪽에 일떠선 아빠트거리가 성벽처럼 막아서 어머니가 날씨를 가늠하던 관모봉바람도 제몫을 잃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들이 더 늘어서면 관모봉조차 바라볼수 없게 될것이다. 아니 건설이 내뻗는 기세로보면 이자리에 우리 집이 남아있을 날도 오렐것 같지 않다. 어차피 어머니는 모서가야 한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강반에 나갔다가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깨었을 때와도 같은 감정에 잠겨 줄당콩대무지의 고깔이 진 우듬지를 바라보며 움직일줄을 몰랐다.

## 6

밤차로 떠나는 친척들을 배려우느라 늦은 아침을 먹고 뿔아떨어졌던 나는 잔등이 뜨거워나는 바람에 곤한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되었다. 불쭙 아버지 산소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언젠가 있는 제사사건이 가슴에 얹혀있는 나는 평양에서 떠날 때부터 아버지산소를 찾아보는것으로 그때의 잘못을 씻으리라 마음먹은 터였다. 반쯤 몸을 일으킨 나는

사이문을 빗썰 열었다. 그러자 정지간에 뽕얇게 서린 김이 쓸어드는바람에 어리둥절해났다. 눈익혀 보니 부엌문쪽에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언제 70 쉼 생일상에 앉았던가싶게 여느때의 곳은 옷차림으로 호젓한 집안에 빨래를 벌려놓은 어머니앞에서 저속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안해는 읍에 있는 자기편 친척집에 아이들과 함께 가고 없었다. 떠날 때 그는 어머니를 모셔가는 문제를 꼭 결정지으라고 귀뜸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를 못모시는 일로 말하면 나보다도 안해편에서 더 웅색한 처지에 빠져있는 터였다. 나는 일에 열중해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성질도 정말 별성질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 계십니까?》 하는 오돌찬 소리와 함께 문이 벌럭 열리더니 감도는 김발속에 한 아이가 불쭙 문턱을 뛰넘어 들어섰다.

동촌아이다운 불깃불깃한 볼에 지혜로운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것이 여간 다기차 보이지 않았다.

한손에는 바깥쓰가 들려있다.

《민철이 아니냐?》

일손을 멈춘 어머니가 열린 몸을 일으키며 반겼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이 손을 보지. 수갑은 어찌구 맨손으로 다니느냐? 쫓쫓.》

《일없어요. 할머니두.》

아이는 손을 빼려고 했다.

《이 아래목에다 손을 녹여라.》

어머니는 기어이 아이 손을 가져다 따끈한 가마목에 눌러댔다.

《그래 검정토끼가 이제는 새끼를 낳았겠구나.》

《예 . 》

《몇마리냐?》

《여덟마리예요. 》

《저런 여덟마리씩이나. 너희네 말마따나 최고구나.》

어머니의 감탄에 아이는 벌쭉거리며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그런데 민철아, 내 너에게 한가지 보여줄게 있다. 》

어머니는 비밀이야기인듯 소리를 죽이고 말했다.

《무엇인데요?》

말없이 일어난 어머니는 가시장빠람을 열더니 무엇인가 꺼내주고 돌아서서 아이에게 내밀었다.

《아니, 호각이 아니냐요?》

《오냐. 》

어머니는 큰소리치지 말라는듯 손을 내저었다.

《그걸루 비둘기를 못부를가?》

사뭇 진지하게 묻는다.

《이걸루요? 그럼 체육시간에 호각을 불 때마다 비둘기들이 날아내려 체조를 하세요?》

어림없다는듯 부정한 아이입에서 갑자기 방울새 소리같은 명쾌한 휘파람이 울렸다.

《쉬, 조용해라!》

어머니는 방에 사람이 있는줄을 모르고 막 떠드는 아이에게 다시 주의를 주었다.

《비둘기는 내 휘파람 소리만 알아듣는걸요. 》

《글쎄 그런걸 가지구. 》

무안을 당한듯 김빠진 소리다.

아이의 호각을 도로 내밀고 미안한 기색을 지었다.

《내 그걸 해서 뭘하겠니. 네나 가져라. 》

실망한 어머니가 말했다. 이윽고

《날래 방학이 끝났으면 좋겠구나. 요새는 방학을 하니 동네가 통 쥐죽은 나락 같은게. 》

하고 변명처럼 혼자 말을 한 어머니는 이번에는 벽에 걸린 숨저고리를 벗기더니 거기서 무엇인가 꺼내여 아이의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어주었다.

《아니, 콩이 아니냐요?》

허리를 편 아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손을 들어다보며 놀란 소리를 했다.

《나한테도 있어요! 》

아이의 바지주머니를 톡톡 쳐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엇따 다 가져라. 》

하고 콩을 꺼내여 아이에게 마저 넘겨주었다.

나는 바꿈질하는 아이들을 보는것 같아 터져나

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어머니는 물바게쓰를 들고 아이를 따라 밖에 나갔다.

《할머니, 일없습니다.》

《일없기는 어서 걸기나 해라.》

호기심이 끌린 나는 몸을 일으켜 바깥문을 빠르게 열고 내다보았다. 바게쓰를 든 어머니와 아이는 집아래쪽에 있는 벽돌담모퉁이로 다가갔다. 거기서 넘어다니기 좋게 낮게 헐린 자리가 나있고 아래에는 디딤돌이 고여있었다.

아이가 디딤돌을 짚고 넘어가자 어머니는 거기 올라서서 물바게쓰를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 나누더니 디딤돌우에 선채 허리를 굽히고 몸을 숨기는것이였다.

의아해한 나는 무슨 일인가 바깥 호기심이 동했다. 아닌게아니라 뒤이어 불만한 현상이 일어났다. 담장너머에서 방울새 소리같은 레의휘파람 소리가 울리더니 학교지붕에서 비둘기들이 나래를 퍼덕이며 무리지어 내려왔다.

담장뒤에 허리를 굽힌 어머니는 숨박꼭질하는 아이처럼 우뚝한데다 머리를 들고 조심스레 담장안을 넘겨다 보았다.

나는 그것이 남의 집 마당을 훑쳐보는 장난군의 모습과 어쩌나 흡사했던지 다시금 복받치는 웃음을 금치 못하였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더니 어머니의 피복도 별스레 번져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아이의 어깨며 손우에 내린 비둘기들이 재롱을 부리며 쿵을 먹는 희한한 정경을 보고싶은 욕망을 누를수 없었다.

아마 어머니도 민첩이라는 아이가 하듯 학교 비둘기와 가까이 굴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을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호각으로 서뽀른 시험을 해볼 생각까지 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불현듯 나는 동심과도 같이 어처구니없는 어머니의 행동속에 웃어넘길수 없는 심각한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학교아이들과는 물론, 학교의 토끼며 비둘기들과도 때를 묻히고 허물없이 지내고싶은것이다.

다시말하여 낮게 헐린 담장으로 넘나드는 아이들과 더불어 학교와 튼튼한 뉴대를 맺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고향땅에 어머니가 내린 뿌리의 한가닥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벽돌담안에 키높이 우거진 백양나무를 바라보았다. 처음 학교를 지었을 때 울타리 삼아 심은 나무들이 이제는 거목으로 소소리 자라나 보기좋은 풍치를 이루고 있다. 전후에 심은 나무들이 저렐진대 한생을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가 내린 끈은 뿌리야말로 그 깊이를 어찌 다 헤아릴것인가.

비둘기들이 하나둘 풍겨오르더니 백양나무 우뚝지우로 무리지어 감돌았다.

그것은 자기들의 배를 불러준 어머니와 아이에게 감사의 념에 차서 춤을 취보이는것처럼도 보였다.

푸른 하늘에 날아에는 비둘기떼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 나는 문득 안해가 부탁하고 떠난 말을 어머니앞에 꺼내기가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들어온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던듯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다 빨래를 건지느라 돌아 앉다가 방문을 열고있는 나를 띄여보았다.

《뭘 그렇게 빠나요?》

나는 얼결에 물었다.

《아이구, 대삼네 하구 일이 어찌나 밀렸는지.》

어머니가 대답을 피하고 푸념처럼 외웠으나 나는 돌격대원들의 웃을 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정지에 내려와 양말을 찾아신은 나는 심상한 어조로 아버지산소에 가보겠노라고 말하였다.

《아니, 이제 어떻게 거기를 간다구?》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얼굴에 반색하는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거기에 이제는 얼마나 다른 산들이 늘었다구. 내 같이 가지 않으면 못찾습네. 얼시렁 일을 끝내구 같이 갑세.》

신바람이 나서 일을 마친 어머니는 인차 자그마한 보통이를 꾸렸다. 나는 보통이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길을 나섰다.

어머니의 걸음은 날렵하다하리만치 가벼웠다.

어머니와 함께 산소에 가느라니 어렸을 때 산소에 따라가던 일이 감회깊이 떠올랐다. 철부지 그 때는 산소에 가는것이 어쩌면 그다지도 즐거웠던지. 산소에 가면 떡은 물론 사과랑 과줄이랑 맛있는것을 먹을수가 있다. 집안의 장손이라고 나만은 덕달꿀 먼산(로할아버지, 할머니의 합장묘였다)까지도 따라갈수 있는 특전이 차례졌다. 동녘이 흰해서 온 집안이 무리를 지어 달구지를 앞세우고 떠나간다.

나는 달구지 뒤걸쇠를 잡고 깡충깡충 깨끔질을 하며 따라갔다. 《제물에 부정을 탄다》고 갈 때는 달구지에 타는것이 엄금이다. 하지만 산소에 가서 맛있는것을 먹을 생각을 하면 아무리 먼길도 힘들것이 없다. 그중에도 삶은 닭알과 꽃감이 눈에 사물거리며 군침을 삼키게 한다. 제물을 갖출 때 어머니가 떡이나 지지미같은것은 쥐여주면서도 닭알이나 꽃감은 빛도 안보이는것이다. 그러니 삶은 닭알이나 꽃감을 위해 치르는 고역쯤 비싼 대가라고 할수는 없다. 먼산은 말그대로 어찌나 먼지 산소까지 가고나면 점심때가 거의 되여 배가 등에 찰싹 달라붙는다. 맛있는것을 먹었던지 말았던지 돌아올 때는 덜커덩거리는 달구지에 동그라진채 세상없이 자면서 온다. 나는 먼산의 로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으며 세상에 나서 어떻게 살다가 떠나갔는지 알지 못한다.



불현듯 나는 그들이 그저 이 땅에 태어나 근근히 살다가 후대를 남기고 떠난 하나의 자연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제사며 산소에 관심이 깊은것은 바로 선령송배의 세습적인 그 관념때문이 아닐까.

## 7

아버지의 산소는 산등성이 거의 꼭대기에 있었다. 묘비도 없는 산소였다. 제대된 뒤 어느 방학엔가 내 손으로 만들어 날라다놓은 세멘트상돌이 놓여있을 따름이다. 그 상돌아래 비살무늬의 푸른줄이 간 깨여진 접시가 얹어져있었다.

향불도 피우고 표적으로 삼기 위해 갖춰둔것이였다. 그 접시밖에도 이름을 적은 종이쪽지가 든 병사리가 산자리의 왼쪽 귀퉁이에 묻혀있을것이다. 묘비없는 산소를 잃지 말라고 언젠가 어머니가 시켜서 내가 묻은것이다.

나무가지들 꺾어 대충 묘앞의 눈을 쓸어내고 보통이의 제물을 차린 다음 향을 피웠다.

《에그, 이렇게 찾아와두 알기나 하는걸 가지구 이러는지.》

음식그릇의 수저를 옮겨놓으며 어머니가 한숨쉬인 소리로 푸념했다. 산소에 올적마다 외우는 판에박은 말이었다.

아버지가 갓 돌아갔을 때만해도 산소에 와서 어머니는 얼마나 애통하게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만도 한것이 아버지는 생때같은 나이에 너무나 가석한 죽음을 당하였다.

바로 8. 15 해방때 일제는 옷달 논벌에 부랴부랴 포진지를 꾸리고 산더미처럼 포탄상자를 쌓았는데 한방도 쏘보지 못한채 포탄무지를 폭발시키고 도망을 쳤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가, 분여받은 그 논에서 세해째 씨레를 치다가 논손 파편에 발을 상하여 파상풍으로 생목숨을 잃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하였으랴.

만일 우연한 병마가 아버지를 횡사시키지만 않았던들 아버지는 배원국아바이처럼 혁명의 한길을 고즈넉이 걸어 마을의 핵심으로 씨웠을것이다.

어린 시절 어깨너머로 몰래 본 아버지의 당원증, 투박한 손을 털며 토방에 높이 쌓은 애국미가마니를 바라보던 자랑스런 아버지의 눈길, 한글학교에서 된 글눈으로 골똘히 들여다보던 당보,

어린 가슴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타고난 성미가 데통맞고 데면데면하다고 할지라도 후날 내가 걸어갈 곧바른 인생행로를 새겨주었던것이다.

아버지로 하여 숙연한 생각이 잠긴 나는 감회깊은 눈으로 눈아래 펼쳐진 고향산천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룡복천은 얼음과 흰눈의 포위에 움츠러든듯 손금처럼 가늘게 보였다.

그러나 여윈 강줄기에 비해서는 그것이 뿌리를 둔 관모봉은 어마어마한 준령에 서슬푸른 백설을 인채 위엄을 돋우고있었다.

마치 두발을 내짚은 스텝크스처럼 위엄있고 태고연한 그 모습은 나로 하여금 내가 태어난 이 땅에 흘러온 유구한 역사를 주름잡아 생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것이였다. 수천년 세월 이 땅에 태어나 생을 영위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간 수십세대의 교체와 순환, 인간은 끊임없는 변천속에 세대를 계승해온다.

그 장구한 교체와 순환속에 인간은 자기를 남기는것이다. 그렇다. 무엇인가 세상에 자기가 산 자취를 남겨야 한다.

《에그 저 술한 기계들이 역사질을 하건만 언제든 저 터전을 다 돌구겠는지 쫓쫓.》

어느새 제물을 물리고 등성이에 올라선 어머니의 말소리가 나의 상념을 깨쳤다.

나는 어머니곁에 다가갔다.

여기서는 대건설이 벌어진 봉사벌이 한눈에 굽어보였다.

그런데 지금 부감해서 보는 봉사벌은 고향으로 오던 날 자동차로 지나면서 감탄하며 바라보던 것과는 달리 버성진 건설장이 어딘가 엉성한것이 아직 완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버거운 인상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

아닌게 아니라 봉사벌 건설장에서부터 룡천벌에 이르는 긴 도로에 늘어선 자동차들의 행렬이 사슬처럼 이어져 서로 엇갈리며 가는것이 특별히 눈을 끌었다.

그 사슬이 돌아서는 룡천벌에는 여기저기 논밭가운데 굴착기들이 널려있는데 차들은 거기서 모래를 퍼싱고 떠나는 모양이였다. 오는차들은 레외없이 빈차들이였다.

《글쎄, 저 생모래를 파내느라 아까운 논밭을 파헤치지, 휘발유는 또 얼마나 새기겠소. 그래 어떤 때는 우둔한 생각으루 저 포항쪽에 내리갈린 술한 모래를 산너머루 흘 넘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두 해보쟁이우.》

혼자말처럼 외우는 어머니의 말에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룡복천하류에 미치였다.

거기에는 수천년 세월 룡복천이 흘러내리며 쌓은 삼각주처럼 범람한 모래사장이 눈밑에 깔려있었다.

자연의 맹목성이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가 선 산등성이에 막힌채 봉사벌의 안타까운 요구를 외면한채 고히 잠자고있는것이다.

그 순간 무엇인가 번개처럼 나의 뇌리를 치는 것이 있었다.

수송관을 설치하면 룡복천하류의 저 술한 모래를 퍼올려 봉사벌에 넘길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모래수송관》, 룡복천하류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계단식으로 끌어올려 쪼갬기면 저 무진장한

모래가 값있게 쓰일수 있다.

그야말로 놀랍고도 매혹적인 착안이었다. 느닷없이 가슴이 방망이질하며 뛰었다. 내 머리속에 생각해낸것이면서도 너무나 엄청난 발견앞에 압도된때문이였는지도 몰랐다. 나는 눈아래 굽어보이는 룡천벌과 봉사벌은 물론 관모봉까지 합쳐 천하를 두팔에 안아일으킬것만 같이 온몸에 뻗쳐 오르는 무서운 힘을 느끼었다.

아마 지레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지구를 뜰 지점을 달라고 웨친 아르키메데스의 답력이 이 비슷할것이였으리라.

사실 나는 공사장에 널려있는 기계들과 자동차들을 향해 잠깐 멈춰서 내말을 들어보라고 웨치고 싶은 심정이였다.

당장 현지조사를 하고싶었다.

혼자서 먼저 내려가라는 나의 말에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의아한 기색을 지었다. 서운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어머니를 바래우며 나는 머리속에 떠오른 착안을 기어이 성취하리라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설마 여기있는 그 술한 기술일군들이 여적 그 단순한 착안에 못미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다. 혹시 어느 누구에 의해 벌써 착상이 되어 설계가 진행되고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을 물리치고 룡북천하류에 설 양수장과 봉사벌에 설치될 투하장위치를 정한 다음 내가 서있는 산등성이의 표고와 각지점들 사이의 거리를 가늠해보았다.

나는 관이 넘어갈 위치를 향해 생눈을 밟고 나갔다. 머리속에는 필요한 목적측을 진행하며 초보적인 설계의 스케치를 그려보았다. 점점 확신이 굳어졌다.

나는 거인의 발자국이라도 떼듯이 뽕프장을 예견한 룡북천하류를 향해 비탈을 타고 내려갔다.

정확한 거리를 재여보기 위해서였다. 아니, 기쁜김에 나의 엉뚱한 구상이 실현될 그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충동때문이기도 하였다.

룡북천하류에 와서 제방쪽은 중등무이되어 끝이 나고 넓은 모래바닥기슭을 따라 바다가로 내려가는 길이 나있었다. 길에 내려선 나는 눈에 빠진 신발을 털넘도 없이 얼음이 깔린 강가에 이르렀다. 강물은 산기슭쪽으로 치우쳐 흘러 뽕프장을 세우는 경우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수가 있었다. 그점 역시 여간만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얼음툰이 진 기슭에 이른 나는 맑은 물을 따라 바닥으로 씻겨내리는 모래를 들여다보았다.

어린 시절 물장구를 치면서 들여다보고 술해이 물을 건너다녔지만 나서 처음으로 보듯이 희한한 눈으로 굽어보았다. 얼음밑에서 모래와 함께 흐르는 강물이 마치 살아 숨쉬는 존재인양 때

안일때 찾아온 나를 알아보고 은근히 속삭여 반기는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강바닥에 깔린채 수천년을 버림받아온 이 모래야말로 이제 보물이나 다름없이 쓰일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짜장 보물이었다.

나는 논바닥 모래를 실어나르는 수백대의 자동차들이 써버리는 막대한 량의 연유와 그것을 사오는데 들인 외화를 상상해보았다. 이제 내 손에 의해 이 모래들이 그 외화를 대신할것이어늘 어찌 그것이 과장된 생각이라 하겠는가.

얼음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나는 소매를 거두고 어이든듯한 물속에 두손을 넣고 소중히 바닥의 모래를 퍼올리었다. 젖은 모래의 무게가 그대로 사금의 무게라도 되는듯 묵직하게 느껴졌다. 실로 이 순간 나는 룡북천의 막모래를 보석으로 환생시킨 기적의 마술사라도 된것만 같이 자신의 존재마저 신비하게 생각되었다.

어머니고향의 젓줄기, 룡북천에서 자란 내간아니고 누가 과연 룡북천모래의 가치를 알아보며 룡북천을 내놓고 누가 이 순간의 나의 환희와 감격을 알아줄것인가.

나는 두손에 모래를 그냥 든채 산등성이에 치달아올라 봉사벌을 향해 뿌려던지며 웨치고싶었다.

《자, 받으라. 봉사벌아! 룡북천이 보내는 선물이다. 룡천에서 자란 아들의 인사를 받아다오.》

격정에 사로잡힌 나는 이 시각의 감격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안타까움에 시달렸다. 말없는 산천만이 나를 굽어보고있었다. 아마 이때 나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던들 얼이 나간 사람이 아닌가 놀랐을것이다.

나는 다시 흰눈판우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으며 되짚어 산과 어지간히 거리를 두고 달리기 시작했다. 평지에서 보는 시점으로 보다 합당한 수송관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예비안과 복선은 설계가의 창조에서 불가결의 요소인것이다.

자신의 《희재》에 도취되어 거의 열광에 이른 나는 산과 가상적인 수송관의 위치를 가늠하느라 거의 발밑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달리다싶이하였다. 마치나 그것은 하늘에 띄운 제 연에 홀리어 연줄을 잡고 달리는 아이와 꼭 같았다. 그렇게 흰 눈판우로 마음놓고 달려가던 나는 갑자기 발밑이 와지끈 꺼지면서 몸이 기울어지는바람에 중심을 잃고 허양 찬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행히 머리까지 잠기지 않은채 몸을 지탱해내었다. 첫순간에는 위험보다는 철긋게 놀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는 허구픈 생각이였다. 그런데 발이 빠진 감탕이 흐물흐물한것이 바닥이 짙이지 않고 대증없이 밑으로 빠져들어가는것이였다.

그제야 나는 목은 니란구덩이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공교롭기짝이 없었다. 인적이 드문곳이기

도 하려니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기도 뭇한 노릇이었다. 칼날같은 찬물이 온몸을 얼거여 금시 심잠이 멎을것만 같았다. 전류처럼 지나간 오한이 체온을 걷어가고 온몸이 그대로 뻗뻗해왔다. 무엇보다 발을 움직일수 없는것이 난사였다. 내 짊으려고 움직거리기만 하면 그냥 밑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런데 가만 있는다고 안빠지는것도 아니다.

어처구니없던 생각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어쭙잖은 줄경이 사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야릇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필사적으로 감탕에 빠진 발을 뽑고 개발해염을 칠 때처럼 물장구를 쳤다. 뻗뻗한 몸이 뜨면서 얼음장과 수렁이 되었다. 얼음에 손톱을 박듯 악을 쓰고 기여오르면 얇은 얼음이 맥없이 꺼져 내려갔다. 그렇게 몇번을 신고 해서야 겨우 몸을 돌린 나는 손이 미치는 마른 풀끄덩이를 잡고 가까스로 땅우에 기여오를수 있었다.

나의 물결은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기에서 벗어난 기쁨에 그런것쯤 개의할바가 아니었다. 나는 되돌아 동복을 향해 뛰어갔다. 폭을 넘어선 나는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동쪽밀 강바닥을 따라 철교쪽으로 울리뛰었다.

누가 보더라도 하면 망신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물론 마음속은 뭉텅해졌다.

누가 과연 겨울에 물참뵈이 되게 한 숨은 사연을 알것이라.

## 8

동태귀신처럼 된 내가 뛰어들었을 때 어머니의 놀라움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것은 과히 상상할만한 일이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묻지도 않고 응급조치에 달라붙었다.

마른옷을 갈아입힌다, 이불을 씌워준다, 술을 부어준다, 바빠 돌아갔다. 그리고 폭 땀을 내라고 한다음 부엌에 내려가 불을 때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가 맞쏘이는 오한속에서도 연필과 종이를 찾았다. 머리속에 생각해둔것을 초안을 잡아두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는것이다.

미친듯이 일을 끝내자 안도감에 잠긴 나는 아까부터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는 어머니에게 《이것때문에 액땀을 했습니다.》 하고 우스개말을 한 다음 오한때문에 이그러진 얼굴에 강잉히 미소를 지어보이고 이불을 들켰다.

어느덧 술기운으로 깊은 잠에 떨어졌던 나는 언제쯤 되었는지 숨이 답답하여 깨어났다. 이불속에서 땀주머니가 된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불을 들치자 정지에 그냥 불이 켜져있었다. 어지럼증이 나는 눈을 두리번거리던 나는 눈이 둥그래졌다.

언제 빨아넣었는지 여기저기에 옷가지들이 주

런이 걸리고 가마우에 덮은 옷에서도 김이 피여 오르는데 그앞에 어머니가 마주앉아 말뚝잠을 자고있는것이였다. 나는 전류에 닿은듯 굳어졌다.

괴이한 치닥거리로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일이 가슴에 마쳐왔다. 이처럼 철곳은 일로 한생 어머니를 고생시켜온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당한 봉변이 엄밀한 의미에서 어머니로 하여 일어난것이라 생각할 때 어머니의 고생 역시 자기 성미를 닮은 아들을 낳은탓으로 겪는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고 어머니와 나는 신통히도 닮은것이다.

갑자기 어머니가 소스라쳐 깨듯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렸다.

《별 꿈도 다 있구나.》

나를 본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쉬듯 중얼거리며 눈을 비비었다.

《꿈이라니요?》

《앙이 글썽 자네가 뒤늘에 빠졌다고 하는데 내힘으로 건져내는수가 있어야지. 감탕판에서 같이 빠져 버둥질하다가 깨였구마. 꿈도 원... 쫓쫓.》

몸서리치듯 도리를 뻗 어머니는

《전에 자네가 하천바닥에서 죽을뻔했을 때 이렇더니.》

하고 뒤를 달았다.

《언제요?》

《전쟁때 물건너 밭에서 콩을 심구오다 썩썩기를 만난 일 말이우.》

어머니는 어제 있는 일인듯 상기시켰다.

그제야 언뜻 떠오르는 추억이 있었다.

내가 군대에 나가던 그해 가을 어느날이였다.

그날 어머니와 나는 오촌아저씨네 소달구지를 빌려가지고 날이 푸름해서 물건너 밭으로 콩심을러 갔다.

항공때문에 서둘러 한달구지 싣고 떠난 나는 하천뚝을 넘어 랭기가 선뜻한 강물에 들어섰다. 소가 건너차는 찬물에 바지가 젖는것도 아랑곳없이 나는 멍에채에 매달려 소를 끌었다. 어른 같으면 겨드랑이에 끼기 안성맞춤인 멍에가 나에게 는 어깨높이나 되었던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간 초조하지 않았다. 항공때문에 조마조마한데다 물가운데서 소가 맥을 놓고 서는 날에는 오도가도 못하고 혼자서 야단이였다.

해뜨기전에 서두느라고 했건만 바다쪽 하늘이 별거우리 동터올라 사위가 흰하였다. 아침 정적이 깃든 넓은 하천바닥에 움직이는것은 나와 달구지 뿐이였다.

별일없이 물을 건넜다. 한시름 넘긴 기쁨으로 하여 나는 아래도리가 젖은 추위도 잊고 모래밭에 패인 달구지길로 기세좋게 소를 돌았다. 눈앞에 한발두발 저쪽 뚝이 다가왔다. 그렇게 모래

불 한가운데 왔을 때였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앙칼진 금속성이 귀청을 찢으며 무섭게 울리었다. 눈을 쳐든 순간 앞에선 석대의 썩썩기가 이미 지나고 두번째 편대가 머리우 하늘을 썰고있었다. 불의에 기습을 노린 놈들은 도적고양이처럼 강바닥을 활듯 낮게 붙어 날아든것이였다.

나는 등골에 오싹 소름이 끼치며 간이 콩알만해 졌다. 비행기배때기에 똑똑히 보이는 까만 구멍으로 훔쳐한 비행사의 우렁눈이 나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백사장에 소고삐를 잡은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나는 독수리의 먹이처럼 난뜩 내맡겨진 고립무원한 처지가 어찌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운지 몰랐다. 부풀게 실은 달구지가 영악없이 놈들의 목표물이 될수 있었다.

소달구지를 버리고 혼자 뿔수도 없었다.

그저 소가 움직이지 않게 고삐를 잡고 달구지 밑에 숨어 요행을 바라는수밖에 없었다. 예측한 바대로 놈들은 가철교를 공습하기 시작하였다.

엇돌아가며 다리에 폭탄을 떨어 놈들은 다시 선회하여 나의 머리우에 와서 내리쏘이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고도를 잡느라 속도를 늦춘 놈들의 눈에 달구지가 띄여 곧장 내 머리우로 달려들어 폭탄을 떨어뜨릴 것만 같아 뒤덜미에 지렁이가 기어가는것처럼 느껴졌다. 놈들이 가철교라는 큰 먹이에 눈이 어두워서 달구지를 미처 못보았는지 두돌기, 세돌기 무사히 넘기였다. 어느덧 안도감이 생겨 담이 커진 나는 달구지밑에 숨은채 비행기배때기에서 떨어진 파리똥만한 까만 반점이 손살같이 내려와 점점 확대되다가 다리어방에 박혀 불기둥을 솟구쳐올리는 광경을 가슴을 조이며 바라보았다.

거의가 물기둥, 모래기둥이 솟는 헛방인데 간혹 먼바로 맞아 포연속에 날아나는 나무지적개비가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렇게 명중될 때마다 나는 제 살점이 찢겨나가는것만 같이 얼굴이 이그러져 가증스러운 적기를 노려보았다. 폭탄에 맞아 무참히 파괴되는 가철교를 바라보던 나는 어느덧 자신의 위험은 거의 잊고 두주먹을 부르짖채 이를 갈았다. 그렇게 알미운 적기를 쏘아보며 원심을 쓰던 나는 뜻밖의 소리에 아연하여 벌떡 달구지밑에서 나와 버티고 섰다. 머리우에 살기쁜 비행기가 아즈러운 소리를 지르며 날치는 속에 언제 나타났는지 금방 강물을 건는 어머니가 두팔을 쳐들어 흔들며 무엇이라 웨치며 달려오고있었다.

《어머니! 오지 말고 그자리에 었디랴요!》

안타까이 손짓하며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어머니는 그냥 달려오며 하늘에 대고 소리쳤다. 《이놈들아, 이건 콩달구지다. 내 아들을 못다 친다!》

그야말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항거였다.

《어머니! 었디라는데두요!》

민망해난 나는 울가망이 되어 소리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화락하니 젖은 치마자락의 물방울을 모래불에 뿌리며 정신없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창건야! 날래 달구지밑에 었디거라!》

떡심이 풀린 나는 아무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있었다. 숨이 턱에 닿게 달려온 어머니는 무작정 나를 얼싸안고 달구지밑에 누르고 었디었다. 어머니의 세찬 심장의 고동이 그대로 나의 잔등에 미쳐왔다.

《에그, 내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가쁜 숨소리속에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신원질을 했다.

《내 어째서 너를 혼자 떠나보내놓구.》

어느덧 갈개던 적기들이 사라지고 강반에 아침의 고요가 다시 깃들었다. 가철교상공에 서린 포연이 방금전의 살벌했던 광경을 말해줄뿐 소는 태연히 느침을 흘리며 천천히 새김질을 하고있었다.

《에그, 무슨 죄를 저서 이런 액땀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달구지밑에서 나온 어머니가 가슴에 한손을 얹고 꾸념하듯 되뇌었다. 온몸의 맥이 풀린듯 어깨가 처지고 입술이 마른 어머니는 갑자기 늙고 체소해진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독수리같은 놈들의 마수에서 나를 지켜 구원하러 뛰여든 성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에서 눈을 땔수가 없었다.

바로 우리 집 부엌문에 함포가 터져 폭풍이 방공호안으로 흩먼지를 휘몰아들었을 때에도 어머니는 오늘처럼 안쪽에 앉힌 나를 덮쳐안고 감싸주었던것이다.

《자, 빨리 가자. 또 무슨 일이 있겠는지.》

어머니는 겁에 질린듯 재촉하며 달구지밑을 붙잡았다.

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시근해진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였다. 달구지가 움직이자 젖은 치마밑의 비칠거리는 다리가 그것을 말해주었다. 앞에서 고삐를 잡고 가던 나는 못볼것을 본것처럼 고개를 돌리었다.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기차기두, 그 땀을 씻소. 쫓쫓.》

나의 심정은 아랑곳없이 수건을 내민 어머니가 혀를 찼다.

땀을 닦는 나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열은 좀 낮소?》

하고 나의 이마를 짚어보려고 하였다.

나는 일없다면 머리를 피했다. 그러면서도 가슴이 몽클해났다.

아마도 어머니는 내 머리말에 지키고 앉아 이불을 들 쓴 내 머리를 짚어보았을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무슨 일루 아이처럼 개별에 빠져가지구. 쫓쫓. 거기에 두엄을 내느라 구멍이가 얼마나 생겼

다구.》

어머니는 내가 니탄구멍이에 빠진것을 보기도  
도 한것처럼 말했다.

아마도 어머니는 감탕투성이 옷을 손질하면서  
내가 어디에 빠진것을 짐작한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끔찍한 생각을 금치 못해 꿈에서까지 몸  
서리 치며 가위눌린것이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봉변을 당하게 된 사유를 터  
놓지 않을수 없었다.

《앙이 모래를 넘긴다는게 정말이우?》

내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어머니는 내 손을 잡  
고 환성을 올렸다.

《어머니, 뽕프를 갓 박았을 때 물과 함께 모  
래가 섞어나오지 않습니까. 것처럼 물과 모래를  
양수뽕프로 빨아올리면 아무리 높은데라도 넘길  
수 있단 말입니다. 땅속의 모래를 뽕아올리는데  
얕은 강바닥의 모래가 다 뽕니까?》

《앙이, 그렇게 되문사 얼마나 좋을가?》

아이처럼 혀를 내밀고 감탄하는 어머니에게서  
나는 담장에 숨어 비둘기떼를 보겠다고 머리를  
내밀던 천진한 모습을 다시 보는것 같았다.

《글쎄 그런 궁리를 하느라구 쫓쫓.》

어머니는 기쁜마음을 걸잡지 못해 가마우의 내  
복을 피루고 뒤집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놀란것은 그것보다도 어머니가 나  
의 《발견》이 자신의 말에서 시사를 받아 생겨난  
것이라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있는 그점이었다.

하다못해 어머니는

《글쎄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고 한마디 맛장구를 칠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저 내 머리가 총명해서 그런 생각을  
해낸것처럼 감탄해마지 않을뿐이다.

나는 너무나도 소박한 어머니앞에서 스스로 자  
신의 《발견》에 도취되어 열에 뒹던 일을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었다. 쑥스럽고 창피해났다.

얼마나 희뽕게 덤뽕으면 얼음구멍이에 빠지기  
까지 하였겠는가.

그러자 나는 오늘의 일을 놓고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고있는 엄격한 계선과 차이를 찾아보지 않  
을수 없었다.

이제껏 내가 어머니를 닮았노라고 믿어왔지만  
실은 그런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로 말하면 이 땅의 자연처럼 지극히 천  
연하고 소박하였다. 하기에 이 땅에 대한 어머니  
의 사랑 역시 너무나 소박하여 애당초 시위되지  
나, 표가 날줄 모른다. 하지만 눈덮인 밭을 뽕는  
다고 야단치는 어머니의 지칭구속에, 뽕프장을  
가보라고 극성을 부린 고집속에, 호각을 가지고  
학교비둘기와 친해보려는 엉뚱한 시도속에, 조상  
에 대한 숭상속에 과연 이 땅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사랑이 어머니로 하여금 함포란의 불  
비속에 뛰어들어 가철교를 지키게 하였으며 그

사랑이 기름진 밭을 파헤치는 안타까운 호소가  
되어 나의 지식을 계발하여 《모래수송관》이라는  
희한한 착안이 떠오르도록 한것이였다.

그리고보면 내 리력문건 표창란에 늘 적어넣곤  
하는 조국해방전쟁기념메달에 어찌 어머니의 공  
로가 깃들어있지 않다고 볼수 있으며, 이 땅에  
새로운 전변을 가져온 야금기지의 뽕프장에 어찌  
어머니의 위훈이 깔려있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 땅을 위해 바치는 어머니의 위훈과  
공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스스로 그것을 모르거  
니와 남의 눈에 뽕줄을 모른다.

하기에 친아들인 나조차 오늘에야 비로소 그것  
을 깨닫고 놀라마지 않는것이 아니겠는가.

불현듯 나는 나의 앞에 소박한 어머니가 아니  
라 아득히 우러러보이는 스승을 마주한것 같은  
경건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처음으로 찾아본 어머니의 참모습앞에서 나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속되게 보이는지 몰랐다.  
지금에야 비로소 나는 이제껏 내가 가슴에 묻어  
두고 모대기고 조바심쳐온 과학적 야심이 실은  
땅에 밭을 붙이지 못한 고당적이고 허망한것이였  
다는것을 현상된 렌트겐필름을 보듯 톱톡히 들어  
다보게 되는것이였다.

세상에 무엇인가 남기려는 큰 포부라는 허울속  
에 실은 제이름을 남기려는 공명에 대한 허영을  
숨겨온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병집이 속깊이 도사리고있었기에 이제  
껏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해 남을 위한 희생처럼  
아쉬움을 느끼였고 남들의 성과를 시위하는 발명  
전시회를 참관하면서도 기쁨을 나눌대신 패배감  
에 몰려 참담하게 몰려간것이였다. 그리고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이 옛자취가 사라져가는  
전변된 고향에 와서 일시나마 회의감에 잠겨 허  
무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든것이였다.

그래 사회와 력사의 거창한 격류속에서 나라는  
한 개인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며 자신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얼마나 비루하고 가소로운것인가.

공명이란 허영심처럼 한계를 모르는 허망한것  
이며 또한 그것을 바라는자에게 력사는 언제나  
등을 돌려왔음을 보여주고있지 않는가.

결국 나라는 소인은 크나 작으나 공명이란 고  
무풍선에 매달려 허공에 떠있은것이였다.

이 땅을 딛고 살면서도 이땅을 떠난것이이다.

만일 내가 좀더 일찌기 자기기만의 허울을 벗  
어던지고 어머니처럼 그런 순후한 마음으로 이  
땅에 밭을 붙이고 생활과 과학을 대하였던들 나  
는 벌써 현실이 요구하는 수많은 가치있는 착안  
과 발명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을것이 아닌  
가.

회오에 잠긴 나는 어머니로 하여 착안하게 된  
《모래수송관》을 완성함으로써 인생의 새 출발점  
으로 삼으리라는 촉급한 마음에 시달리였다.

그것은 반드시 성공될것이다. 이 땅에 뿌리박

고 살아온 어머니의 소박한 념원이 실현되지 않을리가 없는것이다.

## 9

《모래수송관》 발기는 그야말로 폭약심지에 불을 달듯 지극히 조용하고도 간단히 끝났다.

식구들과 함께 역에 나온 나는 공중전화로 야금기지건설사업소 기술부를 찾아 《룡북천 모래수송관》과 관련한 나의 착상을 간단히 전달하였다.

예기했던바대로 상대방의 반응은 놀라운것이였다. 놀아지는 숨소리와 함께 《예! 예!》 하고 대답하던 상대방은 《여보시오. 동무 누구십니까? 어디서 일합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수화기를 놓지 마시오.》 하고 다급히 소리쳤다.

나는 그쯤반응으로도 나의 제기가 어떻게 접수되었으며 어떤 편쇄반응이 일어나겠는가 하는것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았다. 나는 설계초안과 설명을 기록한 편지봉투를 역에 있는 우편통에 집어넣었다.

렬차에 오른 뒤에도 나의 귀에는 내가 누구며 어디서 일하느냐고 다급히 묻던 수화기의 여운이 떠나지 않고 쟁쟁히 울리였다.

나의 눈에는 기술집단의 협의회가 열리고 설계를 다그치고 측량기를 든 현지조사반이 움직였다.

룡북천모래수송관 건설을 위해 무어진 돌격대 켈기모임이 선히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켈기한 그 공사가 엉뚱하고 피백스러운 두 모자에 의하여 벌어지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것이다.

출발역을 떠난 렬차는 차츰 우리 마을에 다가들고있었다.

발밑에서 레루의 이음짚을 넘는 차바퀴소리가 박자를 가하듯 단속적으로 울린다. 그 박자에 맞춰 심장의 박동이 약동적으로 켜진다.

나는 올 때의 자격지심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청춘을 되찾은듯 소생의 활력에 넘쳐있었다.

어머니를 모셔가려다가 어머니에게서 도리어 크나큰것을 받아안고 가는 나였다.

하긴 얼어붙은 개벌의 감탕미역은 고향땅이 나로 하여금 자기를 낳은 땅을 알라고 깨우치기 위해 장난궂게 불안아준것이 아닐가. 그렇다, 대지의 포옹, 아무리 엉뚱한 환상일지라도 여기에는 진실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한가지 유감은 유정한 고향땅을 어둠속에 지나는것이였다.

안타까웠다. 건늬길에 어머니가 나와계실텐데 알아보지 못할것 같다.

이번만은 어떻게 하나 어머니와 뜻깊은 작별을 나누고싶은 간절한 심정이였다.

금방 룡포를 지난 렬차가 룡천벌에 들어섰다. 승강대에 나선 나는 주저없이 문을 열었다. 세찬 바람이 나를 불어내칠듯 휩쓸어들었다. 질주하는 어둠속에 일직선을 긋고 지나가는 희끄무레한 그림자들, 초를 세며 전주대그림자가 휘휘 지나친다. 그속에 낮은 건늬길이 다가왔다. 우리 집 굴뚝머리 줄당콩대고깔은 불념도 할수 없다.

순간 희끗 다가서다가 환영처럼 지나치는 그림자.

《어머니!》

어둠이 삼켜버린 나의 고함소리. 어머니를 보았던지 말았던지 눈결에 지나쳤다.

하지만 눈앞에는 기차의 질풍에 속절없이 흘날리는 머리칼과 옷고름, 치마자락이 펄럭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창대처럼 비낀 비발속에도 변함없이 오도카니 지켜선 건늬길의 어머니의 그 모습은 전쟁의 검은 구름이 이 땅에 드리웠던 눈보라치는 그 밤 기차를 따라 숨가쁘게 달려오며 떡보자기를 넘겨주던 어머니의 모습과 하나로 응결되어 거룩한 형상으로 가슴속 깊은곳에 새겨졌다.

발밑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렬차가 철다리에 들어선것이다. 나는 그 우렁찬 굉음이 어머니대지와 하나로 융합된 나의 심장의 증폭된 동음인양 장쾌하게 들리였다.

아무리 성미가 고집스럽고 피백하다 하여도 어머니를 닮은것으로 나는 이 땅과 한덩어리가 된것이 아니겠는가.

다리를 지나자 갑자기 진동소리가 약해진 반면에 차바퀴의 또렷한 소리와 함께 렬차의 속도가 빨라진것처럼 생각되였다.

속력을 가한듯 내닫는 기차와 더불어 날개돋힌 나의 상념속에 우거진 줄당콩넝쿨에 아롱진 닭의 볏 모양의 꽃들과 함께 줄당콩의 알록무늬같은 비둘기들이 깃을 치며 창공에 날아에는 정경이 선히 떠올랐다.

이 땅에 생은 영속될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생을 받고 태어나 삶을 누린다는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며 행복인가. 내 어머니처럼 이 땅을 위해 살다 한줌 흙이 된들 무엇을 더 바랄것인가.

굉음이여 달리라. 이 땅의 앞날은 또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것인가.

나는 어둠속을 돌진하는 기차속에서 격정에 넘쳐 부르짖었다.

## 힘에 대한 이야기

한웅빈

《동무는 력학을 잘 압니까?》

하는 뜻밖의 물음에 나는 인차 대답을 못했다.

력학이라... 전혀 배우지 못한것은 아니지만 내가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와 력학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내가 들으려는 이야기는 건설장적인 난문제로 나섰던 채양트라스 시공에 대한것이였다. 채양트라스들은 그냥은 들어올릴수 없는 물건들이였다.

길이가 100미터를 넘었고 스무톤에 달했던것이다. 트라스를 자르던가, 새로운 기중기를 가져오던가 해야 했는데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1년 가까이 걸려야 했다. 트라스는 자그만치 200에 달했던것이다. 그런데 건설자들은 그것을 단 두달 동안에 죄다 올려놓았고 지붕공사를 마무리해치웠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그런데 일군은 그 이야기대신 력학을 얼마나 아는지 물어온것이였다. 그것으로 얼마나 복잡한 공법이였는가를 암시하려는것인지...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일군은 자기 물음의 효과에 만족한듯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책상우에 길다란 자막대기를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이건 트라스입니다. 100미터가 넘는 스무톤 짜리 트라스지요. 그리고 기중기는 여기에 서있습니다.》

그는 자막대기의 한쪽끝에 《광명잉크》병을 끌어다 세워놓았다.

《이 〈기중기〉로 이 〈트라스〉를 들어올려야 합니다. 트라스란 골조조립이 끝난 다음에야 올리는것이다보니 공간적 제한성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는 노트들과 채털이 등 책상우에 물건들을 끌어다 《기중기》와 《트라스》앞에 성벽처럼 늘어세웠다. 이를테면 《골조》였다.

《기중기는 〈여기〉에서 트라스를 들어야 했는데 트라스는 또한 〈여기〉밖에 놓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중기〉의 작업반경은 기껏해야 30미터 내외입니다. 100미터가 넘는 트라스의 중심을 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까?》

《보조팔을 쓰면 안되는가요?》

나도 건설물체를 그쯤은 알고있었다. 그러자 일군은 지체없이 반박했다.

《그러면 권양능력이 절반이나 떨어지는데 두요?》

나는 생각을 더듬었다.

《그럼 트라스를 잘라서 올렸는가요?》

《비슷합니다!》

일군은 만족해하였다.

《그렇게 할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트라스를 자르지도 않고 보조팔을 쓰지도 않고 들어올렸습니다. 새 기중기를 가져오지도 않구요, 어떻게 했을것 같습니까?》

《...》

이것이야말로 날개없이 어떻게 날았겠는가 하는 식의 수수께끼였다.

트라스를 자르지도 않고 기중기를 보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기중기로 그 트라스를 들어올릴수 있었을것인가. 무슨 힘으로?...

나는 책상우에 늘어선 《광명잉크》병과 노트들, 채털이, 자막대기의 피이한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나의 《취재수첩》과 만년필도 그속에서 한몫하고 있었다. 일군은 대답을 기다리는듯 나를 건너다 보고있었다. 나는 그만 웃고말았다.

《이거 주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취재하는지 알수 없게 되어버린것이었다.

《허허.》

그 일군도 우스워진듯 크게 웃으며 채털이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반원형을 이루고있던 《견고한》 성벽에는 돌과구가 생겼다.

《우리 려단에 천만억이라고 하는 기술대장과 리박윤이라고 하는 시공과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트라스〉를 들어올렸지요. 이름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천만억대대장의 이름은 여기 온 첫날에 벌써 모든 사람들에게 죄다 알려졌다. 광복거리에 오기 전에 벌써 여러 건설대상들에서 소문을 낸 연

공이라는 사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름이 류달라서였다.

《천만억이라니? 수자로 꼭 찾구만!》 하고 사람들은 말했다. 재미있는 말을 좋아하는 처녀들은 《이 세상의 큰 수자들을 죄다 가져다 만든 이름》이라고들 했다.

그리고 보면 천만억이란 문자 그대로 무한대로 향한 자연수열의 한 토막임에 틀림없었다. 우리 조선사람들의 이름이 두자나 석자였기 망정이지 유럽사람들처럼 여라문자씩 되었다라면 조나경... 그 이상 올라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천만억대대장은 그 말을 전해들었을 때 (물론 처녀들이 대주었다. 《대대장아바이 보고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제일 큰 수자들로 이름을 지었대요》 하고 그들은 순진한척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말은 자기들이 만들어놓고도...) 이마를 찌프렸다.

《제일 큰 수자들이라구? 그보다 더 큰 수자들은 없나?》

그가 성을 내지 않는데 용기가 난 처녀들은 입을 모아 떠들어댔다.

《제일 큰 수자들이예요! 천! 만! 억! 대대장아바인 욕심꾸러기예요. 일에서도, 이름에서도!》

천만억대대장은 처녀들을 물끄러미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렇다고 해두지.》

며칠후에는 천만억대대장이 자기 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부모들은 열까지도 겨우 세는 사람들이었으며 아버지의 만득이라는 이름과 어머니의 부엌녀라는 이름에서 한자씩 따서 천만억이 되었다던지 하는 소문이었다. ...

그런데 얼마후 처녀들은 천만억대대장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아바이! 대대장아바이! 우리 건설장에 아바이처럼 욕심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새로 온 시공과장동지 말이에요!》

천만억대대장은 담배를 입에 문채 연기를 풀썩 풀썩 내뿜었다.

《그 사람 이름은 백천만이라도 되나?》

《아니, 아니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성을 다 가져다 자기 이름을 만들었어요!》

《성을?》

처녀들은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내는데는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있다.

《리! 박! 윤! 옳지요?》

《리박윤?》

처녀들은 까르르 웃었다.

천만억대대장의 입에서 담배가 툭툭 떨어졌다.

《재미있지요?》

천만억대대장은 땅에 떨어진 담배를 내려다보다가 커다란 발로 꼭 밟았다.

《옛날에... 전후복구건설때 작업반에 리박윤이라고있었는데...》

《어마나-!》

처녀들은 다투어가며 리박윤과장에 대하여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치기 시작했다. 키는 보통키인데 턱이 뾰족하고 (반장아바이완 반대예요!) 담배를 피울 때면 불이 불룩해지도록 입김을 한번 내불고야 불을 붙인다는것, (뭐, 먼지가 있을가봐 그런다나요. 담배안에!) 코가 별로 뾰족하다는것, 입술우에 팔알만한 기미가 있다는것...

천만억대대장이 불쑥 그들의 말허리를 끊었다.

《지금 어데 있더냐?》

《저-기 3대대 현장에 있어요!》

《그래?》

천만억대대장은 더 묻지 않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우리도 가보자!》

처녀들은 몇발자국뒤에서 병아리떼처럼 따라갔다.

《아이, 왜 저렇게 천천히 갈까?》

《또 담배를 피워문다 애.》

《아유 안타까워!》

그들은 두 옛친구의 상봉을 어서 빨리 보고 싶어 살이 내릴 지경이었다. 전후복구건설때라니까 그게 얼마야?...30년도 더 되지 뭐... 서로 막 그러안고 잔등을 두드려댈거야. 영화에서처럼... 울기도 할가... 울기까지야 뭐. 남자들이...아니 울거야. 이런 때 흘리라고 눈물도 있는거지 뭐...

드디어 두사람이 마주섰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뚫어지게 마주보기만 할뿐 손을 잡지도 않았고 인사를 나누지도 않았다. 잠시후 리박윤과장이 겨우 짜내듯이 한마디 했을뿐이었다.

《천만억... 당신이?!》

그러자 천만억대대장은 대답대신 획 돌아서버렸다. 자기 작업장에 이르도록 그는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고 철근통구리에 털썩 주저앉아서야 한마디 길게 탄식했을뿐이었다.

《세상이 이렇게도 좁은가?》

《아니?!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글쎄말입니다.》

그 일군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인간생활이 복잡하다는거겠지요. 천 대만상이고...》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나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즐기는 사람같았다. ...

그 이상한 상봉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건설장에 퍼졌다.

누구나 그 내용을 알고싶어했으나 천만억대대장의 입은 열수 없었다.

지휘일군들도 그 상봉에 관심을 돌렸다. 시공과장과 기술대대장의 마음이 잘 맞아야 공사성과를 기대할수 있기때문이었다. 두사람이 다 건설에서 이름있는 명수들이기는 하지만 서로 마주서면 낯끝에 돌이 부딪친격으로 될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었다.

50 메터 콘크리트기둥을 세우는 문제로 협의회를 할 때 천만억대대장은 리박윤과장이 내놓은 공법에 고집스런 침묵으로 대답했던것이다. 기술대대장이 쓰다달다 말이 없으니 협의회는 결속될수 없었다. 그는 발치만 노려보고있었다.

참모장이 참다못해 따지고 들었다.

《대대장동문 왜 말이 없소?》

천만억은 머리를 들었으나 리박윤의 눈길과 부딪치자 옆으로 돌려버렸다.

《될것 같으면 지시를 내리시구려.》

참모장은 화를 냈다.

《무슨 대답이 그렇소?》

《대답을 꼭 들어야겠소다?》

《?》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리박윤과장이 내놓은 공법대로 콘크리트기둥세울 준비를 하고있는 천만억대대장을 보게 되었다. ...

그런 일은 한번, 두번, 드물지 않게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마침내 리박윤과장의 제안에 천만억대대장이 침묵을 지키면 긍정하는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시공과지도원은 리박윤과장이 말한다음 10 초동안 침묵이 계속되면 안도의 숨을 쉬어도 된다고까지 말했다. 그것은 탑식기중기를 세운 다음에 나온 말이였다. ...

본격적인 골조조립에 들어서면서 탑식기중기 다섯대를 빠른 시일안에 일으켜세울 과업이 나섰었다. 한대를 조립하는데는 한주일이 걸리게 되어있었다. 다섯대면 35 일, 그러나 공사는 당장

탑식기중기를 요구하고있었다.

사람들은 그때도 리박윤과 천만억의 얼굴부터 쳐다보았다.

리박윤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새공법을 도입함으로써 한주일을 닷새로 앞당겼다.

그의 빠른 터지며 정기도는 두눈은 명민한 두뇌를 그대로 보여주는것 같았다.

그러나 천만억대대장에게는 그 특징이 오히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듯했다. 힐끗 바라보고는 외면해버렸던것이다.

《한대에 닷새씩 걸리면 다섯대에 며칠이요? 한주일이나 닷새나 도토리 키대보기지!》

리박윤과장은 당황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럼...》

천만억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루에 한대씩 세우자는거요!》

《하루에 한대?!》

《팔까지 다 붙여서 통채로 세우면 되지 않소?》

《뭐요?》

탑식기중기를 세울 때면 의례히 팔을 보주로 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동체를 세우고 다음에 팔을 올려 붙인다. 그런데 천만억은 팔까지 죄다 조립하여 세우겠다는것이였다.

《그럼 보주는 없이 하겠단 말이요?》

리박윤과장의 물음에 천만억대대장은 창박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문형기중기가 있지 않소?》

현장에는 기초작업과 낮은 단계의 골조조립을 하는데 쓰는 작은 문형기중기가 있었다.

문형기중기를 내다본 리박윤과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안되오! 문형기중기까지 넘어뜨릴려고 그러오?》

사실 시공과장이 우려할만도 했다. 아직은 그 문형기중기가 현장에서 유일한 기중기였던것이 다.

천만억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책임은 내가 지겠소!》

《책임은 대대장만 지는게 아니요!》

천만억이 그에게로 돌아섰다.

《무섭소?》

리박윤의 얼굴이 눈보다 더 하얗졌다. 천만억의 눈에 비친 혐오와 멸시가 너무도 강력했기때문이었다.

협의회는 리더장이 책상을 두드려서야 수습되

였다.

리박윤과장은 그 시공지도서에는 절대로 수표 할수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그러자 천만억은 한동안 그를 노려보더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 리박윤이라는 사람의!》

하고 내뱉고는 나가버렸다....

기술대대의 연공반에 봉남이라는 애송이가 있었다.

협의회가 있는 날 밤, 그는 누워있는 기중기동체에 걸터앉아 담배만 연신 피워대는 천만억대대장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대대장아바이, 과장동지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협의회를 했지.》

《아-니 그것말구, 그전 -옛날에 말이예요.》

《옛날?》

천만억은 그에게 눈을 흘겼다.

《네가 세상에 나오기도전에 일은 알아서 뭘해?》

《옛날에 같이 일했다지요? 전 후복구건설때...》

봉남은 지못게 물었다. 그는 자기네 대대장을 존경하는만큼 시공과장도 존경했다. 그런데 두사람이 상극이다보니 시공과장과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대대장의 눈치를 살피게 되곤했다. 이것이 그는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용을 알아내어 두사람을 화해시키려는 엉큼한 궁리를 했던것이다.

《한작업반에서 일했다지요?》

《일했지.》

《그런데요?》

《같이 일했다니까!》

《거야 누가 모르나요?》

천만억대대장은 화를 냈다.

《쓸데 없는걸 묻지 말구 썩 물러가! 그따위질 물을사이가 있으면 기중기조립준비나 해! 방에 들어가 코박고 자든가.》

《쳇!》

봉남은 불이 부어서 투덜거렸다.

《시공과장이 못한다는데 준빌 해선 뭘해요?》

《뭘라구?》

천만억대대장은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못한다면 안할 작정이야?》

이쯤되면 여느 사람들은 일찌감치 물러서곤했다. 그러나 봉남은 아직 애송이여서 범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였다.

《시공과장수표없이 어떻게 한단 말이예요?》

《뭘?》

천만억대대장은 집어삼킬듯이 그를 노려보았으나 대상할나위없는 애송이라는데 생각이 미친듯 눈길을 돌려버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한다고 했으면 하는거야! 수표를 안하고는 못건더!》

《?!》

《하지 않았اذ간...》

봉남은 비슬비슬 물러섰다. 음울하고 거칠은 음성, 사나운 눈빛, 그 모든것은 마치 《하지 않으면 대동강물에 처넣고 말테다!》 하고 말하는듯했다.

그날밤 봉남은 꿈자리가 사나와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한다. 꿈에서 그는 천만억대대장이 리박윤과장을 냉큼 들어 대동강물에 집어던지는것을 보았다. 리박윤과장은 기슭으로 나오려고 분주히 푸푸거리며 헤엄을 쳐대는데 그의 뺨쪽한 턱이 배이물처럼 물을 가르고있었다....

이튿날 아침, 봉남은 슬며시 빠져나와 시공과문앞으로 갔다. 무슨 일이 생길것 같은 우려때문이었다.

그러던 그가 잠시후에는 소리소리 지르며 천만억대대장에게로 달려왔다.

《대대장아바이, 과장동지가 수표를 했어요!》

《그래?》

천만억대대장은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덤덤한 얼굴로 시공지도서를 받으며 뭘라고 웅얼거렸다.

그것이 봉남에게는 《대동강물에 목욕할 신세는 면했군!》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대대장아바이! 과장동진 밤을 꼬박 새웠대요.》

봉남은 시공과장을 변호하기에 분주했다.

《문형기중기에만도 세번, 아니, 네번씩이나 나 가보구, 온밤 계산하구, 도면을 그렸대요. 그리구 또...》

《됐다!》

천만억대대장은 그에게 잔등을 돌려댔다.

《연공이 되기는 코집이 그른 녀석!》

봉남은 담벽같은 그의 잔등을 눈이 등그래서 바라보았다.

《왜서 말입니까?》

《말이 너무 많아. 야나네들처럼!》

《...》

이렇게 탑식기중기 다섯대는 닷새동안에 일어

섰다. …

사람들은 점차로 천만억대대장과 리박윤과장의 이상한 사이에 습관되어갔다. 두사람의 관계가 공사진척에 그들을 던진적은 없었기때문이기도 했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듯이 생각되기까지 했다.

어떤 사람들은 두사람의 이상한 관계가 일에 도움이 되는것 같다고도 했다. 《서로 보충해주거든.》

두사람의 사이도 저으기 풀려가는듯했다.

천만억대대장이 리박윤의 제안에 침묵대신 짤막한 말로 긍정을 표시하는 경우도 드문치나마 있게 되었던것이다. 그들의 이상한 관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도 점점 드물어졌다. 시간이란 화해와 망각이라는데서 불가항력의 힘을 가진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일 말고도 생각해야 할것이 너무도 많았기때문이였으니 광복거리 건설은 날이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건설이였다. 공사진행만 생각하자고 해도 시간이 모자랐다.

그런만큼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두사람의 관계는 사람들의 생각속에서 사라졌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

100 메터가 넘는 대형 트라스들을 들어올려야 할 날이 닥쳐왔다. …

《바로 이 〈트라스〉입니다.》

하고 일군은 책상위의 길다란 자막대기를 가리켰다. 그 한쪽에는 《광명잉크》병이 기중기 대신으로 서있었다. 처음에는 우습게 보이던것이 이때에는 어지간히 심각한것으로 안겨왔다.

《어떤 중량물이던 들어올리려면 기중기가 중심을 물어야 하는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중기〉의 팔로는 이 〈트라스〉의 중심을 무는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팔이 짧았으니까요.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술적인 측면과 시간문제때문에 부정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특대형기중기를 얻어다 트라스공사를 할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중기가 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때 천만억대대장이 지휘부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기중기〉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이요?》

참모장이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누구나 귀가 번쩍 열리는것 같았습니다. 천만억대대장이 그렇게 입박에 내어 말할 때는 그 어떤 방도가 있을것이기때문이였습니다. 원래 연공들이란 일이 생기면 입을 다물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면 일은 다 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만억대대장의 대답은 우리를 실망케 했습니다.

〈생각해봐야지요.〉

〈…〉

아마 천만억대대장이 그런 얼빠한 대답을 한것은 그때가 처음일것입니다.

모두들 묵묵히 있는데 그는 리박윤과장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시공과장동무, 한번 해보지 않겠소?〉

리박윤과장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몸까지 흠칫하는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놀랐습니다. 천만억대대장이 그렇게 정중하고 절절있게 그것도 제편에서 먼저 리박윤과장에게 말한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것 역시 천만억대대장의 말이였습니다. 리박윤과장은 놀라움으로 하여 당황하기까지 한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겨우 대답하였으니 말입니다.

〈해…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까지의 전례가 깨어져나간것입니다.

아마 이 〈트라스〉가…》

일군은 크고작은 까만 눈금들이 총총한 자막대기를 가리켰다.

《모든 사람들을 전례에서 벗어나게 한것 같습니다.

하긴 이 〈트라스〉 공사는 우리가 맡은 대상의 절정이라고 말할수 있었습니다. 제일 어렵고 방대한 공사였으니까요…

하여튼 두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부러워진듯했습니다.

서로 등을 돌려대고도 술한 일을 나무랄데없이 해냈는데 손을 잡았으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밖에서 탕탕하고 철판지붕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군은 그 소리에 한동안 귀를 기울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전례는 깨뜨려졌으나 일은 기대했던대로 풀려나가지 않았다. 기술대대의 창문들에서도, 시

공과의 창문들에서도 불은 깊은 밤까지 꺼질 줄 몰랐으나 방도는 생겨나지 않았다.

트라스를 시공해야 할 날은 하루하루 닥쳐오고 있었다. 초조와 불안은 극도에 달했다. 정말 다른 곳에서 힘있는 기중기를 빌려오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시공을 닦새앞둔 날이었다.) 방송에서 장마가 레년보다 20 일가량 일찍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그것은 트라스공사를 예정보다 20 일 앞당겨야 한다는것을 의미했다. 설상가상이었다.

그날은 불운한 날이었다. 장마소식으로 모두의 얼굴이 흐려졌는데 리박윤시공과장이 또 병으로 쓰러졌던 것이다.

구급차가 예리한 경적소리로 건설장을 놀래우며 달려들었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리박윤과장이 얼마나 몸이 약한 사람이며 (깡뚱한 턱이 무엇보다 먼저 떠올랐다.) 얼마나 파로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기초를 시작하여 트라스를 조립하게 된 이때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구급차에 실린 리박윤과장이 겨우 머리를 들고 사람들속에 서있는 천만억대대장에게

《이웃 건설장에서 자동차기중기를 지원받기로 토론이 있었소. 참고해주요.》

하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가슴아파 머리를 돌렸다. 처녀들은 눈물이 글썽해지기까지 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불이 불룩해서 내들어보곤하던 버릇도 가슴아프게 회상되었다.

그러나 천만억대대장만은 표정없는 무뚝뚝한 얼굴로 내려다보다가

《자동차기중기?...》

하고는 돌아서버렸다. 구급차의 경적소리를 들으며 그는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놓았다.

《대대장아바이!》

뒤에서 봉남의 분개한 목소리가 따라왔으나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천만억대대장은 그때야 몸을 돌렸다. 그러나 봉남의 쏘아보는 눈길과 마주치자 그 시선에 찔리기라도 한듯 황급히 그자리를 떠나버렸다. ...

천만억이 황급히 돌아선것은 봉남의 시선에 찔려서가 아니었다.

그사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리박윤에게 의지해온 자기를 발견한때문이었다.

그리고 일종의 허전함을 느끼는 자신도... 어떻게 이럴수 있단 말인가...

천만억은 트라스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밤이었다. 무거운 밤대기는 병곳거리는 용접광과 기계소리에 간단없이 흔들리고있었다. 정적을 모르는 건설장의 밤...

얼마나 많은 이런 밤을 지나왔던가. 이제는 조용한 밤이 불안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허나 눈앞에는 하나의 외등불빛도 없던 30 여년 전의 건설장, 아득히 먼 기슭에 남은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이 떠오르기만 한다. 얼마나 간고한 나날이었던가!

삽과 곡괭이, 망치질소리, 모든것이 폐허속에서 일어나던 정전직후... 굶은비 내리는 철도복구 건설장...

천만억은 돌격대 소대장이었다. 그들은 전쟁이 동강내놓은 철길을 잇기 위하여 여러 공장들에서 뿔뿔히왔다.

철길기술자가 희귀한 시절이었다. 곡선구간이 나서면 그때마다 곡선반경과 경사각도를 계산해 줄 철도국의 기술자를 기다려야 했다. 때로는 삽과 곡괭이를 놓고 한나절이나 지어 며칠씩 기다려야 했다.

천만억의 성미로는 그런 사태를 참을수 없었다.

그는 다짜고짜로 리박윤을 불러냈다.

《동문 전문학교도 좀 땡겼는지?》

《2 학년까지 다녔지.》 리박윤은 얼떠름해 했다.

《왜 그래?》

《〈계산수〉 노릇을 해보지 않겠어?》

《계산수? 글썽-》

리박윤은 구미가 동하는듯 잠시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거렸다.

《해보겠어!》

그리하여 리박윤은 철도국에 가서 며칠간 강습을 받고 돌아와 목고나 삽질대신 고등수학을 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작업장에서 분주히 돌아가던 천만억은 급히 반토굴 호실로 들어갔다.

토굴에서는 밤늦도록 《고등수학》과 씨름한 리박윤이 늦잠을 자고있었다. 천만억은 그를 잡아 흔들었다.

《일어나!》

《응?》

《작업장에 나가야겠어. 한사람이 놀고있어.》

목고를 못한단 말이야.》

《…》

리박윤은 한참 부시럭거리다가 툭툭거리며 일어났다.

《난 뭐 쇠덩어리로 만들었는줄 알아?》

그날밤 리박윤은 《계산수》노릇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천만억은 깜짝 놀랐다.

《못하겠다구? 왜?》

《난 목고만으로도 충분히 한몫을 했어.》

하고 말하는 리박윤의 턱은 별로 더 뾰족해보였다.

《왜 나만 이것저것 다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겨우 견디여가는데.》

《동무만 힘든게 아니야!》 하고 무뚝뚝하게 말하며 천만억은 계산용지들을 그의 턱밑에 들이댔다.

《자-시작해라! 어서!》

리박윤은 힘없이 항의했다.

《이건 도대체 뭐야?》

《안하고는 못배긴다는거지!》

천만억은 그의 앞에 종이를 탁 놓아주고는 바위돌처럼 버티고섰다.

《어서!》

리박윤은 그를 흘깃 보고는 몸을 웅송그렸다. …

후에 천만억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너무 가혹했던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적도 있었다.

사실 리박윤은 건강한 체질이 못되었다. 뾰족한 턱처럼 몸도 허약했다. 목고도 겨우 견디여내는 그에게 《덧집》을 지운것은 너무 가혹했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달리 할수 없었다. 자기힘에 맞게만 일할수는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일했더라면 나라는 백년이 아니라 이백년이 걸려도 폐허와 재더미를 헤치고 일어설수 없었을것이다. …

드디어 또 하나의 곡선구간이 끝나고 철길이 이어졌다.

그런데 시험적으로 통과시킨 화차들이 그만이야 곡선구간에서 탈선되어 나뒹굴었다. 꼬이고 부러져나간 레루장과 침목들… 계산상 착오때문이었다.

천만억은 소대장에서 철직되었고 철도복구장에서 《추방》되어 공장으로 돌아갔다. 차거운 가을비가 내리는 음산한 날이었었다. …

그후에도 천만억의 일생에서는 크고작은 실패

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첫 실패처럼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실패는 없었다.

그는 어깨에 실리는 짐을 가지고 저울질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인간을 더는 인생행로에서 만나게 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었다. 그런데…

세상이란 이렇게도 좁은것인가!

《천만억… 당신이?》

다시 만났을 때의 리박윤은 34 년전과 조금도 다른없는것 같았다. 그러나 하루이틀 지날수록 그 역시 변했다는것이 알렸다. 뾰족한 턱은 거뭇거뭇한 수염자리로 덮였고 머리칼도 반백이 되었다.

성격도 퍼그나 달라진것 같았다. 천만억은 그를 다시금 믿어보려 했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러 리박윤은 병원으로 가버렸다.

《못하겠어. 왜 나만 이일저일 다 해야 하나?》

하는 리박윤의 목소리가 들리는듯했다. 설마 옛날의 목소리 그대로인가. 《자동차기중기…》 참, 자동차기중기를 오게 했다고 했지. 그 기중기가 온다면? 천만억은 부지중 트라스를 올려놓아야 할 60 메터 골조를 쳐다보았다.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담배를 찾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바이! 대대장아바이!》

봉남이었다. 무슨 일로인지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었다.

천만억은 도로 머리를 돌렸다. 끊어진 생각의 실머리를 다시 붙잡으려고 서둘렀다. 트라스와 열려진 공간… 보조기중기…

《아, 대대장아바이!》

《왜?》

천만억은 몸을 돌렸으나 시선은 그냥 허공을 더듬고있었다.

《그 온다던 자동차기중기가 못온대요!》

《뭐?》

생각은 산산이 흩어졌다.

《스무날쯤 지나서야 보내주겠대요!》

《스무날?》

왜 하필 스무날인가. 앞당겨진 장마와 더럽게도 일치한다. 그는 침을 탁 뱉었다.

《리박윤이 하는 일이 그저 그렇지!》

《대대장아바인 너무합니다!》

봉남의 총알같은 반박이었다. 젊을수록 정의감

도 많은 모양이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럴수 있습니까?》

천만억은 캄캄한 먼 공간을 노려보았다.

《그래… 그래서야 안되지.》

그는 분개한 얼굴로 서있는 봉남을 흘깃보았다.

《이녀석아, 트라스 생각이나 해라. 어떻게든 올라야지?》

음성은 의외에도 푹 가라앉아있었다. 봉남은 그 음성에 맥이 풀려서 중얼거렸다.

《보조기중기가 오지 못한다는데두요?》

《그런데?》

《그럼 무슨 힘으로 들어요?》

《힘이란 남한테 있는게 아니야. 자기한테 있는게 진짜 힘이지…》

《…》

그때 두줄기 눈부신 전조등 불빛이 두사람을 겨누고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천만억대대장은 봉남에게 일생두고 기억할만큼 심오한 말을 몇마디 더 했을수도 있었다. …

《저- 리박운동무를 보지 못했습니까?》

황급히 울리는 목소리에서는 물씬하고 약냄새가 풍기는듯했다. 흰 위생복을 어둠속에서 분간해본것은 그다음이었다.

《아니? 실고가지 않았습니까? 병원으로…》

봉남은 놀래여 되려 물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보조기중기가 온다든지 안온다든지 하는 말을 듣고는 멍하니 앉아있더니 두시간전에 없어졌습니다.》  
천만억은 몸을 일으켰다.

《없어지다니?》

《도망을 쳤지요! 여기로 온다고 했답니다.》

천만억은 봉남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찾아봐라!》

봉남은 바람에 불린듯이 사라졌다.

천만억은 멍하니 서있었다. 리박윤이 병원에서도 도망을 쳤다? 왜? 무엇때문에?...

보조기중기가 못오게 된 사정과 그의 도주사에 어떤 관계가 있을가… 그건 그렇고 저놈의 트라스들을 어떻게 들어올린다? 트라스를 자르지 않고 들수는 없을까? 트라스의 무게중심을 기중기 작업반경내에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한끝을 잘라야 하는가? 그렇게 할수는 없다. 그러면…

봉남의 목소리가 어둠속에서 날아왔다.

《저기 골조우에 있대요-!》

《골조?》

의사들은 분주히 천만억의 뒤를 따라섰다.

소란한 기계소리와 눈부신 용접광, 오가는 차들의 전조등불빛이 비자루처럼 어둠을 쓸어댄다. 기중기의 투광등이 아아한 골조를 탐조등 불빛처럼 어루쓸며 빙-돌아간다. 건설장은 낮보다 더 들끓고있었다.

골조우에 쭈크리고 앉아있던 리박윤은 결박이라도 지울듯이 좌우로 다가드는 의사와 간호원을 보자 벌떡 일어섰으나 도로 주저앉아버렸다.

《나를 제발 여기에 있게 해주오. 보시오. 병원에선 죽을것 같던 내가 여기 와선 그래도 사람 꼴이 잡히지 않았소?》

그러나 의사들은 《랭혹한》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안됩니다. 당장 내려갑시다!》

《의사선생, 금년장마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시오? 20 일이나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과장동무도 빨리 돌아와야지요. 갑시다!》

《의사선생…》

그는 지원이라도 청하듯 천만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천만억은 그를 등지고서서 착잡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봉남이가 보다못해 리박윤과장의 옷자락을 잡았다.

《내려갑시다. 과장동지.》

리박윤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내 동무에게 해주고싶은 이야기가 있소. 의사선생, 조금만 참아주시오.》

그는 천만억의 넓은 잔등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있는 이야기요. 전후복구건설때…》

천만억은 몸을 흠칫했다. 아득한 옛시절의 차가운 비발이 다시금 얼굴을 휘뿌려지는듯하다.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그 시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어디서 그런 억척같은 힘이 나왔던가.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답게 안겨지던 일,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견디여냈던지…

눈아래에서는 오늘의 불빛이 바다처럼 설레고 있다. 불빛 또 불빛, 기계소리, 자동차소리, 모든것이 움직이고있다. 강력한 투광등불빛이 빙-돌아간다. 불빛은 골조허리에 걸린 대형구조를 쪽- 훑어나간다.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창조하자!》

아, 얼마나 거창한 건설장인가. 이 거창함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구나. …

《…그때 나는 철도복구장에서 일했소. 너무 힘들어 도망칠 생각만도 몇번이나 했던지 모르오.

그런데 소대장이라는 사람은 겨우 견디어나가는 나한테 다른 일을 또 맡기는게 아니겠소? 나는 못하겠다고 했소. 더 하다가 쓰러져버릴것 같았소.

내가 무엇때문에 남보다 짐을 더 져야 하는가고 생각했었소. 그러나 소대장이라는 사람은 막무가내였소. 나중에는 주먹으로 위협하면서까지 시키더라는 말이요. 그때 나는 소대장을 얼마나 증오했던지 모르오…

그런데 사고가 생겼소. 소대장은 철직되어 떠나갔소. 사고원인은 나한테 있었지만… 그 사람이 간후에는 그런 덧짐을 지워주는 사람이 없었소.

처음은 편하더군. 그런데 날이 갈수록 생각나는것이 무엇이었겠소? 믿어지지 않을게요. 소대장이 억지로 시키던 그 일이라고 하면말이요. 그 리워지기까지 했소…

세월이 지나면서야 나는 그때 소대장이 지운 짐이 어떤 짐인지를 깨달았소. 그것은 조국이 준 짐이었소.

그것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봉남이네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전후복구전설의 나날, 나의 젊음 시절이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했겠소? 자기에 게 지워지는 짐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부담으로 여긴다면 우리 생활은 고통과 고통의 연속으로 될게요. 그러나 그 짐이 힘으로 된다면… 아마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겠지.》

《…》

《의사선생, 사람이란 행복이 무거워 쓰러지는 법은 없지 않소?》

《…》

천만억은 눈을 감고있었다. 리박윤의 말이 귀에서 그냥 울렸다. 《그 짐이 힘으로 된다면…》 짐이 힘으로 된다. 짐을 덜려고만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질뿐이다.

그렇다면… 트라스를 자를것이 아니라 짐을 더 실어주면 어떻게 될가. 기중기쪽의 트라스끝에 짐을 실어주면 무게중심은 이동하여 기중기의 작업반경내에 들어올것이다. 덧실어주는 짐이 기중기의 힘으로 될것이다!

그는 리박윤에게로 휙 돌아섰다. 리박윤이 그에게로 한걸음 다가왔다.

《천만억동무!》

순간 천만억은 그가 무엇때문에 병원에서 뛰쳐나왔는지를 깨달았다. 바로 이때문이였다. 여기에는 리박윤의 한생이 담겨있었다. 자랑도, 수치도 많았을 일생… 짐이 힘으로 된다면… 《아마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겠지…》

《박윤이!》

기중기 투광등의 불빛이 빙-돌아가며 마주 서있는 두사람을 스쳐갔다. 발밑에서 터져오르는 수천수만의 용접광, 소음과 불빛의 분화구, 거창한 광복거리 전선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전선》의 한복판에 그들은 서있었다. …

《이게 이 〈트라스〉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일군은 다시금 책상우에 있는 길다란 자막대기를 가리켰다. 자막대기의 크고작은 눈금들은 트라스의 열기설기한 산형강들처럼 느껴졌고 거기에는 수십톤의 무게가 실려있는듯싶게 생각되었다.

《최덩이를 한켠에 더 실어주어서 무게중심을 옮긴다음 짧은 팔로…리해됩니까?》

《리해됩니다.》

나는 대답했다.

《정말입니까?》

일군은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였다.

《예.》

나는 설명했다.

《나는 그전에 이런 일을 본적이 있습니다. 너너시절에는 밤길은커녕 산길도 못 걷던 너인이 앓는 자식을 업고는 캄캄한 밤에 산길을 걸어 병원에 왔던 일을 말입니다. 이를테면 짐이 힘으로 된것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하던 일군은 단호히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이젠 사람이 아니라 기계란 말입니다. 기중기와 트라스지요. 력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 시대의 인간들에게는 시대가 지워주는 짐이 큰 힘으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물론 기중기와 사람이 갈을수는 없다. 그러나 기중기도 사람에 의하여 움직인다. 기중기는 사람이 령혼을 불어넣고 숨결을 준 산 존재와 같은 것이다…

하여 나는 제목을 《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붙인다.

## 백두산에 올라

김윤철

나는 지금 혁명전적지답사자들과 함께 이 나라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 마루에 서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번이나 백두산에 오르지만 오늘도 이 상상봉에 올라서서 굽어보니 천하 제일봉의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에서 눈길을 땔수 없다.

백두산이 솟아있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살고있는 행운이랄까, 남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와 보고싶어 그토록 간절히 마음쓰는 백두산에 이렇게 몇차례씩이나 오르고 또 그 기슭의 혁명전적지들을 제 집 트락처럼 다니며 혁명의 뜻을 키워나가는 행복에 넘쳐 이처럼 가슴이 뜨겁게 북받쳐오르는것일가.

그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백두산이 바라보면 볼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그 웅장함과 장엄함이 새롭게 안겨오는것과 함께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거기에 깃든 혁명의 숭고한 뜻이 가슴속에 격정의 파도를 세차게 일으켜주기때문이다.

사실 백두산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신비로운 자연경관보다 먼저 이 세기의 메부리우에서 휘둘러 굽어보게 되는 항일성전의 거룩한 자욱이 어린 혁명전적지들이 안겨주는 감격과 뜨거운 생각으로 하여 더더욱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머리에는 일찌기 1956년 6월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중흥등판에 오르시여 우리의 백두산은 수령님께서 일제원췌놈들을 때려부신 승리의 상징으로 되는 산이기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큰 산으로 되는것이라고 선언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이 우렁이 안겨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말씀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높이를 단순히 지도상에 표시된 해발고의 높이로서가 아니라 시대와 력사앞에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위훈의 높이로 헤아려야 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랑이 담겨져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해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원췌격멸의 총성과 승리의 만세소리 높은 격전장으로, 민족재생의 봄을 불러 세기의 동토대를 녹이며 긴긴 세월 항일혈전의 활무대로 되었던 백두산이다.

이에 대하여 더욱 가슴후덥게 생각하면서 백두산의 장군봉에 잇닿아 련련히 뻗어내린 산줄기들

과 하늘높이 아찔하니 치솟은 봉우리들, 그밑으로 끝없이 펼쳐져 장엄히 설레이는 무성한 숲의 물결을 바라보느라니 1968년 7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여 하신 말씀이 다시금 심장속에 마디마디 되새겨진다.

실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수령님처럼 것처럼 험난한 혈전의 수만리길을 하루와 같이 걸으시며 혁명을 령도해오시는분은 없다.

우리 인민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 칭송해마지 않는것처럼 위대한 우리 수령님은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전설적 영웅이시며 현대 력사가 알고있는 위인들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

백두산과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력사와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인류가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하여야 할 불멸의 영웅서사시이다.

천년이끼밑의 무심한 샴터에도, 바위즈렁에 붉게 핀 한떨기의 꽃에도, 아릅드리나무가 뿌리깊이 내린 한줄의 흙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그 거룩한 자욱이 수놓아져있고 숭고한 혁명의 뜻이 어려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이 세상에 정녕 이처럼 위대하고도 영원불멸할 이야기가 깃든 상상봉은 없으리라.

지금까지 수많은 답사자들을 인솔하고 백두산을 100 번이상 오른 한 답사지도원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일이 있다.

해마다 백두산을 보러 오는 외국인답사자들의 대렬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번은 일본녀자등산가 일행도 바다건너 찾아왔다.

두 아이 어머니인 40 대의 녀성을 대장으로 하고 20 대와 30 대의 청년들로 무어진 이 녀자등산가일행은 세계의 지붕이라 부르는 해발 8,882 메터의 주무랑마봉 탐험에도 두번씩이나 갔다온 이름있는 등산전문가들이였다.

백두산밀영이 위치한 소백수골을 거쳐 곱산밀영, 선오산지구밀영, 간백산지구밀영에서 《동포들이여 민족의 령수 김대장 따라 항일전에 힘있게 나서라》, 《백두산 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 《동포들이여 모두다 일어나라 어둠던 이 나라에 밝은 태양 솟았다》 라는 혁명적 구조들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다가 백두산에 올라서는 끊어넘치는 격동을 터쳐 두손을 높이들고 《만세!》의 환호만 올렸다.

마음이 좀 진정되자 녀자등산가일행의 대장은



조선말로 토박토박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세상에 백두산보다 높은 산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름나고 유명한 산이라 해도 자연경관이나 구경하면 다였지만 백두산에 오를 때처럼 걸음마다 느끼고 배우고 결심해보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백두산은 숭고한 혁명투쟁의 불멸의 력사탑으로 끝없이 솟은 상상봉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백두산이야말로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혁명의 성산으로서 그 어떤 지리학적 수치로만 그 높이를 계산할수 없는 세계의 제일봉이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큰 산은 주무랑마봉도 아니고 산악의 장엄함을 자랑하는 알프스산줄기도 아니다.

우리의 백두산이야말로 혁명의 성산, 영웅의 산으로 세기의 한복판에 높이 솟아 어디서나 다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거창한 산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려 어제도 오늘도 백두산으로 끊임없이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이다.

오르고 오를수록 혁명에 더 충실하겠다는 혁명적 각오와 열정, 투지와 의욕이 더 솟구치게 하는 백두산 행군길, 그 길을 따라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오르고 또 오르는 백두산의 높이, 그 높이는 진정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찬연히 빛나는 시대와 세기의 상상봉의 높이이다.

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체혁명위업을 앞당겨 가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백두산을 향해 숭엄한 자욕을 읊기게 되는것이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보람찬 삶의 희망봉을 바라보듯 백두산을 우리르며 유구한 세월의 흐름우에 자랑찬 력사를 수놓아가고있는것이다.

세대는 바뀌어도 백두산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장엄한 행군길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생을 백두의 숨결을 안고 살며 투쟁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상상봉으로 백두산은 영원히 높이 솟아 그 빛발 찬연히 누리를 비칠것이다.

## 즐거운 저녁에

류동호

하루일마침 이 저녁  
우리 집 세 식구  
창가에 앉아노래부르니  
하늘의 별들도 굶구나

손퐁금 올리던 딸에는  
귀속말로 속삭인다  
유치원 노래경연의 날  
엄마랑 꼭 함께 오라고  
내 손에 손가락을 걸며

이때를 기다린듯  
정다운 안해의 은근한 눈빛에 실린  
그 약속도 좋구나  
딸애의 손잡고 갈  
일요일의 가족들놀이-

아무렴 가야지  
딸애가 노래부를 귀염둥이들의 무대로  
아무렴 가구 말구

이 저녁의 행복을 흥겨운 들놀이에 펼쳐  
조국에 웃음을 더해야지

울리어가라  
귀염둥이 내 딸의 손퐁금소리  
그에 맞춰 부르는  
우리의 부부 2중창

좋구나!  
하루의 보람을 다 누리기전에  
래일의 기쁨이 찾아와 깃을 펴는  
즐거운 이 저녁  
무르녹는 행복이어

한껏 즐기고 기다리노라  
보람이 기쁨을 날고  
기쁨이 행복을 펼치는  
이 땅의 하루하루를  
복받은 우리의 더 밝은 생활을...

## 참된 행복

호도균

때 현대

곳 순천비날론 건설장

나오는 사람

향숙 건설장 산소충진공

춘석 그의 남편

향옥 향숙의 동생

경이 향숙의 딸(12 살)

종남 청년건설자

진옥 마을너인

기타 직장장, 청년 1, 2

△무대. 향숙의 집. 우측에 단층문화주택이 앉았는데 무대엔 마루가 달린 앞면 일각이 보인다. 마루엔 책무지와 거울, 어항 등 세간도구들이 놓여있고 집옆에는 포장한 짐짝들이 보인다. 토피로 쌓은 아담한 담장아래 꽃밭이 있고 뜰안에는 긴 나무의자가 놓여있다. 멀리 웅장한 화학공장의 합성탑들이 보인다.

△막이 열리면 아침.

△새들이 우짖는 소리.

△향숙 마루앞에서 생각에 잠겨 짐을 꾸리고있다.

향옥 (집뒤에서 짐을 싸다 나오며) 언니! 부엌에서 뭐가 타지 않아요?

향숙 (거울을 떨구며) 아니? 이 정신 좀 봐! 가마에 밥을 안쳐놓고 깜박... (다급히 부엌으로 들어간다.)

향옥 (거울을 들며) 언니 정말...

향숙 (잠시후 다시 나오며) 네가 아니었다면 도중식사가 온통 누룽지판이 될번했구나.

향옥 (다가서며) 언니 곁에서 코 때가두 모르چه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몰히 하고있었어요. 호호호...

향숙 내 종전에도 말하지 않았니. 오늘 건설장에서 새 카바이드로 조립전투가 시작됐어. 그래 우리 산소충진장에두 새벽부터 산소병들이 수많이 밀려들었겠는데 난 이 바쁜통에 이사를 떠나야 하니...

향옥 됐어요. 언니. 그러다 이번엔 아저씨한테 대접할 만두까지 다 터쳐버리겠어요. 아침부터 밥을 태우구, 이렇게 결혼기념품인 거울

까지 깨뜨리구... 정말 오늘 이사가 시작부터 팬찮은데요? ...호호호

향숙 언닌 속에서 불이 일어 죽겠는데 넌 태평스럽게 웃고만 있구나. (걸음을 옮기며) 난 이제 아저씨가 오면 비날론공장건설이 끝날 때까지만 이사를 좀 미루자고 부탁해보려는데 향옥아! 그래, 네 생각은 어땜니?

향옥 아니, 그럼 언닌 오늘 이사를 뒤로 미룬단 말이예요?

향숙 글썽 내 말을 좀 들어보렴. 이제 공장이 완공되어 하얀 비단솜이 폭포처럼 쏟아질 때 우리수령님께서 찾아오시여 환히 웃으시며 기쁨에 넘쳐 바라보실 그날도 멀지 않았는데 내가 저 건설장을 떠나 어떻게 잠시인들 마음이 편할수 있겠니?

향옥 야참, 언닌 그렇게 자주 제 생각만 앞세우면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이젠 도에 올라가 큰 사업을 맡아보는데 언니가 빨리 이사를 가서 가정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려야지 지금처럼 계속 함속에 있게 하겠어요? 집을 받은 지가 언제라구...

향숙 그럼 넌 애초에 반대구나?

향옥 그렇지 않구요. 아저씨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사를 하자고 결심한건데... 괜히 이제 차를 가지고 온담에 따분하게 만들지 말구 언니가 마음을 돌리세요.

향숙 요건 그저 언제봐야 아저씨편이라니까? 언니 마음은 알려구두 하지 않구...

향옥 언니처럼 그렇게 가정에 영 무관심한 녀자가 또 어데 있담? (셀쪽 비웃어보인다.)

향숙 아니, 뭐라구?

향옥 호호호... (다시 집뒤로 가며) 언니! 그럼 난 농장탈곡장에 가서 새끼를 좀 가져오겠어요.

향숙 저, 향옥아! (다가가며) 너 이번에 끝내 종남동무를 만나지 않고 떠나려니?

향옥 (멈춰서며) 예?

향숙 그 동문 지금도 너를 여전히 생각하고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구 이제 건설장에 나가 만나보렴.

향옥 언닌 정말... 내가 어떻게 그 동물 찾아간

다구 그래요.

**향숙** 그럼 내가 가서 데려올까?

**향옥** 됐어요! 언니 그런 걱정 말구 내가 갔다올 때까지 빨리 마루에 짐들이나 다 싸놓으세요. 언니한테 도급제를 들이대야 짐을 꾸린다니까. 호호... (뒤를 돌아보며 나간다.)

**향숙** 아니, 향옥아!

△ 이때 경이 물주전자를 들고 꽃밭쪽에서 나온다.

**경이** 어머니! 빨리 와서 꽃들을 보세요. 밤새 접중화가 모두 활짝 폈네?! 아이 고와! ...

**향숙** (다가가며) 경이가 아침마다 물을 주며 정성다해 가꾸더니 꽃이 너처럼 방글방글 웃으며 폈구나. 호호호...

**경이** 어머니 참... (결에 있는 꽃삽을 들며) 해가 퍼지기전에 빨리 꽃부터 뜨자요!

**향숙** 그래... (함께 꽃을 뜬다.)

**진옥** (이들 가까이로 나오며) 이 집에선 오늘 이사를 간다고 하더니 꽃밭까지 통채루 떠가지고 갈셈이구만?! 허허...

**향숙** 어머니 오셨어요?

**진옥** 뭘 좀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네. 그런데 아침부터 웬 꽃을 이렇게 뜨나?

**경이** 할머니! 우린 이사를 가기전에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저 런포벌 길가에 이 꽃을 다 옮겨심을려구 그래요.

**진옥** 그래?! 경인 그 길가에 늘 꽃들이 활짝 피어 있게 하겠다고 하더니 떠나는 날까지 이렇게 팔걸구 나섰구나. 허허... (향숙에게 푸레미를 내놓으며) 줄당콩이네. 이제 이사를 가면 가까이 있는 친정어머니한테 밥이나 한끼 해드리라구.

**향숙** (받아쥐며) 어머니, 이런건 뭘다... 그러지 않아두 우린 어머니 신세만 가득 지구 가는데... 떠날 때까지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진옥** 신세랄게 있나. 오히려 임자가 그동안 건설장에서 수고가 많았지.

**향숙** 저야 뭘 한일이 있다구...

**진옥** 한가정을 돌보는 주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건설장에 나가 남들과 같이 일한다는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더구나 자식까지 친정에 보내놓고 말이네.

**향숙** 어머니가 그동안 저의 집일을 잘 도와준 덕분이지요 뭐. 그렇지 않다면야...

**진옥** 임잔 별소리 다하누만... 그런데 애아버지가 도관개관리소로 올라간지도 벌써 한달이 돼오누만?

**향숙** 그래요. 전 사실 저 비날론공장건설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으려구 했는데 애아버지때문에 아무래두 이사를 가야 할가봐요.

**진옥** 암 가야하구말구. 임자가 늘 건설장에 나가 살다싶이했으니 애아버지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다. 그런데 또 혼자 가서 있게 하자니 임자 마음두 편하지 않을테지.

**향숙** 정말 그래요.

**진옥** 그런데 집을 받았다구 편지를 하더니 그센 왜 꿈쩍안했나?... 혹시 애아버지가 이사를 안 온다구 속으로 언짢아한게 아닌가?

**향숙** 아이참, 어머니두... 그곳 일이 바쁘니까 그러겠지요 뭐.

**진옥** 하긴 그럴테지 허허...

**경이** 어머니! 꽃을 다 뺐어요. 빨리 길가로 가져요. (함통에 꽃을 담는다.)

**향숙** 그래, 어서 가져!

**진옥** (다가오며) 내 경이와 함께 가서 심고올테니 임잔 집일이나 보라구. 이사를 하자면 할 일이 한두가지라구...

**향숙** 일없어요, 어머니.

**진옥** (꽃밭으로 가며) 경이야, 아버지가 만두를 제일 좋아한다지?

**경이** 그래서 어머니가 벌써 닭고기랑 파랑 넣고 맛있게 빚어냈는데요 뭐.

**진옥** 그래?! ... (꽃포기를 담는다.)

**향숙** 애두 참...

**경이** (부엌을 보며) 어머니! 국이 끓는것 같애요. 빨리 들어가서 만두를 넣으세요.

**진옥** 어서 들어가 보라구! 국이 넘겠네. 허허...

**향숙** 그럼 전... (부엌으로 간다.)

**경이** 할머니, 이젠 가져요!

**진옥** 그래. 꽃단지가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그렇지. (함통을 마주들고 나간다!)

△ 잠시 사이

△ 까치가 운다.

**춘석** (들어오며) 저 까치가 내가 온다구 저렇게 우짖는것 같구만. 허허허...

**향숙** (나오며) 아니, 경이 아버지?!...

**춘석** 잘 있었소?... (집주위를 둘러보며) 경인 아직 자는게로구만?

**향숙** 그 앤 첫 새벽부터 저 꽃밭의 꽃을 런포벌 길가에 다 옮겨심고 가겠다고 하면서 방금전에 나갔어요.

**춘석** 그렇소? 그참 경이가 훌륭한 생각을 다 했구만. (의자에 앉으며) 그 길은 정말 당신에겐 잊을수 없는 길이지.

**향숙** 정말 그래요.

**춘석** 그해는 우리가 여기에 이사온 첫해였지 않소.  
수령님께서 몸소 비날론공장터전을 잡아주시려고 비몰이 흘러 온통 진창투성이던 저 동구길로 나오셨던 그날이 말이요!

**향숙** 그래요. 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에 그늘이 지군해요.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험한 길도 마다하시고 찾아오셨는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제 하나 편히 살아갈 생각만 하고있었으니...

**춘석** 허허, 그래서 당신은 그 길우에 비날론꽃비단을 펼치고 수령님을 다시 잘 모시겠다구 건설장에 달려나간게 아니요. (의자에서 일어서며) 참, 그런데 당신 이번엔 어떻게 된 일이요?... (집앞으로 가며) 그렇게 건설장을 떠나지 못해 이사를 가일피일 미루더니 이렇게 짐까지 다 꾸러놓고? ...

**향숙** 아이참 당신두... (다가가며) 그건 동생이 와서 꾸린거예요.

**춘석** 향옥이가?...

**향숙** 당신한테서 특별임무를 반구왔다고 하면서 다짜고짜로 덤벼드는통에 저두 할수없이...

**춘석** 나한테서 특별임무를 반구왔다? 하하하... 그래서 당신이 차를 가지고 오라는 전보까지 쳤소?

**향숙** 전보라니요? ...

**춘석** 그럼 그것두 향옥이가 친게로구만.

**향숙** 그 앤 정말...

**춘석** 그러니 당신이 속으로 나를 얼마나 욕했겠소. 몇달만 더 참으면 건설두 끝날텐데 이사를 서둔다구 말이요.

**향숙** 아이참, 당신두...

**춘석** (옷을 벗어 벽에 걸며) 이제 할수 없지. 아무래두 가야 할걸 이렇게 내친걸음에 제깍 이사를 하구봅시다.

**향숙** (다가서며) 저, 새벽차를 타고 오느라 시장하시겠는데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만두국도 끓여놔어요. 춘석 그렇소?!... 어쩐지 떠날 때부터 마음이 앞선다 했더니 집에서 꾸집한 만두국이 기다리랬구만. 하하하...

**향숙** 당신은 참, 내 인차 차려드리겠어요.

**춘석** 가만... 식산 이제 향옥이랑 경이랑 다같이 하구 집이나 마저 꾸립시다.

**향숙** 국이 식겠는데...

△ 춘석 방으로 들어간다.

△ 향숙 부엌쪽으로 간다.

△ 이때 종남 들어온다.

**종남** 아주머니! ... (다가오며) 집에 계셨구만요.

**향숙** 종남동무, 어떻게 왔어요?

**종남** 아주머니, 오늘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빨리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제 경쟁총화에 서 1등의 자리를 떴은 3직장 친구들이 이번엔 우리 직장을 앞서보겠다구 꼭두새벽부터 욱욕대는 데 젠장, 산소충진장에서 우리 산소병들을 빨리 뽑을수가 있어야지요? 지금 온 건설장의것들이 다 밀려드는판에 말입니다.

**향숙** 그래요?

△ 춘석 책을 한아름 안고 마루로 나온다.

**춘석** (책을 놓고 마당으로 내려서며) 건설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구만? 종남동무가 이렇게 숨이 차서 뛰어온걸보니 말이요.

**종남** 예, 우리 직장의 산소병이야 아주머니가 없으면 고아들이나 한가지지요뵤. 하하... 한낫이 되어서나 겨우 찾아올수 있으니 도무지 손맥이 풀려 일을 제낄수가 있어야지요.

**춘석** 그렇소?!

**향숙** 저, 경이 아버지. 내가 없으니 아마 아바이가 혼자서 손이 팔려서 그럴거예요.

**춘석** 여보, 그러니 당신두 건설장에서 한몫 단단히 하긴 하는 모양이구만 음?

**향숙** 호, 못하길래 이렇게...

**종남** 아, 하다뿐이겠습니까? 아주머니가 산소병을 가지고 건설장에 나타나기만하면 우리 건설자들은 성수가 나서 그날 계획을 2 배, 3 배는 문제없이 제껴버린단 말입니다. 하하하!

**향숙** 종남동문 정말...

**춘석** 허허...(다가서며) 자, 그럼 여기 일은 걱정말구 당신은 어서 나가보오.

**향숙** 저 경이 아버지...

**춘석** 어서 가보라는데! 지금 건설자동무들이 얼마나 애타하겠소?

**향숙** 알겠어요. 종남동무, 어서 가자요!

**종남** (그제야 짐꾸린것을 보며) 아니, 그런데 오늘 이사들 가는게 아닙니까? 이렇게 짐들을 다 내놓고 있는걸보니...

**춘석** 이사는 이사구 우선 바쁜일부터 하구봐야지. 자, 어서 함께 가라구!

**향숙** 종남동무, 빨리 가자요. (먼저 나간다.)

**종남** 아, 아주머니! ... 자, 이런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했군. 제길... 경이 아버지! 내 이제 갔다와서 이사를 철저히 보장해드릴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뛰어나간다.)

**춘석** 허허, 일없다는데 그러누만. (마루로 가서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책을 묶는다.)

△ 잠시 사이

△ 향옥 새끼통구리를 들고 나온다.

**향옥** 호호호, 아저씨 언니랑 경이랑 데려가게 됐으니 이제 노래가 절로 나오는 모양이지요?

**춘석** 향옥이나? 노래뿐 아니라 웃음도 절로 나는 것 같다. 허허히...

**향옥** 그게 다 내가 이번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해요.

**춘석** 알지 않구. 늘 봐야 우리 가정일은 그저 향옥이가 나서야 뭐나 제대로 된다니까.

**향옥** (다가가며) 어제 내가 보낸 전보도 받으셨지요?

**춘석**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온게 아니냐. 그런데 언 떠날 때 건설장에 지원물자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향옥** 어떻게 되다니요? 바늘따라 실가기마련인데 언니가 이사를 너무 끌길래 내가 왔던김에 아저씨 명령이라구 하구 가구들을 다 들어내면서 집중포화를 들이댔지요 뭐.

**춘석** 집중포화라? 하하하...

**향옥** (마루위의 집들을 보며) 그런데 언닌 집두 안싸구 또 어데 갔어요?

**춘석** 조금전에 건설장에 좀 불일이 있어 갔다.

**향옥** 언닌 정말 한심하다니까. 이렇게 집들을 잔뜩 벌려놓고 또 건설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춘석** 향옥아, 내가 있지 않니?

**향옥** 음... 아저씨 그제 언니 말이라면 절대복종이라니까

**춘석** 절대복종이라?...

**향옥** 말은 바른데루 그동안 아저씨가 언니때문에 집안일까지 도맡아안구 혼났지요 뭐.

**춘석** 내야 뭘... 네 언니가 수고했지.

**향옥** 언니가 늘 건설장에서 늦게 돌아오니 아저씨가 저녁두 하구 경이 옷두 빨아 입혔지 않았어요. 호호호...

**춘석** 허허, 아저씨를 그렇게 골려주는걸보니 이제 향옥인 남편을 두손으로 떠받들구 살겠구나 음?

**향옥** 아이참, 아저씨 정말...

**춘석** (다가서며) 말이 났으니말이지 여기 건설장에 향옥이와 이미 약속한 청년이 있다면서?

서해갑문건설 때 지원아갔다가 채석장에서 알게 된...

**향옥** 아저씨 정말 모르는게 없군요? 남의 비밀은 어데서 그렇게 다 알아냈어요?

**춘석** 그뿐인줄 아니? 그때 비가 억수로 퍼붓자 향옥이가 자기 비옷을 벗어 그 군인건설자청년에게 씌워주었다는것까지 다 알고있지. 그래서 그 비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편지가 오간것두 말

이다.

**향옥** 아니 뭐예요?...

**춘석** 하하하! 향옥이 얼굴이 빨개지는걸보니 그 사랑담이 옳긴옳은 모양이구나? ...

**향옥** 아이참, 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가가 팔을 끌어당기며) 괜한 말은 그만하구 빨리 짐이나 꾸리자요. 그러다 이제 차가 들이닥치면 어쩔려구 그래요?

**춘석** 그래... 허허.

△ 향옥 새끼통구리를 들고 집뒤로 간다.

△ 춘석 마루에서 책들을 마저 묶는다.

**경이** (뛰어오며) 아버지!

**춘석** 오, 경이나? 그래 꽃은 다 심었니?

**경이** 다 심었어요. (마루위에 올라가며) 아버지! 이 장갑들은 짜지 마세요.

**춘석** 현대 우리 집에 웬 장갑이 이렇게 많냐?

**경이** 이건 어머니가 건설장에서 돌아와서 밤마다 만든거예요. 떠날 때 건설자아저씨들에게 보내줄려구 어머니 어제밤에두 껌박 밝혔는데요 뭐.

**춘석** 그래?!...

**경이** 얼마전에두 어머니 우리 돼지를 건설장에 끌고나가 5호카바아드로건설전투총화에서 순회 우승기를 쟁취한 종남아저씨네 직장에 축하연까지 크게 차려주었어요.

**춘석** 축하연까지? 허허. 정말 저 비날론공장건설장에 바치는 어머니 지성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아무것도 한일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담?

**경이** 아버지두 참... 그래두 어머니 늘 건설자아저씨들한테 아버지가 잘 도와줘서 마음놓고 건설장에 나올수 있었다고 자랑하는데요 뭐.

**춘석** 허참, 그러니 아버지 한일도 없이 어머니한테서 칭찬만 받았구나. 허허...

**경이** (길쭉을 보며) 아이 저기 종남아저씨가 오네! (마중가며) 아저씨! ...

**종남** (나오며) 경인 오늘 정말 명절이겠구나?

온 집안이 이사를 가서 함께 모여살게 됐으니 말이야.

**경이** 정말 그래요. 호호.

**춘석** (다가가며) 아니, 종남동문 왜 벌써 왔나?

**종남** 이젠 우리 산소병들을 거반 다 뽑았습시다.

거참, 아주머님만 나서면 산소충진장일은 쉽게 척척 풀리는데 우린 하마트면 3 직장한테 선코를 때울번했던 말입니다. 하하하!

**춘석** 허허, 일이 동무들 뜻대로 되었다니 나도 기쁘구만. 자, 아침부터 바빠 뛰어다니느라 힘들텐데 의자에 앉아 땀이나 좀 들이라구.

**종남** 일없습니다. (다가서며) 저 그런데 내 아무래두 경이 어머니가 오면 한마디 꼭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장에서 우리 직장일을 그렇게 도와주고 간다온다 말두 없이 이렇게 훌 떠나버리려고 했으니말입니다.

**춘석** 우리 이사가 무슨 큰일이라구 바쁜 동무들한테까지 폐를 끼치겠소. 집사람이야 응당 제 할일을 한것인데...

**종남** 제 할일이라니요? 이거 정말 경이 아버지 아직 깜빡이군요. 아주머닌 다만 저 건설장에 산소 충전공이 아니라 우리 건설자들의 친누이, 친어머니 한가지란 말입니다. 설참때마다 전무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려구 국수를 해가지고 나오시지... 참, 요전날은 큰비에 우리 세멘트창고가 위험하게 되자 물사태까지 막아나섰었지요. 그때 정말 우린 아주머님이 아니였더라면 수많은 세멘트를 물에 흘러버릴뻔했다니까요. 그렇지? 경이야! ...

**경이** 정말 그래요. 아버지.

**춘석** 허허. 순천의 건설자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종남** 경이 아버지 참... 그래 우린 아주머님이 떠날 때 저 건설장에서 대 환송회를 벌리려 했는데 아무래두 여기서 해야겠군요.

**춘석** 대 환송회라?...

**종남** 이제 경이아버진 저 의자에 척 앉아 박수만 크게 치십시오. (다가서며) 경이야! 넌 어머니를 축하해서 노래를 불러야 해!

**경이** 아저씨 손풍금을 타구요. 호호호.

**종남** 그래! 하하하.

△ 모두 유쾌하게 웃는다.

△ 향옥 나온다.

**향옥** 아저씨! 짐은 안꾸리고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춘석** 허허, 이거 정말 향옥이 독촉이 불같은걸?

아저씨까지 꼼짝 못하게 달구어대니말이야.

**종남** 자, 그럼 이제 짐을 빨리 꾸립시다. (향옥이 앞으로 간다.)

**향옥** (그를 보며) 아니?... (어쩔바를 몰라한다.)

**종남** 아니, 동무가?... (그제야 그를 알아보며 문득 놀란다.)

**춘석** 허, 그럼 서로 이미 아는 사이요?

**향옥** ... (한편으로 피해선다.)

**종남** 아니, 저...

**춘석** 음, 알만하오?! 그러니 종남동무가?... 하하하. 그런걸 난 이번에도 우리 향옥이 대상을 못보고 가는가 했구만. 이렇게 곁에 두고도 말이요. 하하하...

**향옥** 야참, 아저씨 정말...

**춘석** 경이야! 우린 바람도 좀 쏘일겸 저 건설장을 한번 돌아보고 오자꾸나.

**경이** 아이 좋아. 어서 가자요.

**춘석** 자, 그럼 향옥아! 너희 둘이서 짐들을 좀 묶어주렴. (하고 벽에서 옷을 벗겨 입으며 나간다.)

**향옥** 아니, 아저씨!...

△ 경이 웃으며 아버지를 따라 나간다.

△ 잠시 침묵.

**향옥** ... (난처해서 몸돌바를 몰라한다.)

**종남** 잘 있었습니까? 향옥동무.

**향옥** 저, 안녕하셨어요?...

**종남** (심각한 어조로) 정말 세상은 넓구두 좁다더니 여기서 동무를 다시 만나리라곤 꿈에두 몰랐군요?

**향옥** 저도... 저, 그때 역홀에선 정말 안됐어요. 부모들이 반대하니 저두 어쩔수 없어서...

**종남** 사실 말해서 그때 내가 제대되기전 약속대로 여기 건설장이 아니라 대학으로 갔다면 동문 달리 결심할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향옥** 아니, 그건?...

**종남** 미안합니다. 이제와서 음니암니하며 지난 일을 되풀이 할 필요야 없지요. (다가서며) 그러난 이제라도 동무에게 제대후 내가 왜 여기 건설장으로 달려왔는가 하는것을 말해주고싶단 말이요.

**향옥** 아니, 이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종남** 그럼 그때 서해갑문 건설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또 동무가 초소로 나에게 보낸 그 편지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말이요?

**향옥** 아니, 그건 저...

**종남** 난 여기 건설장에 와서도 언제나 동무를 잊은적이 없었소. 순결하고 깨끗한 심장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첫 사랑을 항상 이 가슴속에 묻고 기다려왔단 말이요.

**향옥** 예?...

**종남** 그런데 동문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도 아직 회답 한장 없었지.

**향옥** 저, 종남동무! 이제라도 마음을 돌릴수는 없어요? 지금 건설장들에서도 많은 동무들이 대학으로 오고있는데... 그럼 제가 그 문젤 우리 아버지한테도 부탁해보겠어요.

**종남** 아니, 난 지금 여기 건설장에서 공장대학을 다니고있소. 그리고 나는 이미 당의 구상을 받들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벽찬 건설장에서 한생을 살기로 결심했소.

**향옥** 예? 아니, 그럼 평생 건설장에서...

**종남** 그렇소. 병사시절에 서해갑문 건설장에서 다진 땀을 지켜 건설로동자로 말ियो. (다가서며) 향옥동무! 우리 그 길에서 사랑의 새 출발을 합시다. 여기 순천땅에서 말ियो!

**향옥** 새출발이요?

**종남** 그렇소! 난 여기 건설장에서 동무 언니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느끼고있소. 우리가 어데서 무슨 일을 하든 아주머니처럼 당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산다면 생활은 언제나 보람차고 행복하다는것을 말ियो. 그래, 어떻게 소? 향옥동무!

**향옥** 저, 종남동무, 그 말은 옳지만 여기 건설장에서만이 그렇게 살수 있는거야 아니지 않아요? 이번에까지 대학으로 빠지지 못하면...

**종남** 뭐요? 그럼 나더러 병사의 땀마저 췌버리고 보람찬 저 전투장에서 비겁하게 떠나란 말ियो?

**향옥** 저,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저두...

**종남** 젠장, 동문 그때와 조금두 달라진것이 없구만. (다가서며) 생각해보나마나 내 결심은 명백하오. 그러니 모든건 동무한테 달려있소. 동무한테...

**향옥** 저, 종남동무...

**종남** 지금 생각해보니 우린 그때 채석장에서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걸 그런가보오.

**향옥** 아니, 뭐예요? 동문 정말...

**종남** 허참...

△ 이때 향숙 들어온다.

**종남** 아, 아주머니!... (다가간다.)

**향숙** 아니, 이거 내가 눈치없이 때아닌때 들어선것 같구만. 음, 향옥아.

**향옥** 아이참 언닌... (집옆으로 나간다.)

**종남** 아주머니! 그런데 우리 동무들은 안옵니까? (길쪽을 본다.)

**향숙** 종남동문 오늘 우리가 이사를 간다구 온 건설장이 떠들썩하게 소문을 냈더군요. 그래 이자두 작업장에서 남수동무랑 자꾸 따라나서는걸 겨우 떼놓구왔어요.

**종남** 예? 아주머니두 참... 이거 아무래두 내가 다시 갔다와야겠군요. (나간다.)

**향숙** 아니, 저 종남동무!...

**종남** ...

△ 향숙 집앞으로 걸음을 옮긴다.

△ 향옥 다시 나온다.

**향숙** (다가가며) 향옥아! 그래 어떻게 했니?

이자 종남동무와 다시 약속했니?

**향옥** 아니, 저... 언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면 난 그 동무를 따라 계속 건설장이나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할텐데 그렇게야 어떻게...

**향숙** 뭐라구? 그럼 너 그 동무를 포기했단 말이나?

**향옥** 아니, 그런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여기 건설장에서...

**향숙** 알만하다. 그래서 넌 그때 역에서도 부모를 빋대고 그 동무를 외면했었구나. 그렇지?...

**향옥** 내가 외면했다구요?

**향숙** 그래, 그리고 넌 그동안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구나. 난 그래도 네가 이번에 여기에 와서 종남동무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네가 품었던 짝은 생각을 뉘우치고 그를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넌 이제보니 그 동무의 참된 세계와는 너무도 멀리 뒤편어져있구나.

**향옥** 아니, 뭐예요?...

**향숙** 넌 정말, 아직 사랑과 생활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있어. 인간의 삶에서 단란한 생활속에만 행복이 있는줄 아니?...진정한 삶의 보람은 종남동무처럼 당이 바라고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며 투쟁하는데 있는거야. (천천히 다가서며) 넌 그렇게만 생각하니 이번에도 언니를 속이며 건설장에서 한창 전투를 벌리고있는 이때 우리 이사를 벌리게 하지 않았는가 말이야.

**향옥** 예? 아니, 그거야 제가 아저씨와 언니를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예요? 언니가 저 건설장에서 무슨 큰일이나 한다구 남편과 떨어져 계속 여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향숙** 물론 네 말대로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니.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 저 비날론 공장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입게 하시려고 밤잠도 잊고 심려하고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 하나 가정의 행복만 생각하며 편안하게 살수 있겠니. 그래서 종남동무도 여기 건설장에 달려와 제대배낭을 풀고 너에게 사랑과 청춘을 함께 빋내이자고 하는게 아니냐! 그런데 넌...

**향옥** 예?...

**향숙** 그래도 너두 한뎀 사회주의대건설장에 나가 휴가까지 바쳐가며 로력지원을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일하고 편안한 생활만 찾는 《귀족》 처녀가 돼버렸는지 모르겠구나. 참다운 사랑마저 잃고 말이야?...

**향옥** 사랑을 잃었다구요?

**향숙** 네가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종남동문 다시 너를 용서하지 않을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결심

을 똑바로 가져! 종남동무나, 여기 비날론 건설장에 티없이 깨끗한 심장을 바쳐가는 순천로동계급앞에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말아야!

**향옥** 언니 됐어요. 그만하세요... (생각에 잠겨 천천히 꽃밭앞으로 걸음을 옮긴다.)

**향숙** 향옥아!...

△ 향옥 말없이 나간다.

△ 향숙 이윽히 바라보다 마루로 가서 건설장에 보낼 장갑들을 차곡차곡 묶는다. 이어 부엌으로 들어간다.

△ 잠시 사이

△ 건설장으로 향한 길쪽에서 명랑한 웃음소리 들려온다. 종남, 청년 1, 2, 진옥 들어온다.

**종남** (청년 1과 지함을 마주들고 마루위에 놓으며) 아주머니! ... 이걸 좀 나와 보십시오.

**향숙** (나오며) 아니, 그건 뭐예요? 종남동무!...

**종남** 아주머니가 어제 경쟁총화에서 탄 상이지 뭐겠습니까? 하하하!

**향숙** 내가 탄 상이라니요?

**청년 1** (다가서며) 아, 아주머니님 우리 작업장에 산소병들을 탄약처럼 제때에 보장해주니 우리 직장이 이번 용접경쟁에서 두 1등을 한게 아닙니까? 그러니 경이 어머니가 탄 상이 아니고 뭔가 말입니다. 하하하!

**향숙** 동무들은 정말... 그거야 동무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힘찬 전투를 벌려 거둔 성과인데 이러지 말고 어서 가져가세요. 청년 2 아주머니! 제발 부탁인데 이번만 우리 건설자들의 인사로 받아주십시오.

**진옥** 허허, 경이 어머니가 간다구 건설자들모두가 서운해서 그럴테지. 어서 반계!...

**청년 1** 그렇습니다. 할머니!

**종남** 참, 그리고... (지함에서 장난감을 꺼내며) 이건 외할머니네 집에 있는 경철이한테 보내는건데 우리 청년작업반에서 만든 합작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향숙** (받아보며) 정말 멋있군요?! 경철이가 이 기중기를 보면 대뜸에 자기도 커서 건설자가 되겠다구 할것 같군요. 호호호...

**청년 2** 그러니 우린 벌써 미래의 훌륭한 건설자를 키우고있는셈이군요. 하하!

△모두 유쾌하게 웃는다.

**종남** 아주머니! 이제 갔다가 준공식때 꼭 다시 와야 합니다. 그땐 아마 여기가 굉장할겁니다. 비날론꽃바다가 펼쳐진 저 편포벌에 온 나라 인민들의 환희의 꽃물결이 끝없이 넘쳐흐를거란 말입니다.

**진옥** 압, 와야 하구말구! 임자야 당당히 그 준공

식에 참가할 자격이 있지.

**청년 1** 꼭 오십시오. 아주머니!

**향숙** (다가서며) 저, 그런데 동무들!... 제가 이제 가면 아주 간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전 이사를 끝내면 곧 돌아서 오겠어요.

**종남** 예? 아니, 그럼...

**향숙** 그래야 저도 영광의 그날에 어버이수령님을 뽕뽕이 뵈울수 있을게 아니예요.

**진옥** 그럼 가정은 어떻게 하고 말인가?

**향숙** 경이가 이젠 다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집에 가면 전기밥가마랑 세탁기랑 다 있으니 그런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진옥 임잔 정말,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셨던 6년전 그날 저 길가에서 온밤을 새우며 이제 공장건설이 시작되면 자기도 모든 힘을 다해 준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하더니...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싶어 그럴테지.

**향숙** 어머니, 이제 우리가 저 비날론공장을 완공하게 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더는 그런 험한 길을 걷지 않으실게 아니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전 정말 저 건설장에서 열밤을 새워도 힘든줄 모르겠어요.

**종남** 아주머니두 참... 우리가 경이 어머니 뒤편까지 다 할테니 아주머니님 글썽 준공식날에만 잊지않고 오십시오.

**향숙** 호호. 종남동무 저 합성탑건설때 저와 함께 하루빨리 공장을 완공하여 준공의 광장에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자고 한 그 약속을 벌써 잊었어요?

**종남** 차, 이런... 이러다 정말 우린 건설장에서 환송회가 아니라 경이 어머니 환영회를 벌릴게 아닙니까? 하하하!

**진옥** 그렇다면 우리 인민반원들도 모두 떨쳐나서 경이 어멈 맛을 준비를 해야 할가보군. 허허허...

**청년 2** 정말 그렇군요. 하하하.

△ 다시 모두 유쾌하게 웃는다.

△ 이때 경이 신문을 들고 뛰어온다. 이어 춘석과 직장장, 향옥 따라 들어온다.

**경이**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신문에 났어요.

**종남** 아니, 그게 정말이야?

**경이** 정말 아니문. 할머니도 어서 와서 보세요.

**진옥** 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어디 좀 볼가?

**경이** 가만 계시라요. 모두들 다 듣게 내가 큰소리로 읽어드릴테니.

**직장장** 허허. 어서 그래라.

**경이** (신문을 읽는다.) 건설장의 탄약공급수!

산소충진공 정향숙동무는 비날론공장이 착공된



그날부터 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불타는 고지우에 탄약을 보장해주던 남강마을의 녀성들처럼 지금도 건설장마다에 산소병들을 포탄처럼 드림없이 보장해주고있다. 온 건설장은 그를 두고 한결같이...

**향숙** 경이야, 그만하지 못하겠니? 앤 정말...

**진옥** 허허, 가만둬두라구. 그 애도 제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 그러는건데...

**종남** 경이야, (다가가며) 아저씨가 신문을 마저 읽을가? 인주렴! ...

**경이** 나한테 우리 어머니를 건설장에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야 신문을 주겠어요.

**종남** 아니, 그건 무슨 말이나? 경이야.

**춘석** (다가오며) 허허, 경이가 이젠 아저씨들과 딱친구가 됐구나... 저, 여보, 내 줌전에 직장장동무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사를 떠날테니 당신은 여기 있다가 건설이 끝난 다음에 천천히 따라오는게 어떻소?

**향숙** 예?

**직장장** 아주머니! 경이 아버지 지금 우리 건설장 합숙에 아주머니가 있을 방을 꾸려놓고 오는길입니다.

**향숙** 합숙예요?

**춘석** 허참, 직장장동무두... 방이야 이자 동생이 와서 꾸린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 향옥아...

**향옥** 아저씨두 참...

**진옥** (다가서며) 그러니 애아버진 이번에 경이 어머니가 가정까지 끼고 고생활가봐 이사를 시작했군 그래 음?

**경이** 그래요. 할머니. 호호호...

**춘석** 어머니. 저도 여기 순천사람인데 들끓는 저 건설장을 떠나지 못해하는 안해의 그 마음 하나 풀어주지 못하겠습니까? 하하하!

**향숙** 아이참, 당신은 정말!...

**향옥** (다가서며) 언니! 난 어쩔 좋아요? 전 정말당을 위해 가정도 청춘도 다 바쳐가는 언니나 여기 건설자들의 참된 생활을 따라가자면 아직 멀고 멀었는가봐요. (자책에 잠긴다.)

**향숙** 향옥아. 됐어. 난 네가 이렇게 모든걸 리해하게 되니 정말 기쁘구나. 향옥아!...

**향옥** 언니!... (향숙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진옥** 동생이 이번에 내려와서 언니를 데려가는가 했더니 끝내 제 언니의 뜨거운 마음앞에 감동돼 버리고 말았구만. 허허허. 직장장 어머니! 그 심정에 우리 온 건설장이 감동되어있는걸요. 하하... 정말 아주머니와 같은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에 떠받들리어 우리 비날론공장이 저렇듯 비약의 나래를 펴고 하늘높이 일떠서는게 아니겠습니까?

까?

**진옥** 정말 그렇네.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다해 모시고 기쁨을 드리려는 임자네 가정이야말로 행복을 안고사는 부러운 가정일세. 우리 순천땅의 자랑이고...

**향숙** 어머니 정말...

△ 모두 감격속에 잠긴다.

**종남** 경이 아버지! 그러니 우리 환송회는 여기 집에서 빈말공부가 되고말았군요? 하하!

**춘석** 빈말공부라?... 저, 그런데 종남동무! 이번엔 우리 향옥이가 가타부터 못하게 국수먹을날 꼭 집어냈을테지?

**종남** 예? 자, 이런...

**춘석** 향옥아! 그래 대체 어떻게 결론을 지었니?

**향옥** 아이참, 아저씨 정말... (향숙의 뒤로 피해버린다.)

**춘석** 허, 이러다 사랑싸움에 처녀총각 다 늙고 말겠군. 그럼 내가 날자를 정해주지. (다가서며) 여보! 우리 저 비날론공장준공식날 모두 여기 순천으로 와서 향옥이 잔치를 하는게 어떻소?

**향숙** 그게 좋겠군요.

**경이** 아버지! 난 절대찬성이예요. 호호호...

**춘석** 그래?!...

**직장장** 종남이가 그동안 처녀때문에 고민이 많더니 오늘 그 문제두 다 풀리는게 아닌가? 하하하!

**종남** 직장장동지두...

△ 모두 유쾌하게 웃는다.

**춘석** 오늘 건설장에서 새 전투를 시작했다는데 자, 그럼 당신은 직장장동무랑 같이 빨리 나가보라구. 이제 차가 오면 우리가 짐을 싣구 천천히 떠날테니...

**향숙** 알겠어요. 저, 도중식사는 부엌에 다 싸놓았어요.

**향옥** 언니! 여기 걱정은 말구 어서 나가보세요.

**향숙** 음, 그래?!...

**향옥** (천천히 다가서며) 저, 종남동무! 제가 가서 꼭 편지를 하겠어요. 자초지종... 저의 사죄의 편지를 말이에요.

**종남** 향옥동무!...

**향옥** 그럼 수고하세요.

**종남** 잘가오. 꼭 다시 만납시다. (서로 인사를 나눈다.)

**진옥** 허허, 생활두 사랑두 리별과 상봉속에 있더니 이렇게 모두들 뜻있게 헤어지니 이제 저 비날론공장두 완공되고 또다시 만나는 그날엔 얼마나 반갑겠나.

**춘석** 정말 그렇습니다. 어머니!... (다가서며) 여보, 그럼 수고하오!

**향숙** 경이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가정을 당신에게 맡기고 이렇게...

**춘석** 미안하긴... 당신은 그저 여기 순천땅에서 비낀 몸이 쏟아져 나온다는 그 소식만 안고 돌아오라구. 그러면 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것 같구만, 하하하!

**향숙** 알겠어요! 경이야. 잘가거라.

**경이** 어머니, 준공의 날 다시 만나요.

**진옥** 그런데 경이가 어머니한테 받은 분공을 이제

내가 맡아야 할가보구나, 허허허.

**경이** 제가 가면 이제 고운 꽃씨앗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호호호...

**진옥** 그래. (향숙에게) 집에 종종 들리라구,

**향숙** 알겠어요, 어머니!

△ 향숙 천천히 건설장으로 향한다.

△직장장, 종남, 청년들 인사를 나누며 나간다.

△ 음악속에-무대 어두워진다.

## 봄비를 마중하며

김남걸

나직하고

부드러웁게 부르는 소리 있어

창을 열어보니

아, 창을 열어보니

봄비가 내린다 봄비가

그윽한 정겨움으로

잠든 생명을 다독이는가

차분히 내리는 봄비

아, 내 가슴 적시고 적셔

깊어지는 생각이여

정을 머금은 네 목소리 부럽구나

들릴듯 아니 들릴듯해도

새싹은 땅을 들고 뻗죽이 솟고

파아란 이파리 고마웁다 인사하누나

네 모습 안개같아도 그 진정 내 지니고프구나

이슬인가 이슬도 아닌

가늘디 가늘게 잔 실 같아도

끝없이 땅속으로 파고드는 너

고목도 팔 벌려 너를 안는구나

인생아, 내 인생아 너 참말로

이 땅의 봄비가 되봤더냐

당의 뜻을 안고

봄비처럼 사람의 마음과 기억 속에

숨배여 기쁨을 준적 있던가

내리는 비소리 크지 않아도

한번 숨배이면

푸른 싹 파릇파릇 솟아나게 하고

태양 향해 아지 펼치게 하듯이

그렇게 싹을 틔우고

뿌리를 적시는

봄비

아, 봄비가 나는 좋아...

## 현대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환상소설

오정애

최근 우리 아동작가들과 어린이들 속에서는 과학환상소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시대적 추세와 관련한 응당한 반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을 발전시켜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로봇트화하고 유연생산체계를 널리 받아들이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질적 비약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세기적인 념원이 실현되게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당이 펼쳐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넓은 길을 따라 전례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그리하여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로봇트가 기계를 조종함으로써 한갓 신비로운 세계로 남아있던 새로운 과학분야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세기를 두고 대를 물리며 내려오던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회가 오늘 발전된 과학기술의 시대, 새로운 우리의 현실이다.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도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보다 휘황찬란해질 래일에 대한 희망과 꿈도 더 많아졌다.

이러한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리상, 지향을 반영하여 지금 작가들속에서는 과학환상소설 창작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고있으며 작품들도 활발히 창작되고있다.

최근에 창작발표된 중편과학환상소설 《푸른 이삭》(황정상), 단편과학환상소설 《101번째 과학소조원》(신승구), 《먼 우주에로의 여행》, 《학생과학》(라경호), 《〈은하〉호의 비밀》, 《새세대》(김승욱) 등이 그러한 실례들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현시대 과학발전의 추세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토대하여 바다개발 및 인간의 우주에로의 여행이 풍부한 예술적 환상속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있다.

작품들에 형성된 룡기운동에 의한 바다밑땅의 떠오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경력이 보관되어있는 중앙조종실자료함, 빛전지소자에 의한 우표의 비행, 사람의 생각을 알아맞추고 그대로 행동하는 특수기구로 조종되는 인공손등의 창안은 고도로 발전된 최신과학기술성과에 토대한 과학적 환상들이다.

이것은 최근 우리의 아동작가들이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과 래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과학적 환상을 창조하고 그 흥미있는 세계에 어린이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과학적 진리를 형상적으로 보여 주려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머무르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발전하는 현실은 최신과학기술발전에 따라 과학환상소설창작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한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과학환상소설들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최신과학기술발전과 그 전망을 풍부한 과학적 환상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흥미있게 반영하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은 원래 자연을 정복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문제들을 탐구하는 인간들의 생활을 환상적 수법으로 보여줄것을 기본목적으로 한 문학이다.

그런만큼 과학환상소설에는 그 과학기술적 내용이 담고있는 시대의 과학기술발전수준과 인간들의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실례로 인간의 우주개척에 대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과학환상소설들에서는 우주개척에 대한 인간의 지향을 반영하여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우주개척에 대한 문제를 반영한 과학환상소설들과 오늘의 과학환상소설들간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와 인간의 지적 수준의 발전정도로 말미암아 그 내용에서는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지난 시기 창작된 이 주제의 과학환상소설들인 《회유금속의 왕》(차용구), 《별나라에서의 축

구경기》(황정상) 등에서는 당대과학기술수준을 반영하여 우주에 비행하려는 인간의 지향과 그 생활을 소박하게 보다 단순하게 달나라, 별나라에서 희유금속을 채취하거나 축구경기를, 진행하는것으로 보여주었다면 최근시기 창작된 이 주제의 과학환상소설들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인 전자, 자동화 공업발전에 토대하여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취급되고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푸른 이삭》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의 힘이 아직 미치지 못한 바다속 깊은 땅에 항암성비이삭을 재배하는 광원이와 과학자들의 고심어린 탐구과정을 통하여 자연개조에서 인간이 노는 거대한 역할과 고도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을 과학적인 환상세계에서 감명깊게 보여주 고있다.

수만 또 수십만년을 거쳐 자연사적 과정으로 이루어진 망망한 바다를 인공적으로 단시일내에 항암성바다식물재배지로 역전시키려는 바다개발 연구사들의 대담한 착상, 땅떠오름운동을 일으켜 바다밑땅을 규격포전으로 전변시키며 물속에 태양 등을 켜는 새로운 장치의 창안 등은 최근년간 급속히 발전한 지각의 수평이동설에 기초한 판 구조이론에 의하여 착상되고 환상으로 펼쳐진 흥미있는 형상세계이다.

또한 단편과학환상소설들인 《불잡아 온 빛》, 《먼 우주에로의 여행》, 《101 번째 과학소조원》 등에서는 현대물리학의 첨단성과들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환상세계를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같은 대상, 같은 내용을 다루는 과학환상소설도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의 과학성과 심도, 독자들에게 주는 인식령역도 달라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과학환상소설의 창조과정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시대의 요구와 독자들의 지적 및 미학적 기호에 맞게 그것이 창작되자면 작품에서 그 시대가 도달한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에 기초하여 내용을 잘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문학작품도 시대의 생활과 동떨어진 작품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과학환상소설도 그것이 아무리 흥미있게 써여졌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그 추세를 반영한것으로 되지 않고는 오히려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시대정신을 옹호 구현할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인 경우에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최신성파를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현대과학기술의 추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에 기초하여 환상을 펼칠줄 알아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작가들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자기가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과학환상소설을 쓰는 작가도 자기가 알고있는 현대과학기술지식 이상의 많은것을 작품에 반영할수 없을것이다.

오늘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 원자에너지, 태양에너지, 플라스마 등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현실은 작가들이 이러한 과학기술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예술적으로 탐구를 거듭하여 과학적 환상이 나타내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학환상소설을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만일 과학환상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이러한 과학기술의 최신발전추세에 민감하지 못하여 이미 지나간것으로 되어버린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작품에 내세우거나 또 과학기술적 리치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엉뚱한 가설을 주관적으로 내세우고 이야기를 엮어나간다면 그것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오늘의 과학환상소설이라고 말할수 없다.

우리의 일부 문학작품들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그들의 지적 성장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는것도 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과학환상소설이라고 해서 전혀 실현불가능의것, 전혀 믿을수 없는것을 그린다거나 누구나 다 아는 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서는 거기에는 생활의 진실도 있을수 없고 또 탐구심을 고취하고 미래에로 부르는 환상세계도 있을수 없다.

과학환상소설일수록 과학기술적 리치에도 맞고 그 발전추세에도 맞아야 하며 그러면서도 거기에 사람의 사상과 지식, 도덕풍모 등 모든것을 미래에로 부르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환상세계가 예술적 화폭속에 감동적으로 펼쳐져야 하는것이다.

그 첫째가는 전제가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작가의 폭넓은 리해이며 그 적극적인 반영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의 환상도, 흥미도 다 그 내용이 현대과학기술의 최신성과에 기초하고 그것을 적극 반영하는 조건에서만 훌륭히 보장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과학환상소설들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작품에 형성된 인간들의 생활과 그 성격을 과학환상소설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그리는것이다.

과학환상소설도 문학의 한 형태인것만큼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게 된다.

구별되는것은 다만 인간과 그 생활이 과학적인 환상속에서 그려진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중편과학환상소설 《푸른 이삭》에 펼쳐진 생활은 현실에서 볼수 없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먼 앞날의 생활이다.

따라서 작품에 펼쳐진것은 과학적 가설로서만 그려볼수 있는 미래의 사회이며 거기에는 어린 독자들을 현혹케 할 환상적인 생활들이 일정하게 그려져있는것이다.

작품에 그려진, 지구에서는 아직은 미지의 세계로 되고있는 물속비밀을 알아내어 바다밑땅이 통채로 물위에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가라앉게도 하며 시험조종단추만 한번 누르면 관측소가 비행기동체로 되어 필요한곳에 날아가 바다위에 서기도 하고 공중에 둥둥 매달리기도 하는 장면들, 분무식 뿌리기재봉기로 투명한 가스물을 뿜으면 순식간에 별의별 옷을 척척 만들어내기도 하고 날개옷과 비행용 우산이나 프로펠라가 달린 모터찌클을 타고 사람들이 날아다니기도 하는것과 같은 장면은 어린이들을 매혹케 하는 환상적 생활들이다.

하다면 이러한 미래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사상적 및 지적 수준과 높이는 어느 정도이며 도덕윤리적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인간으로서의 사상정신적 면모는 어떠할것인가?

과학환상소설에서는 과학령역에서의 미지의 세계뿐만아니라 미래에 살게 될 인간에 대해서도 마땅히 작가의 과학적 환상이 가닿아야 한다.

만일 그에 펼쳐진 생활은 미래의 과학세계이고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오늘의 인간과 별반 다름없이 행동한다면 독자들은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환상소설의 《맛》을 볼수 없게 될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설익은 과실을 따먹었을 때의 텅텅한 맛을 느끼는것과 같다고 할것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과학환상소설들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우리

나라 실정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 환상을 펼쳐야 한다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환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 발을 붙인것이여야지 공중에 뜬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베링해협을 막아서 기후를 변경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다는 환상을 할것이 아니라 서해안간석지를 막아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서해바다속의 지하자원을 어떻게 캐내겠는가, 그러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변모되겠는가, 바로 이렇게 조선식으로 환상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우리는 다름아닌 조선땅,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그 먼 앞날에도 우리는 조선에서 살며 우리 나라에서 인류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도 건설하게 된다.

그런만큼 우리 과학환상소설들이 창조될 과학환상은 그 어떤 다른데서 찾을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며 일하는 우리 나라, 우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식 과학환상이여야 한다.

우리들의 생활에 가깝고 절실한 문제들에서 창조된 과학환상은 어린이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새로운 과학적 탐구으로 더욱 힘있게 떠밀어주는 힘있는 사상예술적 무기로 된다.

창작가들은 우리 생활과 미감에 맞지 않는 허황한 《환상》이 아니라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리식 환상을 적극 펼침으로써 어린이들이 작품을 통하여 과학적 환상을 즐기도록 하여 그환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도록 할것이다.

우리의 작가들과 창작가들은 과학적 환상력을 높여 아직 현실에서는 볼수 없으나 앞날에 실현될수 있는과학적 가설을 정설로 되게 하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미래의 사회, 인간들의 새로운 면모를 예상할수 있도록 구색이 맞는 과학환상소설, 명실공히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함으로써 앞날의 주인이며 새 사회 건설의 담당자들인 아이들의 탐구력과 지식욕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환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주자.

# 고향 시초

박성선

## 내 고향을 찾아

마음은 설레이누나 오 내 고향  
내 몇해만에 다시 온곳이라  
그립던 정 예와서 풀으니  
눈가엔 뜨거운것이 솟음치누나

어머니 하고 불러보라  
내 고향 산천아  
보는것마다 정에 겨웁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회에 즐겁구나

나는 열여덟에 초소로 떠난 몸  
아직 적의 검은 총구가 여길 겨누고있어  
내 자주 울수 없는 몸이기에  
오늘도 가던길에 잠간 들렀나니

이젠 네가 준 검은 머리칼도  
군모안에서 절반은 희여졌다만  
고향아 네 품에 안기니 아이가 되는듯  
아명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반갑구나

황홀한 꿈같이 준비한 문화주택...  
보화의 무지인듯 뒤흔은 과일동산...  
산천은 꽃피여 설레이는데  
떠날 때 맹세가 오래 있을수 없게 하누나

이젠 여기 내 집도 부모도 없다만  
이 흙 이 내물만이라도 나는 좋아  
천금보다 귀한 추억이 재산마냥 있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고향산천아

정녕 네가 나에게 있어  
내 이제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엄혹한 시련이 앞을 막아나설 때에도  
부모앞에 아이마냥 마음 행복하려니

백발의 그날에도 아이마냥 마음 즐거이  
돌아오리라 고향아 내 품에 내 안기리라  
내 설사 천만리 먼곳에서 쓰러진다 해도  
넋만은 예 와서 길이 살리라

## 내 고향 잔디밭에서

내 고향 뒤통산에 잔디밭이야  
그 어이 풀밭이라 하리오  
딩굴라고 뛰놀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고향이 펼쳐준 주단이 아니겠소

봄에는 부드러운 푸른 융단ियो  
가을에는 포근스런 금단이라  
동무동무 어깨동무 함께 놀제면  
잔디밭엔 시간도 머물러있었소

네우에 우린 송아지처럼 즐거웠고  
네우에 우린 봄날의 꽃송이들 같았소

네우에 우린 춤추는 나비같았고  
네우에 우린 동화세계의 전사들 같았소

좋은 세상에 꿈이 많던 시절  
끝도 없이 짬도 없이 노닐던 내 요람  
예서 함께 즐기던 김동문 영웅이 되고  
예서 함께 뛰놀던 리동문 발명가가 되었소

내 정답게 쓰다듬어보는 푸른 잔디밭에  
이젠 사십여년전 우리같은 애들 놀고있소  
당의 품에 안겨있어 즐거움만 있는줄을  
저 애들도 먼 후날에야 알게 될게요

## 고향아 함께 오지 못했다

고향아 함께 오지 못했다  
장태화  
에서 산 넘어 먼 천리  
그는 강원도의 산기슭에 잠들어있나니

내 고향에 간다고  
차마 목이 메여 말 못하고 왔구나  
정녕 무덤속에서도 일어나  
달려올 그가 아니냐

그리워...고향이 그리워  
별많은 그밤엔 잠 못이루더니  
고향소식 고향이야기  
만나면 끝이 없더니...

한몸 육탄이 되어  
적의 화점을 까부시고 쓰러진 그  
함께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한  
그 약속 어기고 내 혼자 왔구나

그의 늙은 부모앞에  
내 어떻게 나서면 좋으랴  
그를 기다리던 처녀에게  
내 무슨 말을 하면 좋으랴

고향아 우리를 키워준  
고향산천아

부디 경사스러운 모임엔  
제일 좋은곳에 그의 자리를 내어놓자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고향을 그처럼 사랑해  
땀아닌 피를 흘린  
그가 아니냐

내 그 이름 뜨겁게 부르며  
내 그가 살던 집을 바라보며  
걸음걸음 옮기는 눈앞에  
선히 보이는 모습이어

저 물결치는 황금벌에  
잘 웃던 그 얼굴이 보일듯하구나  
회관으로 밀려가는 젊은이들속에  
석심한 그 말소리도 들릴듯하구나

만나는 친구들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어린 학생들마다  
그를 안다고 그를 따라배운다고...

고향아 함께 오지 못했다  
공화국영웅 장태화  
허나 나에겐 어쩐지  
그가 나먼저 예와서 살고있는듯하구나

## 내 모교앞에서

가슴은 두근거리누나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내 다니던 중학교 아담한 교사  
네가 불렀느냐 내가 왔느냐

하건만 왜서인지  
선뜻 들어갈수 없구나  
내 지난날  
공부를 잘못된탓일까

이제는  
아는 선생님이 없기에  
아니면  
내 가슴에 훈장이 적기에...

몰라라...  
나는 운동장 한옆에 서있기가 좋구나  
눈앞에 펼쳐지는 지난날이  
오늘과 마구 합쳐져 뒤설레이는데...

예전처럼 울리는 정다운 종소리  
어느새 새무리들이 날아간듯  
텅빈 운동장  
내 홀로 서서 교실문을 바라보나니

다시...내 아이로 될수만 있다면  
정말 이젠 선생님 말씀 귀담아들으리  
똑바로 앉아서 한자한자 새겨쓰고  
남먼저 손을 높이 들어 대답하리...

허나...그날처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겠는가고 희망을 물으면  
나는 또 힘차게 대답하리  
조선인민군대에 나가겠습니다!

오 그때문에 정다운 나의 모교야  
작별은 이리도 길었건만  
이리도 내 가슴에 그리움이 찼건만  
이리도 멀리 가서 한생을 살건만...

다시 가리라  
내 잘못을 보면  
제 먼저 속상해하던 담임선생님이  
다시는 나를 두고 마음 아니 쓰시게

그리고...  
저 아이들이 평화로이 뛰어놀게  
정다운 고향에  
아이들이 뛰어놀 마당가 풀밭이 푸르도록

## 내 고향 향나무

푸르고 푸르렀네 내 고향 향나무  
실하게도 자랐네 내 고향 향나무  
너를 보니 문득 가슴치는 생각  
왜놈세월 모질어 참으로 모질어  
내 누이 굶어죽어 한가지 자르고  
내 아버지 병에 죽어 또 한가지 자르고

향불로 붙었네 향나무 가지가지  
원한에 쌓인 평전앞에  
울분이 붙었네 타는 심사 붙었네  
캄캄한 하늘 지옥같은 이 땅  
어찌 사노 흐느끼는 눈물이 붙었네

그날에사 곡성소리 이집저집 높고높아  
보기조차 끔찍하게 찢리우더니  
고마운 당의 해발 눈부신 세상 만나  
놀라운네 진료소정원을 다 뒤덮을듯

푸른 가지 활짝 폈네 싱싱하게 자랐네

안아볼가 쓸어볼가 한바퀴 돌아볼가  
죽음도 살려내는 이런 진료소에서야  
너를 보고 우는 나, 나를 보고 웃을테지  
백발이 성성한 백살나는 내 아버지 친구  
고향에 온 나를 잡고 목이 메여 말하네  
-자네 아버지도 해방만 맞았다면야...

정녕 해방만 맞았다면야  
죽은 내 형도 아직한 한창이요  
먼저 간 내 누이도 아직 색시갈을텐데...  
고마운 당의 해빛 한없이 따사로워  
말로써 다 못할 뜻깊은 사연 전하며  
푸르고 푸르렀네 내 고향 향나무  
실하게도 자랐네 내 고향 향나무

## 이웃들

김철민

얼핏보아 눈에 들지 않는  
수수한 사람들이다  
한마을 한동네에  
추녀를 잇고사는 나의 이웃들

허나 나는 노래하고싶다  
그 무슨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럼없이 지닌 정이 깊어  
좋은 일이 있어도 피로움이 있어도  
무릎을 마주하고 서로 나누는 사람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늘쌍 종종 걸음치는 이웃집녀인  
그에게도 살뜰한 말 건넬고싶다  
때없이 낚시대를 걸메고 강가로 가는  
저 로인에게도 존경을 표하고싶다

어찌 알라 그 녀인이  
이 땅에 많은 영웅들을 키우며  
한창 좋은 시절을 교단에서 보낸 스승인지  
로인의 수수한 솜동복 안설에  
락동강을 건너온 위훈의 금별이  
소리없이 빛나고있을지



무심히 신문을 펼쳐들다가  
 문득 알아본 숨은 공로자의 사진이  
 바로 한동네 사람, 나의 이웃이던 기쁨이여  
 려행길에서 화제에 오른  
 레절밖은 젊은이가 한동네 총각임을  
 가슴뿌듯이 알게 되던 행복이여

나는 노래하고싶다  
 그 어느 먼고장사람이 아닌  
 우리 마을, 정들은 나의 이웃들을

나라에는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  
 이웃과는 허물없이 정을 나누는...

아, 이런 사람들이  
 이웃과 이웃으로 이어져  
 온 나라가 한가정으로 사는 내 조국  
 그 꿈이 아니고서는  
 세상 그 어디가서도 만날수 없으리  
 좋은 사람들  
 정다운 나의 이웃들!

## 혈맥

윤영탁

우리 집 가족사진엔  
 낯선 얼굴이 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결에  
 아기적 나를 안고 앉아있는...

언제부터 내 알게 되었던지  
 그가 일찍 세상떠난 내 아버지인줄  
 그 모습이 그리워 어머니는  
 때로 눈물지으시고  
 자식들 잠든 밤에 사진을 퍼들고  
 남모르게 눈물도 흘렸건만

나는 몰랐다  
 그 아버지가 그리운줄을  
 어머니가 저리도 애타하는데  
 사진갈피에서 한번 웃기라도 했으면...  
 그래 되려 야속했더라

그러나 언제부터였던가  
 아버지란 그 말이  
 나에게 그리도 소중한것은...  
 내 가슴속깊이  
 그리도 뜨거이 깃들은것은...

못잊을 그날밤  
 내 로동의 첫걸음 나서던 날밤  
 종이갈피에 토박토박 수자를 적어주며  
 어머니가 나에게 조용히 하던 말  
 -너의 아버지 당원증번호다  
 기억해두려무나

아 그날밤 당과 함께  
 아버지의 한생을 물려받은듯  
 모르고 살던 그 아버지가 내 가슴에  
 왜 그리도 크게 자리잡았던지...

나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마 정은 정이고  
 피줄은 피줄로 이어지게 마련인게라고

그렇다 그것은 피줄이었다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혈육의 피줄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를 이어놓은 숨결  
 영원히 끊기지도 식지도 않을  
 어머니당이 준 혈맥이었다

## 서운한 종점

박창민

경쾌하게 달리던 렬차가 개성을 가까이하고 있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흥성거리던 렬차안이 조용해졌다. 흥에 겨워 부르던 손님들의 노래도 그치고 차창에 얼굴을 맞대고 속살거리며 까르르 웃음을 터치군하던 처녀들도 입을 다물었다. 즐거운 렬행길을 가는 젊은 부부의 밝던 얼굴도 금시 근엄해졌다.

이 선의 종점인 개성!

가슴가득 부풀어올랐던 즐거움은 대번에 찾아들고 분렬의 아픔이 못견디게 머리를 추켜들었다.

분계선기행취재를 위해 개성에 내리게 되는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절절한 숙원이 하나의 거류가 되어 가슴가득 흘러들었다.

나는 역전공원 휴식장으로 갔다. 렬차를 기다리는 대학생들이 모여앉아 시를 읊고있었다.

겨레의 가슴속에 뿜어넘치는 조국통일의 간절한 념원이 뜨겁게 울리고있었다.

한 너대학생 이 격동적으로 시를 랑송하고있었다.

기관차야

숨죽이지 말고

그대로 가자꾸나

덜커덩 선 다음

왜 꿈쩍도 않느냐

달려오던 그 기세 어따 두고...

전후에 창작된 시 《서운한 종점》이었다.

쨍-하니 걱정 of 파도가 가슴을 치며 밀려왔다. 심장이 세차게 박동쳤다.

흘러간 생활의 토막들이 달려와 눈앞에 부딪치며 산산이 흩어졌다.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못잇을 추억을 불려일으켰다.

아마도 그때가 중학교 1학년시절 같다. 개성전학을 왔던 우리는 바로 저 공원에서 통일의 열망

을 격조높이 웨쳤다.

그때 내가 읊은 시도 《서운한 종점》이었다.

문학시간에 배운 시를 분계선도시에서 랑송하니 서운한 종점을 되돌아서는 렬차의 몸부림이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실어왔다.

나는 가슴속 격정을 터뜨렸다.

《...하루속히 가자꾸나. 너 나와 약속한 남으로 뻗친 지향을 싣고...》

그것은 시가 아니라 조국의 절반땅을 가로 흘러간 분계선철조망을 부여안고 가슴을 치는 겨레의 피타는 부르짖음이었다.

그때 나는 《서운한 종점》의 비극이 곧 끝나리라고 생각했다.

길어서 3~4년, 짧아서 1~2년안이면 개성역이 중간역으로 되리라고 믿어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민족 분렬의 고통과 원한의 분노속에 되돌아서는 렬차의 안타까운 기적소리를 들으며 내 어느덧 80년대의 령마루에 올라섰다.

그렇진대 나의 그 시절엔 몇먹이나이었을 저 대학생처녀가 또다시 《서운한 종점》의 절절한 심정을 호소하고있는 오늘까지 렬차는 여기서 되돌아 다시 북으로 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국토량단의 비극속에 40여년, 해마다 봄은 레사로이 찾아와 분단의 그날에 뿌려진 씨앗이 움트고 무성하여 마흔여개의 해돌이를 감아안은 거목으로 자랐다.

뿜어진 강토, 갈라진 겨레!

피가 마르는 고통을 두고 순간의 안식도 없이 이 땅우에 흐르는 모든 날과 날에도 간절한 소원을 새겨가며 것처럼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민족의 념원은 돌우에 꽃을 피운대도 수백번은 피웠으리라.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통일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 세대가 다 자라고 다음세대가 그뒤를 잇도록 분렬의 력사는 끝나지 않고있다.

반세기가 돼오는 분렬의 기나긴 세월 두고온

어린자식의 소식조차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머리에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다.

동백꽃 피는 남해바다가, 기차로 하루길이건만 그리운 고향을 꿈결에서만 찾아보고있다.

매생이를 타고 아침저녁으로 오고가던 림진강 나루터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건만 강화도가 고향인 풍덕벌의 할머니 스물두살나이에 나들이 왔다가 일흔이 되도록 남편의 소식조차 모른다.

지리학자가 제 나라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제주도를 그리고 조국기행에 오른 기자가 삼천리 강산의 절반땅만 다녀와야 하는 이 비극을 두고 통탄과 울분의 피눈물만 뿌릴 때가 아니다.

더는 갈라져 살수 없다. 더는 가슴속에 흘러간 원한의 분계선철조망이 남긴 아픈 상처를 안고 피눈물을 흘릴수 없다.

더는 세상사람들이 조선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남북으로 부르게 해서는 안된다.

한해두해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조국통일은 더는 남겨둘수도, 더는 넘겨줄수도 없는 시대의 절박한 임무로 되고있다.

조선의 하늘아래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비극사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떨쳐나서야 한다.

아, 개성이여!

너 눈물을 머금고 시를 읊던 10대의 그 소년이 40대에 들어선 이날이때까지 서운한 종점으로 남아있단말인가.

아직도 기세좋게 달려오던 렬차 덜커덩 선 다음 꺾지도 하지 않다가 하늘이 터지도록 안타까운 기적소리를 울리며 다시 북으로 되돌아간단말인가.

멀지 않게 생각했던 나라의 통일이 반세기가 돼오도록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오늘은 나도 《서운한 종점》의 시를 써야 한단말인가.

아, 통일렬차를 타고 려수로, 목포로, 부산으로 야영을 떠나겠다면 그날의 소년이 분계선기행이라는 기막힌 취재의 길로 여기에 왔구나.

만일 이대로 세월이 또 흐르면 지금 10대의 소년인 내 아들이 이 아버지처럼 예서 《서운한 종점》의 시를 읊게 되고 이대로 또 몇년세월이 흐르면 그도 이 아버지처럼 분계선기행취재의 길을 오게 될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저려드는 일이다.

《서운한 종점》의 시가 아니라, 《분계선기행》의 취재가 아니라 야영의 길로, 《남해기행》의 취재길로 개성을 지나가야 한다.

차창에 물결쳐오는 고려의 옛 도읍 《개경》을 감회깊이 바라보며, 정답게 안겨오는 송악산의 푸른 소나무와 하많은 마음속이야기를 나누며, 부산을 떠나 신의주로 가는 북행렬차의 손님들에게 정다운 인사를 보내며.

그렇다, 그날은 오리라!

세계적으로 식민지체계가 붕괴되고 해방된 인민들이 모두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조국의 절반땅에서 일제식민지통치에 이어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4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다.

조선은 하나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도 하나다.

갈라진 하늘밑, 끊어진 강토우에 민족분렬의 년륜이 새겨졌고 한 세대가 다 자라도록 헤어져 살지만 그 누가 하나로 흐르는 겨레의 마음을 돌로 갈라놓을수 있다더냐, 그 누가 한하늘을 돌로 쪼갤수 있다더냐.

백두산이 한나산을 부르고 남해가 동해를 따라 소용돌이치는 이 땅에 통일의 서광 비껴간다.

원한의 망국사에 오열의 피눈물을 뿌리던 그 시절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맞이한 우리 인민은 오늘 찬란한 향토성의 빛발을 받아 안게 된 행운을 안고 희망과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새날을 향해 힘차게 진군해가고있다.

나의 눈앞에는 국토의 허리를 무겁게 지지누르던 분렬의 장벽이 봄날의 눈석이처럼 녹아내리고 해빙기의 얼음장처럼 갈라지고 터지고 깨여지고 부서지는 장쾌한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다, 조국통일의 려명은 밝아오리라.

밤이 새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땅에 통일의 새날은 밝으리라.

미구에 나의 분계선기행 취재길도 마지막이 되리라.

그날 여기 개성을 지나 남으로 천리 조국기행의 취재를 가며 나는 시를 쓰리라.

《서운한 종점》이 아니라 《서운한 종점이었던 곳에서》를.

## 승리자의 모습

박두일

하늘도 류달리 맑고 푸른 아침이다.

밤도와 내린 이슬에 차분이 젖어있던 가로수의 푸른 잎사귀들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히더니 솟아 오르는 연분홍노을빛을 머금고 록색주단에 드러운 진주보석처럼 명롱한 오색빛을 뿌리었다. 마음도 기분도 상쾌한 이 아침.

나는 생신하게 가꾼 꽃송이를 아들에게 들려가치고 내가 늘 찾곤하는 인민군렬사탑의 푸른 언덕을 오르고있다.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가나?》

《그래, 할아버지가 계시는곳으로 간다.》

《야.》

아들애는 너무 좋아 달삭달삭 토끼뽀뽀기를 하며 뽀르르 앞서 달려 올라간다.

충계우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하여 넣었습니다.》**

나는 백화만발한 화원속에 솟아있는 인민군렬사탑을 숭엄한 감정으로 바라보며 아들애의 잔등을 가볍게 떠밀었다.

그러나 아들은 렬사탑의 군상만 올려다볼뿐 움직이려 하지않는다.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생겼나?》

《그래!》

아들애의 물음에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다.

《아니야. 할아버진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저건 인민군대아저씨지뵈. 난 할아버지한테 갈래 흐흐흐...》

때없이 할아버지를 찾곤하는 아들에게 이런 뻔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가.

나는 너무도 철이 없는것을 조급하게 이곳으로 데리고 떠난것이 한편으로는 후회되기도 하였다.

마침 귀밑머리가 희숙한 인민군장령동지가 나의 이 심정을 읽고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었다.

《애야, 저 군대아저씨가 진짜 너의 할아버지란다. 그러고 보니 너는 꼭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자, 나하고 함께 할아버지한테 가자.》

아들애는 냉큼 인민군장령동지의 손을 잡더니

렬사탑으로 다가간다.

나는 인민군렬사탑앞에 붉은 꽃송이를 놓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불쑥 내가 저 애 나이때 아버지를 찾던 일이 생각났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전혀 모르고 자랐다.

그것은 나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사진으로도 남아있는것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해방후 분여받은 땅의 표말둑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는데 그나마 폭격에 집이 불에 타며 재가루가 되었다는것이였다.

다만 내가 아버지생각을 할적마다 머리속에 선뜻 떠오르는것은 반토굴집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홀적삼 하나였다.

귀청이 찢히게 하늘땅이 우르릉 울리고 천정에서 석비레가 우수수 떨어질 때면 어머니는 겁에 질린 눈으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떠는 나를 껴안고 매케한 화약내가 쓸어들어오는 피창문너머 먼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걱정을 하였다.

그러던 어머니가 어느날 인민군 군관이 가져온 봉투없는 편지를 받아 읽은 다음부터 무서움도 힘든줄도 모르고 이를 악물고 낮에는 맹폭격속에서 발일을 하고 밤에는 총포탄을 지고 아버지 계신다는 전선으로 달려갔다.

어쩌다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 아버지소식을 물을 때면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꼭 품에 안고는 슬그머니 이불깃을 눈에 가져가곤하였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회상의 전부이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적다고 그리움도 적었던것은 아니였다.

전쟁이 승리하고 전선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던 어느날 고향사람들이 온다고 온 마을이 떨쳐나섰을 때 나는 아버지도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것만 같아 역전으로 나가는 어머니를 따라나섰다.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아 사람들속을 헤치던 나는 탄성을 울리며 달려가는 어머니를 따라 방금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으며 지팡이를 잡고 렬차에서 내려선 인민군 군관앞에 이르렀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나는 재빨리 어깨우의 별을 세여보기 시작하였다.

왜냐면 어머니가 아버지는 별을 세게 달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그러나 그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다.

엎어질듯 두팔을 벌리고 달려온 옆집 할머니가 와락 군관의 목을 끌어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영수야!》

《어머니!》

한동안의 흐느낌소리에 이어 걱정에서 떠는 옆집 할머니의 마디굵은 손이 맥없이 흔들거리는 한쪽 군복바지가랑이에 마쳤을 때 군관은 머리를 푹 숙이고 말하였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할머니는 한마디의 나무람도 하지 않고 이슬젖은 아들의 얼굴만 자꾸 쓸어보더니 갈린 음성으로 말하였다.

《장하다. 내 아들이! 대신 너는 조국을 지키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머리를 들어라. 우리는 이겼다.》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너의 그 다리를 대신해 줄게다... 암 대신해주고말고...》

할머니는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을 념도 않고 봄비는 역구내가 울리게 소리높이 웨쳤다.

와-마을사람들이 할머니 일행을 둘러쌌다.

웃음소리, 흐느낌소리, 이어 물결치는 사람들의 어깨위로 군관의 모습이 불쑥 솟아올랐다.

《자 길들을 비켜주오. 전선에 갔던 우리 마을 총각이 영웅이 되어 왔소.》

경적을 울리며 바쁜 길을 재촉하던 자동차들도 아낌없이 길을 내주고 눈치무딘 황소에게 욕을 퍼부으며 길옆으로 코뚜레를 찌지게 당기는 달구지군도 밀짚모를 벗어 높이 흔든다.

지나가던 길손들도 너나없이 손저어 반기는 저 모습.

나는 그 모습이 부러워 이미 렬차가 떠나간 빈 역구내에서 다시한번 아버지를 찾아보았다.

왜 우리 아버지는 오시지 않을까?

나는 거의 매일같이 기적소리가 들려올 때면 역구내로 달려갔고 돌아와서는 흑시나하여 방문부터 열어보았으나 그때마다 내 눈에 띄는것은 아버지가 벗어놓고간 훌적삼 하나뿐이었다.

그마저 어머니는 오래두지 않고 어느날 저녁 뜯어서 내 옷을 해주더니 다음날 아침 나를 달고 수도복구건설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부터 나는 노상 복구건설장에서 사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아버지를 거의 잇다싶이하였다.

이런 나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렬사탑을 세워주신 잊지 못할 그날이었다.

이날 나의 손목을 잡고 인민군렬사탑에 오른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늘 그리워 찾던 아버지다.》

가슴에 새겨두어라. 저 모습이 너의 아버지 모습이다.》

그날에야 나는 비로소 모든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리라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할 때도, 제대되었을 때도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도 내가 제일 먼저 찾아온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이 푸른 언덕이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나는 이 푸른 언덕우에 솟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힘을 얻었고 그 모습에서 창창한 우리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기관단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오늘도 조국의 문전을 지켜선 수호자인양 동터오르는 태양을 남먼저 응위하는 저 모습.

저 모습 비껴 산악같이 일떠선 천만 대오가 지축을 울리며 일심단결되어나가고있는것이 아닌가.

하기에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도, 대양과 대륙을 건너온 수많은 외국대표단들도, 영웅들도, 장령들도,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로력혁신자들도 아니 이 나라 전체 인민들의 경건한 마음들이 푸른 이 언덕에 꽃바다를 펼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버지, 왜 우리 할아버지한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오나?》

문득 아들의 말이 귀전을 때렸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사색의 갈피를 헤치고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끝간데 없는 사람들의 물결이 탑을 우러르며 총계를 오르고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아들아, 너는 그것을 리해하기에는 아직 너무도 나이가 어리구나.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수많은 혁명전사들에 대하여,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모습이 그대로 동상이 되어 이 세상 가장 높은 언덕우에 솟아있음을 어떻게 철없는 너에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설명해줄수 있겠느냐.

그러나 아들아, 머지 않아 너는 꼭 그것을 알게 될것이다.

나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높이 솟은 인민군렬사탑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승리자의 모습, 그렇다. 그것은 백전백승하는 조선인민의 모습이였다.

# 나는 이 길을 간다

김용남

나무잎에 떨어지는 비방울소리  
비에 젖는 밤새의 울음소리...

차디찬 비방울이  
온몸에 휘뿌리는 밤  
나는 순회길을 간다  
산넘어령넘어  
아득히 뻗어간 통신선 따라

비바람에 통신선이 흔들리면  
마음도 흐뭇하게 수화기를 두드리며  
제철지구의 불같은 사람들을 찾는  
그 어느 경장의 목소리 거칠어질것만 같아

내 눈길 한번 설피면  
생남이라고  
탄부감이라고 속삭이는  
살뜰한 간호원의 웃음이 흐려질것만 같아  
그 아름다운 행복에 그늘이 질것만 같아

들려온다  
저너머 어디선가 은은한 기적소리  
먼 바다의 배고동소리...  
잠들줄 모르는 마음들에 받들려  
쉽없이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이

수십리전주길은  
달리고 달려온 나날이런듯  
팽팽하게 이어나간 통신선은

늦출수 없는 내 마음이런듯...

잠시 비를 그어간다고  
그 누가 탓하랴만  
이 한결음이 늦으면  
조국의 그 귀중한 숨결이  
순간이라도 가빠질것만 같아

아 어찌면 이밤도  
농사일이 그토록 걱정되시여  
잠못드실 수령님 우리 수령님  
송화기를 드시고 또 어느 농장을 찾으실것만  
같아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노라!

여기서 평양은 멀어도  
때없이 인민을 찾으시는 우리 수령님  
인민이 따르는 어버이여서  
달밝은 당중앙의 창문가로  
내 마음 뜨겁게 흘러드나니!

나무잎에 떨어지는 비방울소리  
비에 젖는 밤새의 울음소리...

이밤  
나는 순회길을 간다  
반겨주는 이 바래주는 이 누구 없어도  
남모르는 행복에 젖으며  
이 모든 생활의 숨결을 이끌고...

# 바이루트의 처녀애에 대한 답시

(소련) 보그단 찰르이

바이루트 그것은 비애, 신음, 아픔  
그것은 마음과 육체의 살점을 도려낸다  
바이루트 그것은 방방곡곡의 공격목표  
그것은 싸부라와 샤틸라

바이루트 그것은 먼지속에 튀구는  
새하얀 덩이사랑  
바이루트 포탄들이 폭발한다  
다시금 죽음의 압아

바이루트 그것은 옆집으로 뛰어들군하는  
텔아비브와 나란히 서있어라  
바이루트 그것은 공포, 당황, 격분  
그것은 뉴저시로부터의 일제사격

바이루트 그것은 최악의 산악  
대양너머 건너온 커다란 피암  
바이루트, 레바논 그것은 사과도 빵도 없는  
불쌍한 아이들

바이루트, 레바논 그것은 놀이감도 애무도 없는  
어린아이들  
바이루트 그것은 강도들한테 로략질당한  
폐허된 옛도시의 추억

바이루트, 레바논 그것은 엄마 아빠가 없는  
갓난아이들  
시커먼 둔덕우에  
매운 안개발이 퍼진다

바이루트 그것은 불속의 야자수

피처럼 타는 진홍색의 새벽  
바이루트 그것은 탐욕스런 기발밑에 양키들이  
옥실거리는  
먼 바다를 떠나가는 함대

바이루트 이국의 해병이  
마치 문어처럼 거들먹거린다  
바이루트여 너 아직도 살아있느냐  
혹시 살기를 원치 않는게 아니냐?

바이루트는 대답한다 살아있소  
싸움속에서도, 빈궁속에서도  
지어 바이루트에서는  
새 노래까지 생겨나오

참말로 누구의 노래인가  
저 구역에서 들려왔어라  
거기서는 오늘도 피가 흘렀어라  
무시무시한 횡포가 감행됐어라

파스한 온기가 가득찬 그 노래  
첫 걸음마를 땀  
네살잡이 레일라 처녀애가  
부르고있었더라

폐허속의 시커먼 구멍을 통해  
연기속을 뚫고 그 처녀의 노래 흘러와라  
레일라의 눈은 마치 벗알갈아라  
아마 그보다도 더 새까말수 있으리

그러한 어린애건만 목소리는

펼친 나래가 불에 타  
갈매기들이 모래불에 구겨박히는  
바로 그 바다의 메아리런듯

처녀애의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불길이 세계를 태울수 없다는  
그것은 살며 활동하리라는  
확신, 희망만 어리였어라

처녀애 레일라는 노래불러라  
짙막한 노래  
그의 작은 가슴속에서  
마치 씨앗이라도 돌아난듯

-오, 땅이여 나의 해님이여  
고국의 바다여 산이여  
너의 품엔 많은 아이들이 있어라  
너는 그네들을 각이하게 사랑하여라

어떤 아이들에게는 행복을  
그들한테는 색갈고운 책가방에 책이 가득  
그 애들한테는 놀음과 웃음  
한데 어린 레바논 아이들에겐 죽음을...

모든 아이들에게 뛰놀음을  
평화로운 고요속에 안온을 주건만  
레바논 아이들에게만은 오직 공포와  
밤보다도 무서운 낮을 주나니

평화를 얻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도 모든 여느 아이들처럼  
이 세상우에서 살아가도록-  
처음에는 레일라의 노래

지하실로 흘러갔어라  
어둠속의 사람들 그 노래 듣고  
조용히 그속에서 나왔어라

자동총을 멘 전사 하나  
처녀애의 어깨를 불안고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내 너의 오빠가 되겠노라!

하얀 두건을 쓴 정중한  
그의 할아버지들 머리를 끄덕였다  
하얀 물거품 이는 물에  
채빛 종려수들이 가지를 숙이었다

헌데 다음은 처녀애 레일라  
사람들이 가득한 강당에서 노래불렀다  
텔레비죤촬영기가 촬영하는곳에서  
노래가 더 멀리 울려퍼지도록!

모든 어머니들이 들었어라  
고통이 가득찬 이 호소를  
각처에서 부모들은 생각하였다  
이 엄혹한 운명에 대하여

부모들은 충심으로 칭찬했어라  
머나먼곳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는 그 구절들을 속삭였어라  
소박한 그 시구절들을

-오, 어머니땅이여 말하여다오  
평화를 얻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도 모든 여느 아이들처럼  
이 세상우에서 살아가도록-